금주법구
착한 벗이 좋기는 좋아도
바른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간다면 온갖 악이
침범해 들어오지 못한다.
-불본행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철종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1월 1일 수요일(주간) 제 292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도난 문화재 찾기 경찰청 나섰다

도난문화재 DB구축 인터폴 등 연계 수사
범국민 캠페인 전개…교계 "성보 회수 기대"

도난 성보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경찰청은 국내 최초의 도난 문화재·미술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난문화재 찾기 범국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난문화재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문화재를 비롯한 예술품을 망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찰청이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미 연방수사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문화유산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한편 영국도난미술품등록센터, 박물관 등 해외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 세계에 유출된 국내 문화재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난 성보의 행방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교계에서 도난 당한 문화재는 84년부터 지금까지 송광사 16국사진영(보물 제1043호)을 비롯해 총 473건에 이르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난 문화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관련기사 16면)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미술품 경매회사인 마이아트와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표준문화재등록시스템인 '오브젝트 ID'를 이용해 도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입력, 색인해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유물의 이름과 도난 일시 및 장소, 제작 연도, 원소유자, 사진 외에 유물의 재질과 기법, 실측, 특별 표기 사항, 특징, 제작자 등 6~7개의 항목이 추가된다.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사이트에 등록된 도난 문화재는 9월말 현재 1백36건 5천4백51점.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정·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정보만 관리하고 있는 데다 해외 사유재산 물품은 제외돼 있어, 여기에 일반 문화재와 그림, 조각 등 미술품을 추가하면 도난 문화재수는 수만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중·장기계획으로 해외유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해외유출문화재는 프랑스의 파리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를 비롯해 7만4천548점에 이른다.

경찰청 이상식 마약지능계 계장은 "도난문화재에 관한 화상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그간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문화재사범의 경우 다른 조직범죄에 비해 국제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도난 문화재를 추적하면 10%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증욱·권형진 기자 (gobacou@buddhapia.com)



직장·직능 불자들 한자리

전국 직장·직능 120개 불자회 회원 3천여명은 10월 22일 동국대 만해관장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국 직장 직능 불자 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직장 직능 불자들은 생명과 환경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5면)

사진=고영배 기자

교계현안 국회제출

조계종, 국감반영 당부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10월 24일 국회 건설교통위 환경노동위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의견서를 통해 △전통사찰의 유지 보수와 종교활동을 위한 건축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 완화 △국립공원 내 사찰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 △각 공원별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의 수립 △경기도 용인 장경사 인근 송전탑 건립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북한불교 참여 공동노력"

한·중·일 합의서 채택…내년 대회 북경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불교협회, 일중한불교우호교류위원회는 10월 25일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 3차 회의를 열고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교류위원회 참여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폐회했다.

3국 불교대표들은 조선불교도연맹의 참여에 대해 "당사자인 조불련의 의사를 확인한 후 4차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단협의회는 곧 조불련의 참여를 권유할 방침이다.

3국 불교대표들은 또 △각국 수행체험단의 상호 방문 △중국 서부지역 식수사업 참여 △4차 회의에서 3국 공통경전 제작 논의 △주요 분야 상설분과위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4차 회의는 내년 10월 23~25일 북경에서 '불교와 신세기의 평화'를 주제로 열기로 했다. 합의서는 각국의 수석대표인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도슬인, 일중한국제불교교류위 이사장 고바야시 류소 스님이 서명했다.

3국불교교류위는 이번 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 "인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5계를 호지하고 적극적인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생활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4일 3국의 불교대표와 천태종 신도 등 1천여명은 서울우면동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신세기 세계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세 나라 불교의 우호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단 소임자 자격검증 필요"

재가연대, 종회의장 출마자 등 문제제기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0월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승가대 부실공사와 관련,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인사들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출마예정자와 총무원 기획실장 임명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재가연대는 이날 "현재 가장 유력한 중앙종회의장으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종회의원스님과 신임 기획실장스님의 경우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부실공사와 관련, 당시 책임있는 위치에서 경영을 맡고 있던 소임자로서 마땅한 해명과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종단의 선출직 및 임명자의 중요 소임자들에 대해 과거 행정이력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어 불합리한 과오를 반복할 개연성이 커 종단 소임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가연대는 이날 "이미 여러 차례의 선거를 치르며 문제점이 확인된 바, 선거 과정상의 발전을 위해 후보자의 이력과 행적, 경영능력, 정책 등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위한 '공개적 트론 절차'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핸드폰에 불교 담았다

019 이어 017도 불교정보 서비스
本社, LG텔레콤·신세기통신 제휴…프리즘社 개발

불교계 정보서비스 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 신문사가 (주)LG텔레콤 및 신세기통신과 손잡고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10월 19일 019 서비스에 이어 11월 2일부터 017로도 다양한 불교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본사와 무선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프리즘 정보시스템한가연초부터 개발에 착수해 완성한 불교정보 서비스는 핸드폰을 통해 불교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로 구축됐습니다. 본사는 019, 017 서비스에 이어 더 많은 무선통신망과의 제휴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접속방법

017 무선인터넷에 접속, info Touch의 종교메뉴에서 불교정보 선택

019 무선인터넷 초기화면(ez-i)의 정보·커뮤니티 메뉴 중 7번의 건강·종교에서 종교를 선택해 2번 불교정보 선택.

◆불교정보 WAP 서비스 내용

△알림방: 뉴스 메뉴에서는 매일매일의 불교관련 뉴스와 법회 및 행사, 주간 한 이슈 등을, 알림방에는 각 종단과 사찰 단체들의 최근 정보를 공지사항에는 서비스 운영자가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사항들이 담이지게 됩니다.

△공연 전시: 공연정보와 전시 정보를 나누어 제공하며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물론 주최측의 연락처 및 공연 전시의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상구보리: 법문에서는 현대 고승들의 법어를, 길을 묻는이에게서는 한마음선원 대행 큰스님의 신행상담 내용을 만날 수 있으며, '도'란을 통해서는 귀감과 감동을 주는 명구들을 전해 줍니다.

△마음의 양식: 불교 책마당에서는 베스트 불서와 화제의 책을 검색해 볼 수 있으며 불교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불교정보검색: 기초용어사전과 불교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찰 안내: 전통사찰과 알만 사찰은 물론 해외 한국 사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커뮤: 게시판, 대화방, 법구와 운세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추후 불교를 소재로 하는 게임방, 위즈이벤트 등의 서비스도 할 계획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청소년 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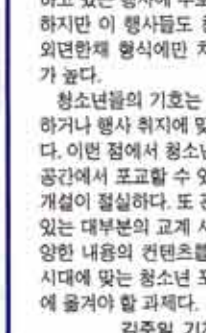
겉치레식 행사-포교 지양
청소년 눈높이 프로 개발

현재 교계의 청소년 포교는 선재연구모임의 청소년 상담지 〈선재들의 속삭임〉, 부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의 〈무지개결린나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파라미타〉 등 한손에 꼽기에도 충분한 소책자들이 그나마 청소년 불자들의 활동 모습과 고민 등을 글로 알려 주며 포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각 청소년 단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최근 활동 소식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청소년들의 신행 정보와는 동떨어진 내용들 투성이다.

도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와 파라미타청소년 협회 등 10여개의 청소년 단체들이 마련하고 있는 행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행사들도 청소년들의 기호와 성향을 외면한채 형식에만 치우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들의 기호는 변하고 있다. 조금만 지루하거나 행사 취지에 맞지 않으면 눈을 돌려 버린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의 성향에 맞춰 사이버 공간에서 포교할 수 있는 청소년 불교 사이트의 개설이 절실하다. 또 관리 소홀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계 사이트들이 각종 정보와 다양한 내용의 컨텐츠를 확보해 재단장하는 것도 시대에 맞는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如是我聞 Yosiamun.com
불교세계의 길이 열립니다.
Tel:02) 737-0695 Fax:02) 737-0696
국내최대 인터넷 불교서점 여시아문 닷 컴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12권 선암사 편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14편 선운사 본말사 편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특별가 200질 한정보급
기간 :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

사 설

'한국의 불화'는 대작불사

전국의 사찰에 소장된 불화를 집대성한 〈한국의 불화〉 대작불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이 지난 90년부터 작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해까지 16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올해 다시 4권을 보태 1차분 20권의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2005년까지 매년 4권씩 발행, 모두 40권으로 대미를 장식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책'의 형태이긴 해도 5천여 점의 불화가 집대성된 또 하나의 '성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탱화 도록은 주로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불화〉는 제작연대가 조선시대 말까지인 모든 불화를 망라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미술문화를 집대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평가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화는 불상에 버금가는 비중을 지닌 중요한 신앙의 상징물이다. 또 우리나라 불교의 신앙 내용과 형태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회화사(繪畵史)에 있어서도 불화는 그 표현 기법과 채색의 사용법이 독특해 연구의 대상이며, 일반 회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고려불화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불화는 내구성이 뛰어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크다. 오래 전부터 문화재 도굴범들의 표적이 되었어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게 그 동안의 실정이었다. 훼손되었어도 원형을 몰라 복원도 쉽지 않았다. 〈한국의 불화〉 간행은 신앙의 상징인 불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지만, 성보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사찰의 전각에 모셔진 불화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연유에 의해 조성됐고, 어떤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니 당연히 문화재 도난범들의 표적이 되어도 대책 마련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불화〉 대작불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1권 제작에 들어가는 1억원씩의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촬영 장비를 산에서 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더 해야 한다. 불자들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 같이 힘을 보탤 일이 남았다.

대불청의 재도약 기대한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가 10월 22일 21대 중앙회장으로 김규범 씨를 선출했다. 김규범회장의 이력을 보면 마산불교청년회 봉은사 청년회 등 일찍부터 청년불교 활동의 전면에 서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리더십과 대불청의 향후 활동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한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 청년들의 눈빛을 보라는 말이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불교의 미래는 청년불자들의 어깨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년이야말로 희망이며 도전이며 개혁의 상징이다. 그러나 한국 청년불교를 대표한다는 대불청은 언제부터인가 그 조직이나 활동면에서 여전같지 않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불청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만해 한용운스님을 비롯한 불교선각자들의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과 조국 광복'이라는 취지로 1920년 창립되어 8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광복 후에도 격변의 시기마다 불교대중화와 불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내걸어 왔으나 수년전부터 침체의 늪에 빠져 불교계에서 그 역할조차 미미해져 갔으며 심지어는 종단사태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규범 새 회장은 실천과제로 전국조직 정비와 전국지부 지회 네트워크 형성, 대불청 부설 청년정책연구소 설립, 만해대학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시효과적인 사업보다는 내실있고 능력이 되는 사업부터 차근차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각 지부와 지회의 활성화가 선결과제다. 회원들의 동참없이 머리만 있는 단체의 미래는 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불청이 힘을 가지려면 자립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면 재정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다고 본다. 종단이나 사찰에 기대지 않고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불교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다. 이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를 주도하며 젊은이다운 패기와 순수한 열정, 과감한 실천력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가야 한국불교도 활력이 살아나고, 재가불교 지성불교가 꽃피워진다.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대불청이 침체에서 벗어나 만해정신으로 다시금 무장하고 발심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으로 서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신라·백제불교 초전지 성역화

구미시 모례원·도리사에 전통사찰·기념관 건립

영광군 법성포·불갑사 일대 진입로·존자상 추진

경남도 가야불교 유적지 연결 관광벨트 개발

신라·백제불교의 초전 법륜성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나란히 성역화 된다. 또 한국불교 남방전래설의 무대인 가야불교 유적도 관광루트로 개발돼,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포교에도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경북 구미시는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와 함께 아도화상이 눌지왕 원년(417년) 신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모례원 일대와 신라불교 최초 사찰인 도리사 성역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까지 총 43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모례원 성역화사업은 모례원 일대 부지 1만6500평에 연건평 641평 규모로 전통사찰, 선원, 기념관, 불교교육관 등 20동의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 이 중 신라불교 초전지 기념관(부지 430평, 연건평 33평)은 이미 지난해 12월 7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불교교육관은 모례원 주변 폐교인 송도초등학교를 임대해 조성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또 아도화상이 창건한 도리사 정비를 위해 극락전 해체 보수, 아도화상 사적비 정비를 마쳤으며 설법전 건립 지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 화장실 등 시설확충 지원에도 나섰다.

직지사 주지 법성스님은 "모례원 등 신라불교초전지 성역화사업이 완료되면 불교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물론 유물 전시와 교육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불교 홍포 및 포교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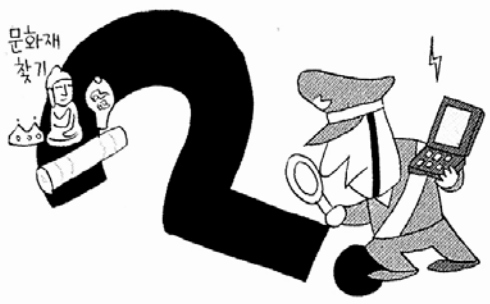
침류왕 원년(384년)에 인도 마라난타 스님이 백제에 불교를 전하면서 창건한 불갑사가 있는 전남 영광 법성포일대의 성역화사업도 지난 4월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둔사 등이 참여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됨에 따라 본격화 되고 있다.

법성면 진내리 일대 1만3천여평에 약95억원을 들여 오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시행초기 기독교계가 특정종교 사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 한동안 마찰을 빚어왔으나 현재 2차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토목공사 기공식과 마라난타상 건립이 내년초에 추진될 계획이다.

추진위는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만다라광장 등 기념시설물, 부용루 수경관 등 건축물 건립과는 별도로 마라난타 존자상 및 좌대 건립을 위한 민간차원의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가야 김수로왕 7년(48년) 인도 아유타국에서 건너온 허황후와 그녀의 오빠 장유화상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했다는 남방불교 전래설의 무대인 신어사 동림사~은하사~장유암~칠불암도 경남도에 의해 가야문화역사 관광벨트로 조성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끝까지 추적해서

"중앙승가대 연내 이전"

정대스님 "11월 준공검사 후 입주"

중앙승가대학의 김포학사 이전이 올해안에 추진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0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말 안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학사로 옮긴 이후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단의 3대 사업 중의 하나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총무원 청사 신축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히고 "그러나 새 청사를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학사 이전과 관련, 중앙승가대 이사장 정대스님과 시공사인 풍림건설은 10월 27일 290억원으로 공사비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미지급 공사비 198억원을 10월 말 83억원, 내년에 65억, 2002년에 50억원 등 세 차례로 나눠 풍림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21세기 포교방향 세미나

조계종 포교승가회(회장 종후스님)는 2일 중앙승가대 정진관1층 강당에서 '21세기 포교방향 및 포교방법론 연구'를 주제로 포교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포교세미나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포교방법론'에 대해 홍선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기조강연하고, '포교활성화를 위한 신도조직화 연구 방안(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내년예산 감축

특별회계 10억 줄여 편성

조계종 기획실이 10월 26일 발표한 '불기 254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 개요'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157억4300만원으로 올해에 비교해 0.1% 줄여 편성했다. 특별회계도 119억4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억1700만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사회부 종립학교관리위 중앙종회 중앙승가대전출금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의 예산을 동결 또는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해 중앙종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획실은 초긴축기조 속에서도 남북불교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부에 1억2000만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5200만원, 중앙종회에 3400만원, 중앙승가대 전출금 25억원을 증액해 배정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올해와 같은 34억6700만원, 19억6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조계종이 초긴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 사찰 수입의 증가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승가대 이전 불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분담·직영 사찰의 분담금은 상향조정했다.

기획실장 성혜스님은 "중앙승가대 이전 불사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특별분담·직영 사찰의 분담금을 상향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은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을 동결하여 이전 불사의 전출금을 최대한 증액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10월 24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하고 교구본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 녹원스님 출석보고 요청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으로부터 동국학원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지난 10월 23일 보고를 듣기로 했으나 녹원스님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녹원스님의 출석을 다시 요청했다.

한편 종립학교관리위는 '동국학원 위상과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10월 31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세미나는 '동국학원 설립과 건학이념'(영담,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소위원장) 주제의 기조발제와 '조계종단과 동국학원의 현황과 생산적 관계 모색을 위하여'(장곡, 종회의원), '동국학원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위한 모색'(심익섭 동국대 교수회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에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찬 원장과 담당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불교 복지향상을 발원하는 이번 불자 의료지원사업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규모 : 6~8명 정도
- ◆지원 대상 : 노스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자
- ◆지원 내용 :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 ◆구비 서류 :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 ◆진료비 무료 : 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3,000원 안팎) 및 무통 주사비는 본인이 부담.
- ◆접 수 :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동인천 길병원
후원 :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길녀)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 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512쪽 /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海印 〈화엄경〉의 '능인해인삼매중能人海印三昧中'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렸다는 〈해인도〉는 '심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데,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天海印 皆入極樂'는 구절이 있다.

큰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꿰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써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큰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마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체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큰스승의 말에 오준실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므라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마력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큰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책방 정신세계 경희문점(02)737-8115
안양점(0343)466-2208,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

목어

의원님의 말버릇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곧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과 말은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중생의 말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제멋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은 곧 인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만 열리면 '육두문자'가 오간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요즘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과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뭐? 이 XX야", "건방진 XX, 너는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느냐,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국회 질이 떨어지지", "이 XX가 정말 까불어, 후레아들 XX, 싸가지 없는 놈" 등등 격높으신(?) 의원님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말들이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사안을 다루고 의논하는 성스러운 국회의 사당의 회의석상에서 이처럼 막된 언사를 쓰며 막가는 사람들이나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의 눈살이 곱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삿대질과 욕지거리를 해댄다니, 더구나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도대체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지도 않은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나라에는 의원님네가 많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물론 각 종교단체에서도 각종 의원이 많다. 그런데 그 많은 의원님네들의 상당수가 욕두문자를 즐겨 사용한다고 한다. 마음에 무엇을 담았길래 그처럼 험악한 말들을 좋아하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법구경〉에 "마땅히 거친 말을 하지 말지니, 말을 할 때는 마땅히 그 과보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말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게 전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끄는 국회의원들의 말버릇이 그 모양이니 70년대 캠퍼인인 '고운말 쓰기 운동'을 다시 대대적으로 벌여야 할 판이다. 그런 의원님네들에게 감히 선(禪)의 의미를 깨쳐 보라고 한다면 가당치 않겠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다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쯤은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역시! 원로스님

원로의장 서로 맡으라 아름다운 양보 '귀감'

원로의원들은 달랐다. 40년 이상 수행에 전념해온 어르신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10월 20일 조계종 원로의장을 뽑기 위해 열린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들이 서로 의장 자리를 양보하는 겸양의 미덕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원로의장은 후보자 없이 호선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원로의장을 뽑기 위해 구성된 9인 전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현 부의장 종산스님에게 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원로의장은 사리에 밝고 합리적인 분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종산스님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펄쩍 뛰었다. "봉암사 결사에도 참여하셨고, 총무원장 소임도 해보셨으니 법전스님이 맡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전스님이 손을 저었다. "여러 스님들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차 종산스님에게 의장을 맡으라고 권유했다.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인 원로의원 스님들은 2시간여만에 회의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법전스님에게 의장을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원로의장이라는 소임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막강한' 자리다. 종정을 추대하며,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 인준권, 종회 해산권과 종회 해산시 종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가 원로회의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를 이끄는 자리가 원로의장이다. 그러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리일 뿐이다. 그래서 원로의장 소임은 빛나는 자리이다.

조계종은 최근 몇 차례의 큰 선거 때마다 불협화음을 일으켜 체면을 구겼다. 98년의 경우, 총무원장 선거에 사형사제가 함께 출마했으며, 급기야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교구본사 주지 선거에서도 표를 확보하기 위해 승가의 위신마저도 저버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선거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일 12대 후반기 종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원로의원들이 몸소 보여준 '할'에 오체투지로 답해야 할 차례이다.

정성윤 기자(swjung@buddhapia.com)

"북한의 불화까지 수록 목표"

인터뷰 '한국의 불화' 1차 20권 완간 범하스님



통도사, 송광사, 직지사, 월정사, 화엄사, 선운사 등 11개 본말사와 대학 및 사립박물관에 소장된 불화 1천7백여 점을 사진으로 정리한 〈한국의 불화〉 1차 20권이 완간됐다. 〈한국의 불화〉는 석정(증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보유) 스님과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인 범하 스님 등이 중심이 돼 지난 10년간 전국 사찰을 돌며 조사·수집·촬영해 펴낸 도록집이다. 국내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50년 이상된 불화의 80% 가량을 담았다. 〈한국의 불화〉 편찬을 주도적으로 이끈 범하 스님을 만나, 간행 목적과 과정 등을 들었다.

―〈한국의 불화〉 간행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불화는 감상 위주의 일반회화와는 달리 장엄한 불국토가 그려진 종교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행된 한국불화의 내용은 개략적이고 단편적인 정리에 불과해,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불화를 총망라해 도록으로 편찬함으로써 불자들의 신앙심은 물론 학자들의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귀중한 불교문화재로서 불화가 더 이상 훼손되고 유실되는 것을 막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정스님과 10년동안 전국사찰 · 박물관 순례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89년도에 송광사 대웅전 탱화 조성 불사를 위해 전국의 탱화를 돌아보던 석정 스님이 보존관리의 한계를 실감하고, 이 일에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전국 사찰에 봉안된 탱화를 조사해서 자료집을 만들어보자고 하셨죠. 그래서 '전국사찰 불화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때가 90년도입니다. 예배 대상인 성보와 문화재 차원의 유물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리 산길을 무거운 사진 촬영장비를 메고 도착하면 주인측에서 반대 하기 일쑤이고, 본·말사 주소록에 엄연히 사찰로 등재된 곳인데도 빈터만 남아 있는 곳도 있어 힘들게 산행을 한 우리들의 맥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조사원들은 한달 평균 보름 정도를 현장에서 보낸 셈입니다. 오전 8시 조사를 시작하면 사안에 따라 조사시간은 달라지지만 보통 밤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1차분 20권을 완간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2005년까지 1차 조사에서 제외된 고운사, 백양사, 쌍계사, 신흥사 등과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불화를 조사해 매년 4권씩 총 40권의 한국의 불화집을 최종 완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소장품이나 국외에 있는 불화는 물론 북한에 있는 불화 역시 조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촬영된 불화들은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해 조관했기 때문에, 여력이 생기면 CD롬으로도 제작할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의 불화〉 편찬 작업이 탱화에서 그칠 게 아니라 목각탱을 비롯해 불교조각 분야, 금속공예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 명실공히 한국의 불교문화를 집대성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또 이를 통해 불교조형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라고 합니다.

2005년까지 20권 추가 탱화 5천여점 집대성

이 말에 욕심은 나지만, 현재의 역량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물이 불교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불교문화에 대한 새로운 긍지와 올바른 인식이 심어지길 기대할 뿐입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성보박물관의 운영과 유물관리에 대해 적잖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찰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나열하는 곳이 아니라 제2의 법당이자 성보의 보존과 연구를 병행하는 곳입니다. 그 자체가 대장경인 셈이죠. 따라서 이 곳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스님들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30여 개의 성보박물관 및 유물전시관에서 문화재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스님은 5명에 불과합니다. 스님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종단에서 '박물관장 직제'를 새로 편성해 교육 기관을 수료한 스님들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박물관 운영자를 육성하는 데 최소한 1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또 박물관 스스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건립계획을 세우기 전에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대장경 전문 박물관'과 같은 박물관의 특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사찰 문화재는 비지정 문화재가 많습니다. 이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성보의 도난은 돈으로 환원이 용이하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교문화재는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성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문화재 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습니다. 법 개정 후 골동품상이 늘어나며 문화재 매매와 도굴 비율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가제로 인해 문화재 매매시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굴 문화재의 음성적 거래를 정부가 보장해준 꼴이 됐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종단도 성보도난 관련 종법을 정비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할 사찰의 경각심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누가 될까

조계종 중앙종회 후반기를 이끌 종회의장 선거가 2일 치러진다. 이와 아울러 태고 천태 진각종 등 불교를 대표하는 주요 종단 총무원장의 임기도 대부분 년말로 끝나 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종회의장 선거에는 지하스님과 청화스님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된다. 지하스님은 보수적, 청화스님은 개혁적인 이미지를 지녔다는 평. 지하스님은 종회 내에서 가장 큰 모임인 무등회와 청림회에서 밀고 있다. 청화스님은 일여회와 원융회에서 낸 후보. 계파별로 지지 후보를 일찌감치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10명 안팎의 종회의원들의 의중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당락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하스님


◇청화스님


◇인곡스님


◇운산스님


◇증연스님


◇운덕스님


◇휴명대정사


◇회정대정사

조계종 종회의장 선거 지하-청화스님 '각축'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은 전·후반기로 나눠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 따라서 오는 23일 열리는 제 79회 정기 중앙종회에서 새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현 총무원장인 인곡스님이 다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운산스님(재단법인 태고원 이사장), 은경스님(종승연구원장), 대운스님(종회 부의장), 종연스님(성주암 회주)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태고-천태 총무원장 임기 올말까지

인곡스님은 현 원장으로서 안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장악력에 있어 유리하다는 분석이며 운산스님은 총무부장등 오랜 종무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정 관계 등에 인연이 많아 대외교섭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원만한 성격의 증연스님은 비교적 젊은 층의 신망을 얻고 있어 초선의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 이번 종회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천태종 운덕 총무원장의 임기도 12월이면 끝나 12월초 열리는 종회에서 새 원장을 선출한다. 현 원장인 운덕스님의 재임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

진각종은 내년 4월 정기종의회를 열어 새 통리원장을 선출한다. 새 원장 후보로 휴명 종의회의장과 회정 통리원 총무부장, 진산 사감원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진각종은 최근 단임으로 돼 있는 통리원장 임기를 중임으로 개정함에 따라 새 통리원장부터 중임제가 적용된다.

이경숙 · 정성윤 기자 (gslee@buddhapia.com)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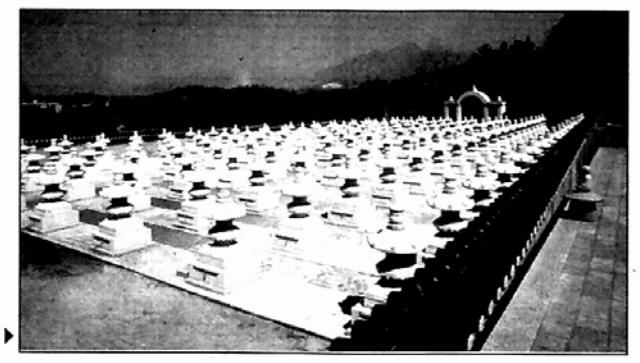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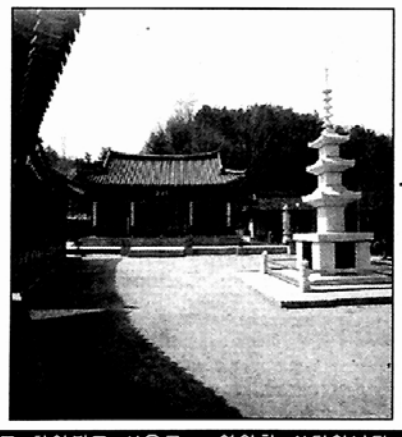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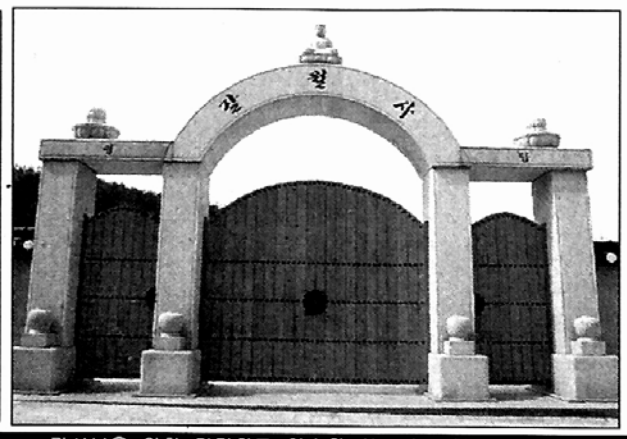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일주문

관음사 천불보전 낙성



이두 청주 관음사 주지는 5일 오전 10시 혜정스님(법주사 율주)을 증명법사로 천불보전 낙성 및 천분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다. 전날인 4일 오후 6시부터는 관음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천불보전 낙성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도 개최한다. (043)256-6254

신흥사 미륵불 봉안법회



경우 해동종 종정(충주 신흥사 주지) 스님은 5일 신흥사 대웅전에서 미륵불 봉안 법회를 봉행한다.

원주 성불원 큰법당 준공



현각 원주 성불원 주지 스님은 10월 26일 성불원에서 큰법당 준공식 및 만등불사 법회를 봉행했다.

우룡스님 초청 수계법회



송암 안성 도피안사 주지는 5일 오전 10시 30분 우룡스님(학성선원 조실)을 계사로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031)676-8700

정토사 삼층석탑 봉안법회



덕진 울산 정토사 주지는 1일 오전 11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창건 12주년 기념식 및 삼층석탑 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정토회관 1층에서 10일까지 포교를 위한 도예전을 연다.

율곡학술대상 수상



송석구 동국대 총장이 10월 25일 열린 율곡학회 회의에서 '제2회 율곡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총장은 〈율곡의 철학사상〉을 비롯해 다수의 저서와 논문 30여 편을 발표했다.

종암서장 감사장 받아

호당 진각종 통리원 포교국장은 10월 25일 제5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승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호당 포교국장은 종암경찰서 경승실 정기법회에 법사로 참석하는 등 경승실 활동에 공헌해 왔다.



문화부장관 표창받아



최 정 희 현대불교신문 편집고문(55)은 25년 동안 불교언론인으로서 불교의 대중화 및 불교문화 가꾸기에 이바지한 공로로 10월 2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정희 고문은 1975년 불교신문에 입사한 이후 불교신문 기자, 편집부국장을 거쳐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0월 16일부터 불교방송의 생방송 프로그램인 '지금은 불교시대'의 진행을 맡고 있다.

청소년정책학회 2대회장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10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성파시조문학상 받아





이성호(부산동래교육청 학무과장·사진위)씨와 김복근(한국시조작가회 이사)씨는 10월 21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제17회 성파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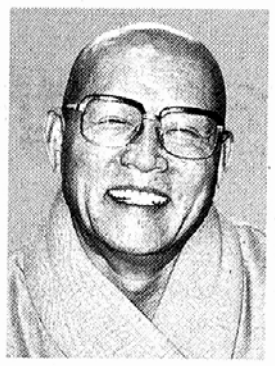
인 사

동국대 경주 △불교문화대학원장: 도업스님 △불교문화대학원 교학부장: 정성호

서울 △불교대학원 교학부장: 박경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교학부장: 엄기현

"노천박물관서 현장수업"

동국대 경주 불교문화대학원장 도업 스님



"불교문화의 성지인 경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불교 문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신설된 불교문화대학원 초대원장 도업스님은 경주 지역의 특색을 살린 현장 중심 연구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도업 스님은 "불교문화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인 만큼 불교 음악과 미술의 체계적 연구는 물론 응용분야인 불교문화재, 사찰조경학, 종무행정학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업스님은 불교문화대학원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데다 경주 전역에 불교 문화재가 많아 현장 연계 수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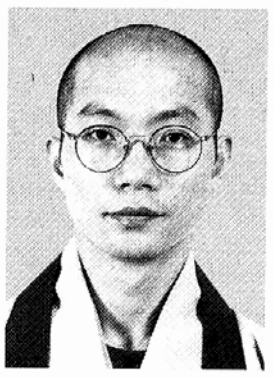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학습도 게을리 하지 않는 내실있는 불교문화대학원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도업스님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불교문화를 연구하는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업스님은 66년 범어사에서 출가 득도해, 89년 동국대 정각원장을 거쳐 99년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을 역임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봉사자만 3천명…복지거목 성장"

설립 10돌 맞은 불교복지회 대표 지도 스님



"저야 뭐 한 게 있습니까. 모두가 일심으로 참여해 주신 불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대구의 불교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지도스님은 불교사회복지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하게 된 공을 모두 불자들에게 돌렸다.

90년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해 뜻맞는 40여명의 불자 후원자들과 함께 '나눔후원회'를 결성하면서 불교복지사업에 뛰어든 지도스님은 이제 대구지역 복지의 큰 몫을 담당하는 중심인물로 자리를 굳혔다. 불교사회복지회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실직자를 위한 쉼터,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유리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통해 계층과 분야별로 두루 복지사업을 펼치면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만 해도 3천여명이 넘는 대규모 복지법인으로 성장했다.

"홍보보다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원봉사자들이 후원자가 되고, 한 번 같이 일한 불자들은 떠나지 않고 모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사회복지회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스님은 요즘 지역 복지공동체 건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빠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 한국형 복지형태와 선진형 복지형태의 장점 혼합한 복지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제 복지는 '보호'가 아닌 '보장'의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든 필요하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공동체는 그런 여건이 갖춰질 때 가능합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수행하는 사이버 도량 지향"

유니텔 불교동호회 새 시삽 오기석 씨



"수행과 교리 공부로 신심을 키우며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신행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19일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 새 시삽으로 선출된 오기석(48·LVMH코리아 근무)씨는 "수행 중심의 부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시삽은 PC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행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모임 활동과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불교포교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 오 시삽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매주 목요일 강남포교원에서 봉행하는 참선법회에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염불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전공부, 참선, 염불, 봉사활동 모두가 수행이라 말하는 오 시삽은 앞으로 큰스님 초청 법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가상공간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행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만해문학상 수상



임형택 성균관대(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가 10월 25일 제15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73년 창작과 비평사가 제정한 만해문학상을 시인이나 소설가가 아닌 문학연구가가 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위원들은 "문학의 외연을 유연화하기 위해 비창작 분야에도 주목하고자 했다"며 "임교수의 저서 〈실사구시의 한국학〉은 문학과 예술과 사상과 역사를 하나로 꿰어 학문의 장관을 보여줬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조직보강 사회참여 강화"

대불청 새회장 김규범씨



"당선된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청년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불교청년회의 전국 조직 재정비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0월 22일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2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제21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규범(41) 회장은 당선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대불청은 그동안 청년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 제시가 없어 조직 자체가 표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지구·지회 재등록과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전국조직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만해대학 활성화와 통일 의전 규범집 발간 등 교육 사업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지회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정착시키고 수익 사업을 확충해 대불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김회장은 "중앙 상근자를 최소 5명 이상 보완해 전문 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 운동과 통일 운동 등 사회 참여 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규범 회장은 92년 봉은사 청년회장을 거쳐, 지난해에는 대불청 중앙 부회장을 지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공덕원 창립 20돌 기념 장학금 전달

공덕원(주지 효선)은 10월 20일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공덕원 회주 용산스님을 비롯해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스님, 이하우 부산불교교대학 학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금정중학교 김현철 학생과 덕명정보여고 김선미 학생 등 30명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범어사 지장암 어르신 위안 잔치

범어사 지장암(주지 묵화)과 사단법인 보현도량(이사장 벽파)은 10월 25일 지장암에서 '노인과 불교복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5회 부산 노인위안잔치를 열었다. 벽파스님 등 부산 지역 노인 1천 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묵화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奉 行

靑潭大宗師 29週忌 追慕大法會 案內

청담 대종사 29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 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불기 2544년 11월15일
월요일 오전11시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문의처 : 도선사 종무소 (02)993-3161~3

불기 2544년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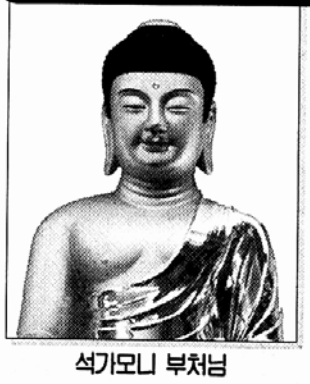
大韓佛教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회 주 이 혜 성
주 지 김 광 복 합 장

청담 문도회 일동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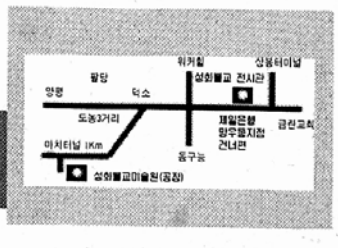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부산 불국토로" 달리는 법당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창립12돌

회원 3백명 콜택시 540명 확보 '거리포교'

차량봉사·소년가장돕기 등 자비행 활발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고영호)는 10월 26일 코모도호텔에서 창립 12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 혜총스님, 지원스님을 비롯한 지도법사 스님 등 5백 여명이 참석,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졌다.

88년 50여 회원으로 시작한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현재 회원 3백 여명과 자비콜택시(051-622-8282) 회원 540명을 산하단체로 두고 부산의 불국토화를 성큼 앞당기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표방해온 부산불교운전기사회의 활동 폭은 안가는 곳이 없는 택시의 특성 그대로를 보여준다. 각 사찰과 단체의 불교행사장 차량 정리 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돕기, 수재민돕기, 노인영정사진 촬영, 부산시내 교각 청소, UN묘지 묘판 정화 활동, 장애인 할인 혜택 등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힘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왔다. 특히 올 전국체전 일주일 동안에는 자비콜 비번 차량 6백대를 동원 선수단 수송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일요일을 이용 부산시내 교각, 교통표지판 등을 모두 청소해 부산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던 운전불자 기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불국토 만들기에 나선 것이 자비콜 운행이다.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1백 20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자비콜은 아무리 깊은 산골의 절이라도 달려가는 불자들의 손발이 되어 왔다. 지금은 자비콜 회원이 부산불교운전불자회 수를 능가한 540여명에 달하고 있다. 고영호 회장은 "두 손 모은 합장의 마음으로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자비콜의 목표"라며 "절에 가는 불자들은 물론 모든 이들을 합장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자비콜 회원들은 거리의 포교사임을 자부하며 합장으로 손님을 맞고 가장 친절한 콜택시가 되기 위해 친절 교육, 법회를 통한 신심 가꾸기도 정기적으로 챙겨가고 있다. 하루 2천5백회에 달하는 전화수로 따져 보면 하루 1대가 만나는 손님이 최소 50명. 한 달이면 자비콜 회원 한 사람이 1500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자비콜 운행을 통한 법음 전파는, 기하급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영호 회장은 "차량에 비치하고 보시할 수 있는 소책자나 염주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안타깝다"며 "뜻 있는 이들이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으로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무사고 운행과 보다 친절한 자비콜 운행을 중심 목표로 부산불교운전기사 산악회 창립, 월 1회 지역별 소규모 법회 활동, 삼광사 운전불자회 창립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깨달음의 전조등을 환히 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불교운전자회는 10월26일 코모도호텔에서 창립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소년소녀가장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생명·환경살리기 앞장 다짐"

직장직능 불자회 대법회 3천명 참석

헌혈·장기기증 행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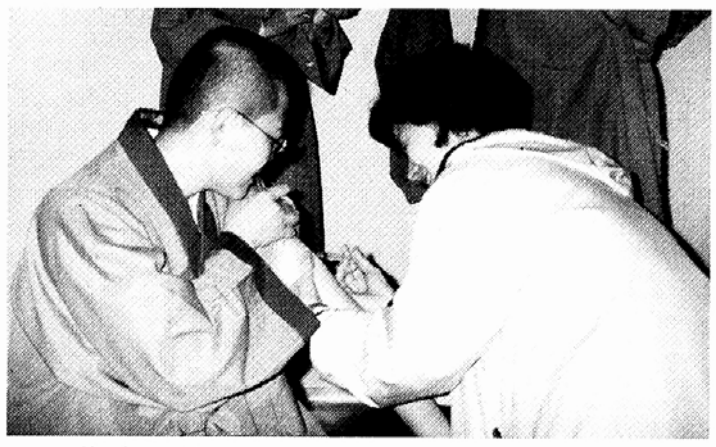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한국운불련 등 전국 직장직능 120개 불자회 3천여명은 10월 22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전국 직장직능 불자 연합대법회'를 봉행하고 생명과 환경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식전행사, 법요식, 연예인 축하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이익에 따라 개인과 집단마다 갈등하며 공존과 화합의 원융무애(圓融無碍)한 본래 참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며 "연꽃처럼 청정하게 라는 오늘 이 자리의 표어처럼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의 직장과 가정에서 스스로 청정한 모습을 잃지 말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신행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식전행사로 펼쳐진 환경살리기 걷기대회에서는 200여명의 불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환경의 소중함을 알렸고, 환경수행을 새로운 불자의 수행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이와함께 헌혈 35명, 장기기증 77명, 화장서약 297명이 동참해 참 불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2년간 직장직능불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한 결과 전국의 직장직능불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로 평가되지만 헌혈, 장기기증 등 생명과 환경살리기 행사에 불자들의 참여가 적어 행사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김두식 기자
(dcobi@buddhapia.com)


◇10월22일 불교간호사회는 해인사에서 스님들에게 독감예방접종 봉사활동을 펼쳤다.

"약사보살 닮고 싶어요"

불교간호사회 해인사등 스님 1백명 독감예방 접종

불교간호사회(회장 황보선)는 10월 22일 해인사에서 독감예방 접종 봉사활동을 펼쳤다. '밝고 따뜻하게'라고 모임명을 정한 불교간호사회는 이날 홍순탁 부회장을 비롯 간호사 10명과 의사 1명이 동참해 100 여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난해 송광사 성지순례때 스님들이 독감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계획한 것으로 10월 1일에는 송광사 스님 100여명에게도 접종해 호응을 얻었다.

홍순탁 부회장은 3교대 근무로 많은 수가 한번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예방 접종도 반응이 좋아 매년 실시할 것이라고.

전국에서 최초로 창립된 불교간호사회는 복지관 무료진료,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좋은 법구를 가려 뽑은 소책자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행복하기를〉 발행, 송광사 수련회 참석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2월에는 송광사 겨울 수련회 참석을 계획중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우리모임에선

성동구청 불심회 정기법회

성동구청 불심회(회장 박현수)는 10월 24일 미타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미타사 주지 상덕스님이 '정토세계를 가꾸는 불자의 삶'이란 주제로 법문한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구미 거사림회 성지순례



구미불교거사림회(회장 김원기)는 10월 22일 경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분황사, 황룡사지, 칠불암, 용장골 등 경주지역 불교문화재를 참배한 이번 성지순례에는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신심을 다졌다.

불자가수회 정기법회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는 10월 25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불자회 회원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팔당 각화사 혜담스님이 설법했다.

은평구청 불심회 성지순례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10월 21~22일 고창 선운사, 도솔암, 일붕동산을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해 5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불심을 키웠다.

게시판

알림

▲불교단체총연합회 임시총회=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는 4일 오후 2시 30분 본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02)734-5221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워크샵=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2~3일 길동 두산연수원에서 '지역통화운동(LETS)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지역통화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또는 지역통화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02)587-8997

▲석불선양회 요선정 미륵불참배=한국석불선양회는 5일 사자산 법흥사를 참배할 순례자를 모집한다. 순례자들은 법흥사 적멸보궁에서 사시예불과 108배를 올리고 영월 요선정 미륵부처님을 참배할 예정이다. 출발은 오전 6시 50분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 (02)996-7945

▲영남불교대학 '쿤둔' 영화 무료 시사회=영남불교대학은 4일 오후 6시 불교대학 3층 문화관에서 '쿤둔' 영화 무료 시사회를 개최한다.

'쿤둔'은 비폭력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지구촌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티벳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으로 현재 전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는 걸작 영화이다.

강좌

▲불교귀농학교 건강강좌=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귀농 희망자 및 삶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제 7기 불교귀농학교 건강강좌를 1일부터 4차례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02)733-1884

▲선가귀감 강독=전북불교대학 보현학림은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층 대강의실에서 선가귀감 강의를 펼친다. 강의는 신원사 선원장 묘봉스님이 진행한다. (063)226-7878

▲유마경=동산반야회는 5일부터 11년간 유마경 강좌를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에서 개설한다. 강의는 무진장 스님이 한다. (02)732-1206

▲지리산 열린학교=지리산 열린연대는 4~5일 지리산 피아골 산장에서 제 4회 열린학교를 개강한다. 019-622-8800 이학영

모집

▲가사지원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서울지역의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말벗, 생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 등 봉사활동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불교의식교육원 수강자=해동불교범음대학 불교의식교육원은 불교의식 기본·중급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자를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26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3매이다. (02)741-0495

탈 종 공 고

용주사 주 지 : 배태웅 법 명 : (만오) 소재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350-1	신정포교원 포교원장 : 고복남 법 명 : (혜진)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36-21	연화 기장 포교원 주 지 : 허덕이 법 명 : (혜연)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읍 장안리 181	송학사 주 지 : 김춘자 법 명 : (도완) 소재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317	대각사 주 지 : 박춘선 법 명 : (지경) 소재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50
보현정사 주 지 : 정이화 법 명 : (보현) 소재지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220	대원사 포교원 포교원장: 김술영 법 명 : (청학) 소재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작리 산 107번지	용주사 근무 승 려 : 이혁구 법 명 : (수도) 승 려 : 김해수 법 명 : (만혜)	혜명포교원 포교사 : 현경자 법 명 : (혜명) 소재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성동 138	두현사 주 지 : 문성호 법 명 : (해공) 소재지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950-1

위 본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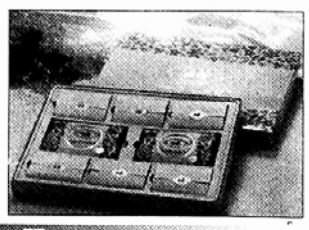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법하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품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박봉쪼개 도계역을 꽃동네로

보 살 행 탄광촌 철도원 백수현 포교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강원도 탄광촌 도계읍. 산과 폐갱구에서 흘러나오는 물빛조차 진한 잿빛일 정도로 환경이 오염된 그곳에서 연꽃을 피우는 포교사가 있다.

강원도 태백준령의 탄광촌 기차역에서만 20년을 묵묵히 근무한 철도정리원 백수현 포교사(41세·조계종 포교사단 강원포교팀원). 그는 하루 70대의 기차가 오고가는 도계역에서 열차운전 및 신호를 취급하는 3급 말단 철도공무원이다.

삭막한 탄광촌 이미지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도계역에 내리자 노란꽃을 피운 국화화분이 500여개나 놓여있다. 그 옆에는 노란물감으로 채색된 3량의 작은 석탄열차도 전시돼 있다.

대합실로 들어서니 개찰구 자리에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동산이 꾸며져 있다. 야생꽃과 나무, 수석, 통나무들로 장식된 동산에는 잉꼬 두 마리가 노닐고, 그 옆에는 장독 나무방아 맷돌 소구유 괴목 쟁기등이 전시된 미니 역사박물관이 있다. 휴게실에는 폭신한 의자, 콩나물시루를 비치했다.

매표소 앞쪽에는 민물고기, 개구리가 살고 있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꽃과 나무들에는 하나하나 이름표가 붙어있다. 이 아름다운 동산은 백수현포교사가 박봉을 쪼개 만든 것이다.

이 동산은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뿐 아니라 지역의 노인, 어린이, 주민들이 찾는 독특한 쉼터가 되고 있고 이에따라 도계역은 하나의 작은 공원이 되어버렸다.

선로변에서 붉은기를 흔들어 육중한 열차를 출발시킨 백수현씨가 역사로 들어왔다. 백씨는 역사내 시냇가에서 민물고기와 개구리를 보며 즐거워 하는 승환(3세)이에게 다가가 생물의 종류와 생태를

불교공부 쉬지않고 지역포교 선봉장



◇대합실내 조성된 작은 공원앞에서 즐거워 하는 사람들에게 백수현 포교사(가운데)가 민물고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옆에 있던 승환이 이모 홍은진씨(24세·수원시)는 "딱딱하게만 느껴왔던 역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니 마음까지 포근해져요"라고 말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앞장서게 된 계기를 묻자 백포교사는 대뜸 "몇 년간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포교사가 됐지만 딱히 할 일이 마땅치 않았어요. 문득 내가 자리한 곳에서 남을 위한 무언가를 하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법당의 부처님을 뵈올 때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 이동산을 꾸미게 됐지요"라고 말한다.

백포교사는 3월부터 2달동안 혼자서 하루 12시간의 근무중 4시간의 야간 휴식시간과 격일휴무를 반납하며 역 내·외부를 꾸몄다. 공공근로 사업장과 실개천, 광산, 농장을 오가며 조경수와 폐파이프 스치로폴 화분, 폐목재, 벽돌, 나무껍질 등을 구해와 손수 역 안팎을 꾸몄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70여만원의 사비도 들였다.

덕분에 공원이 된 도계역은 주위에서 유명해졌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유치원에서 단체로 견학을 오기도 한다. 아이들이 뛰놀며 공들여 놓은 공간을 부숴버리기도 하지만 백포교사는 웃으면서 저녁 휴식시간에 말없이 복구한다.

백포교사는 "요즘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기차에서 내려 1시간정도 머물다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며 잠시나마 자연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백포교사는 98년부터 강원불교대학과 불교아카데미 통신반으로 등록해 교리테이프를 반복해 들으며 공부하고, 휴무일에는 원근거리의 법회를 찾아다니며 불교공부를 했다. 올해 8월에는 철도청으로부터 으뜸 철도원에 선정되기도 한 그의 꿈은 지역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교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참선으로 주인되세요 곁눈질 말고 굳건하게



성해스님 선학원 중앙선원장

많은 불자들이 아직도 불교를 기복적으로 믿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기복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형태입니다. 어디가서 기도하면 영험이 빨리 온다는 말만 들리면 올바른 종교생활을 뒤로하고 그 영험을 빨리 보기 위해 심지어 종교까지도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나 예수, 조상 등 외부적인 다른 힘에 의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즉 절대자, 능력있는자 등에 의지해 그들의 힘에 의해 내 자신의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을 타력신앙이라 합니다.

그러나 교리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종교를 믿던 맹종이나 맹신하게 되는 불안한 신앙형태를 벗어날 수 있고 유사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

1년 안되면 10년 아니면 평생동안 꼭 자신 되찾자

깁니다. 특히 불교를 배우다 보면 삼라만상의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력신앙인 동시에 참선입니다. 선리(禪理)를 무장해서 선문(禪門)에 들어오면 곁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 자주 가던 곳을 방문할 때 쉽게 그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은 웬지 모르게 어색하고 목적지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참선도 이와 같습니다. 선리(禪理)를 알고 나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낫 놓고 ㄱ자도 모르는 사람부터 박사까지, 밤낮, 동서, 노소, 남녀의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선공부입니다. 참선은 책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의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3년, 5년만 참선을 잘 해 놓으면 이미 인격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70살 할아버지도 함부로 반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윗사람 노릇을 한다해도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도 지위를 내 놓으면 허망합니다. 그러나 참선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하면 나이를 먹는 만큼 그에 대한 힘이 생깁니다.

설령 자신의 근기가 약하고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1년을 해서 안되면 10년은 해야지, 그것도 안되면 일생을, 아니 다음 생까지라도 꾸준히 참선을 해야겠다고 원력을 내세요. 사람의 일이 될듯 하다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우리가 10번이고 20번이고 마음을 다시 먹어 일을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두번 하다가 힘들다고 마음의 고삐를 늦추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겠다는 초지일관의 마음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참선을 하면 마음이 단단해 집니다. 마음을 자기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우리의 정신이 마음의 병을 못 만들고 또 복식호흡을 하게되면 병이 육체에 침범하지 못해 심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번뇌망상을 떨쳐 버리기 위해, 참선을 통해 피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선의 묘미는 직접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선리(禪理)로 무장될 때까지, 참선의 자세가 몸에 익을 때까지 마음 바꿔 먹지말고 참선을 한 번 진지하게 해 보십시오.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신행캘린더

11월 1일(수)

■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종 교수를 초청해 다보법회를 개최한다. (02)703-0108

11월 2일(목)

■ **능인선원 순례법회**=능인선원은 홍련암과 건봉사를 참배하는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출발은 오전 5시 30분 능인선원 정문 앞. (02)577-5800

11월 3일(금)

■ **봉림사 백고좌 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을 초청하여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 **포교승가회 21세기 포교방향 토론회**=조계종 포교승가회는 오후 1시 중앙승가대정진관에서 '21세기 포교방향및 포교방법론'을 주제로 포교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2)929-1528

11월 4일(토)

■ **능인선원 보살계 수계법회**=능인선원은 오전 10시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오후 5시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선원장 지광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02)577-5800

■ **동산반야회 청화스님 초청법회**=동산반야회는 오후 2시 동산교육회관에서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모시고 대법회를 개최한다. (02)732-1206

■ **서울 봉은사 3천배 철야정진법회**=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대웅전, 법왕루, 선불당 등 봉은사 주요전각에서 3천배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2)511-6070

■ **구미 도리사 보은전 지장보살 점안법회**=구미 도리사는 오전10시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을 증명법사로 보은전 지장보살 점안법안법회를 봉행한다. (054)474-3737

11월5일(일)

■ **구인사 대조사전 낙성식**=천태종 구인사는 오전 10시 30분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봉안 및 대조사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043)423-7100

■ **한국불교연구원**=한국불교연구원은 오전 11시 연구원내 법당에서 불연 이기영 박사 제 4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한다. (02)3411-6167

■ **유니텔 불교동호회 혜국스님 초청법회**=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 나라는 오전 10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주 남국선원 혜국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11-226-9477 오기석

■ **구미 남화사 정업원 낙성식**=구미 남화사는 오전 11시 정업원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054)452-6568

생활속의 불교 下心, 수행의 첫 걸음

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손을 관 밖으로 내 놓아 오가는 사람들이 내 손을 볼 수 있게 하라."

'공수래 공수거!' 만인의 부러움을 살 만큼 큰 재산을 모았던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 '공수래 공수거'란 말은 결코 물질만을 대상으로 한 경구는 아니다. 마음까지를 포섭한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경전을 통해 '공(空)'을 강조하셨다.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고(空), 따라서 '내가 한 일이란 것 또한 없음(空)'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무위의 삶 즉, 자유인의 길을 열어 보이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자유인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마음'을 너무 좁게 쓰기 때문이다. 사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그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모두는 본래 열린 마음, 빈 마음인데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닫힌 마음으로 살게 된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자기 사랑이란 참다운 사랑이 아니다. 뒤집힌 꿈일 뿐이다. 그리고 그 꿈은 온갖 번뇌를 길러내는 자기 속박의 온상이다. 예컨대 아만과 아집이라는 것만 버려도, 소위 자존심이라는 것만 버려도 삶이 얼마나 홀가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짜증낼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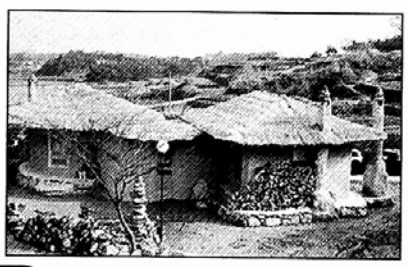
진정코 자기를 사랑하려거든 빈 마음이 되라. 열린 마음이 되라. 잘 안되거든 노력하라. 되는 것 보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마음공부가 아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요 공부다. 그것이 곧 하심(下心)이다.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울타리를 헐고 저 넓은 들판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허공같은 마음이 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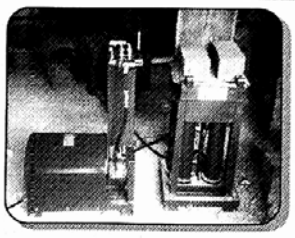
진정 자기를 사랑하려거든 아만·아집·아상을 버려라. 그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요 불법공부의 길이다. 그래야 중생인 나로서가 아니라 참나로서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된다. ※ 龍眼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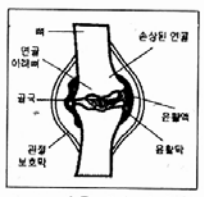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회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콧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몸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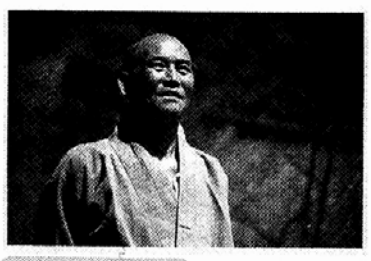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 문의 : 삼일양행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정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박태원 교수의 10

불교로 보는 인생

나는 소위 장애인이다. 5살 때 앓은 전신마비의 후유증으로 두 다리를 절뚝거려야 하는 3급 장애인이다. 벌써 40년을 병신(병든 몸)으로 살아온 만큼,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체험도 생생하고 할 말도 많다. 평소 신체 장애를 눈 좋은 사람과 안경 끼는 사람의 시력 차이 정도로 간주하고 살긴 하지만, 주위에서 나와 무관하게 무심코 뱉어대는 '병신'이니 '절름발이'니 하는 말들이 아직도 날카롭게 귀에 꽂히곤 한다.

학기초마다 나와 첫 대면을 하는 학생들이 강단으로 향하는 나에게 보내는 '일순간의 낯선 눈빛'을 의식하고는 짐짓 더 여유부리는 나를 볼 때마다, 사회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낯선 소수자'임을 새삼 확인하곤 한다.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투지를 불태우느라 주먹 불끈 쥐었을 그런 상황들을, 이제는 가식없는 미소로 대하곤 하니(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공부 챙길 때라야 그렇다) 불문(佛門)의 공덕이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런 저런 차이들로 얽히게 마련인 사바세계, 특히 인간 세계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갈림이 불가피하다. 익숙함을 공유하는 다수의 눈에는 낯설기 마련인 소수. 그래서 소수인은 언제나 다수인의 부당한 편견과 선입견, 그에 따른 불이익의 일차 대상이었다. 인류의 성숙은 차이에 대한 편견의 극복 과정이기도 하다.

불문(佛門)은 소수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그 뿌리에서부터 들추어낸다. 그 허망한 분별심의 요망스러운 작태를 원천에서 두력화시킨다. 그러기에 부처님 법에서는 정신지체인도 성불하고 매춘부도 성자가 된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모두가 진리의 평등한 주체로 대접받을 수 있는 도리를 통쾌하게 펼쳐, 소수인이나 약자로 하여금 비로소 자신을 온전하게 긍정하게끔 한다.

그런데 불교계라는 현실에서는 소수인이나 약자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과 편견이 의외로 널리 통용된다. 인과법에 대한 오해가 그 원천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통을 겪나! 불쌍도 해라. 어서 참회하고 복을 지어 내생을 기약해야지!" 소수인과 약자가 겪는 불이익과 고통에 대한 선량한 불자님의 인과법문이시다. 틀린 말씀은 아니다. 어리석음에서 출발한 중생의 업 노릇들이 빈틈없는 인과법으로 진행되니 말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왜 인과법을 밝히시는가? 인과의 업 짓기가 본래 잘못되었고 허망한 것임을, 그러기에 그 업의 인과 놀음에서 몸을 빼는 거대한 반역을 시도하라는 것(12인연의 역관(逆觀))이 아니던가? 인간을 그 허망한 인과의 틀로서 규정하지 말고, 본래의 그 빛나는 부처님 면모, 그 지혜와 자비의 본래 면목으로 새롭게 바라보라는 것(佛性論·如來藏論)이 아닌가?

인과법은 현재까지의 면모에 대한 과학적 이해이지,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죄를 묻는 것(원죄설)도 아니고, 현재의 모습들에 대한 우열 평가(결정론)도 아니다. 불교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인과의 업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진 생명 본래의 고귀한 가치이며, 그 가치를 실현해가려는 이제부터의 자각과 노력이다. 그런데 이 자각과 노력의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에서 해탈을 위한 교훈을 얻어내려는 반성의 자세일 뿐, 세속의 고(苦)는 박복함인가?

세속적 관념 잣대로 인과법 풀려고 말라

아니다. 무엇이 진정 복이고 재앙인지는 절대 단정할 수 없는 것. 영혼의 성숙에 필요한 긴장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남다른 고(苦)는 특별한 복이다. 해탈에 접근하는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야 진정 복일진대, 세속 복 관념의 잣대로 인과법을 안이하게 풀지는 말아야 한다. 자칫 본의 아니게 소수에 대한 다수의 오만과 무지, 천박함을 이어가게 된다. 그럴 때는 동정심마저 오만과 편견의 표현이 되어 버린다.

불교인은 인과법을 깊이, 조심스럽게 음미해야 한다. 인과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인과법의 상식적 풀이는 자칫 다수나 강자만을 편드는 이론으로 전락한다. 부처님 도량이야말로 소수와 다수가 평등하게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무관심과 한국 사찰의 높은 계단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어인 일인지.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소수의 문제와 불교

도선사·봉은사·감로사 등 10여곳

3천배 철야정진 '열심'

참불자의 길

절수행 하기좋은 사찰



◇ '3천배 철야정진 법회'에 동참하면 진지한 정근분위기와 참가자들의 원력이 하나가 돼 성취가 잘 되고 환희심도 크다. 사진은 대구 갓바위 철야정진법회에서 기도하는 불자들.

3천 배·1만 배 등 정진(철야)법회를 마련, 절 수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도선사와 봉은사, 그리고 부산 감로사 등 여러 사찰에서 해마다 '3천 배 철야정진 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 절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재가불자 전문도량이 문을 열었고, '1만 배' '10만 배' 등 개인적으로 원력을 세워 수행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절 수행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 그러나 3천 배·1만 배 등을 하겠다고 원력을 세워보지만 초보자 일수록 몸과 의지가 안 따라 주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찰에서 마련하는 정진법회에 동참하면 진지한 정근 분위기에 의욕이 생기고 참가자들의 원력이 하나가 돼 의외로 쉽게 성취할 수 있으며 그 환희심 또한 매우 크다.

여러 사찰에서 정진기도법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찰은 마산 금강정토사이다. 이 사찰에는 여느 사찰과 달리 직장인들이 숙식을 하며 수행한다. 퇴근 후 3~4시간 정도 절을 하고 잠을 잔 다음 새벽예불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또 다시 절을 한다. 수행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하루 평균 10여명으로 대부분 인근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3천 배, 1만 배 등 나름의 원력을 세워 절을 한다. 금강정토사에서 지금까지 절 수행을 마친 불자는 약 3천 여명. 이 중에는 수행에 매료돼 출가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055-247-7382).

마산 금강정토사 직장인 숙식기도

양평 법왕정사 재가전문 도량

서울 삼각산 도선사는 대표적인 절 수행 도량이다. 도선사는 석불전 앞에 기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24시간 개방하고 있는데, 매월 말일 철야정진기도를 한다. 특히 입시철이나 성도일에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불자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도량 곳곳에서 끊임없이 절을 하는 많은 불자들이 수행분위기를 더욱 돋우고 있다(02-993-3161).

서울 봉은사와 부산 감로사는 해마다 3천 배 철야 정진법회를 연다. 봉은사는 4일 저녁 7시부터 3천 배 철야정진을 한다. 이 정진은 지난 84년 영암 스님이 주지 재임시 미륵불조성을 발원하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02-511-6070).

감로사는 40년 전부터 매년 음력 2월 4박 5일 동안 '3천 배 참회기도법회'를 실시한다. 오는 11일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하는 구룡사도 수시로 절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량이다(02-575-7766).

또한 유명 기도처나 성지에서 정기적으로 철야정진 절 수행을 실시하는 사찰도 적지 않다. 통도사 부산포교원의 경우 매월 경주 부흥사로 '1080배 경주남산 기도법회'를 떠난다(051-816-2241).

이밖에도 서울의 능인선원, 법련사, 선학원과 대구의 법왕사, 관음사 등에서도 절 수행을 권장하고 있고, 불교대학이나 직장직능법회에서도 원력을 세워 서로 격려하며 단체로 정진법회를 갖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재가불자 수행 전문 수행도량도 생겼다. 지난 4월 문을 연 양평 법왕정사는 매주 토요일 직장인을 위한 철야정진을 한다(031-771-7745).

지난해 봄 대구 갓바위 철야정진 법회에 참석했다는 불심회 보살(35·안양시 산촌동)은 "평소에는 3천 배를 하고 싶어도 일 때문에 잘 안 된다"면서 "대중과 함께 정진하면 정근의 힘으로 힘든 줄 모르고 3천 배를 성취 할 수 있고, 마치고 난 후 서로의 땀흘린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환희심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정진법회 참가를 권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신비로움 벗어나 일상화-보편화

32 선과 교육(5)



서명석
외국어대 강사
교육학

지금 학계의 풍향계는 동양으로 쏠려있다. 그러나 정작 동양의 것이 우리 것이라고 자신있게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주저한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어쩌면 동양은 우리에게 이젠 낯선 타인으로 어색하게 동거하고 있는 저 너머 출입이 통제된 비무장의 동네이다. 그래서 '동양, 우리 고향을 다시 보자'라는 작금의 구호는 우리의 삶결과 어긋나며 허공 속으로 맥없이 흩어진다.

이 가운데 선(禪), 그것은 분명 다양한 동양 전통의 한 본령.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렇지만 이제는 선이 선다워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 더욱이 그것이 새로운 천년을 지탱할 정신적 자원의 보고라고 누구나 믿는다면 말이다. 선의 명상전통을 실례로 들어 풀어보자. 언제나 우리 마음은 수축과 팽창의 연동 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 마음도 세월의 흐름 따라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다.

그 운동의 실상을 보자. 누구나 경험하듯이 우리 마음은 놓으면 어긋나고 바로 잡으면 제자리 잡는다. 이것을 통제하는 기제가 바로 명상이다. 산란하고 혼란해진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업으로서의 명상. 그리고 그것의 효과로서 마음의 가벼워짐. 이 때 가볍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마음이 무겁다는 것과 짝을 이룬다. 그럼 무게를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는 셈이다. 이 무게를 불교에서는 욕망 또는 번뇌라고 말한다. 이것을 정리해 놓자. 마음에서 살아있는 욕망과 번뇌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팽창한다. 반대로 정화되면 그 만큼 우리 마음은 수축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지만. 그러니 선에서의 명상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일어남 즉 욕망과 번뇌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선의 명상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모습일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명상이 살아 숨쉴 수 없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 자체에 그대로 달라붙을 수 있도록 가공하여 객관화하고 일반화 하는 일이 우리를 늘 성가시게 한다.

또한 이것을 교육과 바로 연결시키면 더욱 심난하다. 다음과 같은 교실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한 교사가, 명상이 아이들의 내면을 정화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알고 그가 말고 있는 반 아이들에게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였다. "얘들아, 오늘 명상시간이다. 자, 명상." 아이들은 담임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감는다. 그러나 실제 아이들이 명상을 하는 건지 상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상을 하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니 실제로 그 시간을 잠자는 시간쯤으로 여기는 아이들도 많았다.

또 다른 교사도 명상을 교육활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다. 명상시간이 되자 교사는 명상 음악을 틀어준다. 그러자 아이들이 눈을 감고 정자세로 앉아 있다. 여기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아이들의 마음에 자극을 가한다. "오늘 어떤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나요?" 아이들은 마음 속으로 그 마음을 찾아낸다. "그럼, 그 마음을 찾았나요?"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교사가 질문을 계속한다.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저 구석 한켠에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원래 자리하고 있던 곳에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가득 채워보세요." 계속해서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여 그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운동을 장려하고 있었다.

두 교사가 명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지금 선이 산중불교와 신도중심불교로 일반인과 유리되어 있듯이, 이제 선이 한 동양전통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신비화와 종교화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일상화 내지 교육화해야 하는 화두를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있다.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신도시 후보지로 제시한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군에 전·현직 정치인, 주요 재계인사, 고위 관료들이 수십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중 일부는 위장전입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렴해야 할 정재계 고위층들이 기득권을 이용해 땅투기를 하는 것은 땀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투기와 관련한 경전말씀을 살펴본다.

이렇게 들었다

땅투기

법답지 않은 이익 결국 업보

■남으로부터 과분한 이익을 받게 되면 본래 깨끗했던 마음이 허물어지게 된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삿된 이익을 탐하는 일에 빠지지 말라. 저 사리라 비구는 선정을 닦아 제석천에 태어났었지만 삿된 이익에 빠져 갑자기 신통력이 사라지고 백정 같은 사람으로 타락하였다.

〈증일아함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말아야 한다. 법답게 재물을 구하고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한다.

〈증일아함경〉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저울을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큰 죄가 된다.

〈우바새계경〉

■복을 닦기 위해 재산을 모으고 장사를 하면서도 온갖 법답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일은 비록 성취하게 되지만 거기서 생긴 이익은 법을 지키면서 발생한 손해만 못하게 된다. 게다가 미래의 세상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과의 업보를 받게 된다.

〈백유경〉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이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리고 족함을 알고 절약하며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은 많게 될지 모르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복음경〉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가 되어서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 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몸을 따르지 않는다.

〈증일아함경〉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잡아함경〉

■누구든지 자신이 벌어들인 것이라 해도 모두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대중들이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잠시동안 자신에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함부로 쓰면 안된다.

〈육방예경〉

불자 세상보기

"2초도 느리다"고 하는데…



김징자 본지 논설위원

인간성의 성숙 긴 호흡 과정 필요

'참고 기다리는 힘' 미래사회의 희망

아셈회의 기간 중 승용차 홀짝수 운행으로 운전자들은 오랜만에 서울시내를 제속도 내면서 달려볼 수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승용차가 그 하루를 달리지 못했으니 그도 그럴 수밖에. 이 때문에 '앞으로도 홀짝수 운행을 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서울시내는 지금 속도의 시대에 걸맞는 교통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통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로 길이 콱콱 막히는 서울거리가 성급한 요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참을성을 길러주기도 한다는 역설적인 주장에 한 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에겐 2초도 느리다' 한다. 인터넷에 접속하자마자 곧바로 화면이 떠올라야지 2초, 아니 1초라도 화면이 머뭇거리면 '요즘 아이들'은 지겨워한다는 것이다. 어느 인터넷통신회사의 광고문안이지만 현대사회를 이처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카피도 드물다 싶다.

과학은 그동안 사람들의 편리함과 속도감을 충족시키는 데 봉사해 왔다.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참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죄스러운 일이기나 한 것처럼.

과학의 이같은 봉사 덕분에 오늘의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게,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살고 있는가. TV의 리모콘 버튼 하나 누르면 원하는 물건을 앉아서 사들일 수 있다. 적어도 일주일은 걸렸던 국제우편 역시 E-메일 하나로 즉시 처리된다. 과학은 그런 마술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참고 기다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 어쩌면 옛사람들이 꿈으로만 꾸어왔던 이상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류의 앞날은 만사 O.K일까.

인간의 삶에는 인간성의 성숙, 마음의 성숙이란 보다 긴 호흡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컴퓨터 키 하나 눌러서 이룩될 수는 없는 일이며, 편리함과 속도감과도 무관하다. TV나 컴퓨터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도 우리들에게 지적 자극은 될지언정 인간성의 성숙이나 인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남을 이해하고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바탕은 인간성의 성숙일 수밖에 없다.

인간성은 어쩌면 '참고 기다리는 힘'에 의해 성숙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삶이라면 그 기다림에는 언제나 참을성이 요구된다. 과학은 우리들에게 편리함과 속도감을 만족시켜주면서 대신 그 '참고 기다리는 힘'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과학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냉정한 눈으로 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의 근원에는 '참고 기다리는 힘'의 결여가 자리하고 있다.

미래사회에 불교가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비교적 호흡이 긴 그 가르침들 때문일 것이다. 불교수행의 하나인 참선은 그야말로 길고도 긴 기다림과 철벽과도 같은 참을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2초도 느리다'는 조급함을 다스리기에는 부처님 가르침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열·린·마·당

강원교과목 '한글화'

강원 교과목의 한글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두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승가대학의 교과과정이 한문경전의 풀이위주로 짜여 있으며, 교수법 또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과, 해박한 한문이해를 통해 경전을 해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원만의 고유가치요 지적재산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24일 조계사 종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강원 교과통일 및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관계자 연찬회에서 제기된 교재의 한글화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싣는다.

"한문위주 교육 현실적 애로"

능허스님(범어사 강사)



현재의 강원교육은 주로 한문원전 강본을 가지고 경·율·론 등을 학습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고 교재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어 경전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강원이 한문교육을 하는 곳인지 승려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불교교육기관인지 개념이 모호할 정도다. 강원의 교육이념이 한문교육을 하는 곳이 아닐진대 이는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다.

설사 한문의 뜻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해당 교재가 제시하는 대의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부인할 수 없다.

한자라는 장막에 덮이어 불교의 대의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학인으로서 전문성 확보는 한문을 탐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아는 데 있다.

또 일부에서 한문경전교육을 통해 간경 및 독경수행을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앉아서 한문교재를 읽고 탐구하는 것은 수행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방법은 유교의 서당식 교육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서도 불교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대안으로 한문경전교육은 학림이나 율원 승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한문을 중심으로 한 강원교육이 시간적으로나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매우 버겁기 때문에 현대식 교육을 병행하여 교과를 보충하고 재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 간경 자체가 마음공부"

월호스님(쌍계사 강사)



강원의 교과과정은 잡다한 지식을 골고루 익히는 것보다 균형잡힌 인성을 닦을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강원의 한문경전 독습은 충분한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한문경전을 하루종일 외우다시피 익힘으로써 마음이 잡다한 관심사에서 벗어나 하나로 모아지는 경험은, 열심히 공부해본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옛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지은이, 그리고 주석을 달아 풀이해 주는 이들과의 사상적 만남이다. 만남은 직접적인 것일수록 좋다. 한문원전의 간경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마음공부가 될 뿐 아니라, 의미를 탐구해서 마음에 반조한다면 최상의 수행법이 된다.

대표적인 한문경전들을 익혀나감으로써 다른 유사경전들을 독파 내지는 최소한 부분적 인용이라도 할 수 있는 독해력을 키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심지어 일반대학에서도 가급적 원서로 강독하도록 하는 까닭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강원에서 될 수 있는 한 한문원전을 강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치문 원각경 기신론 주석 등 강원의 교과목이 조선시대에 비해 상당부분 축소 정리됐다. 더욱이 근래에는 현토 및 번역된 책들이 많아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전통교과목을 한문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논강이라든가 간경 등과 같은 훌륭한 전통식 학습방법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30년 묵은 '한글화' 숙제

필요성 계속 거론…번번이 무산

강원교과목 한글화는 조계종이 포교 교육 역경 등 종단 3대 지표를 설정하며 30년 전부터 줄기차게 매달려온 사안이다. 그 동안 예비승들에게 불교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불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차례 강원교재 한글화 문제가 종단차원에서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주된 이유는 해박한 한문해독능력을 통한 출가자의 전문성 확보와 출가자로서 위의를 익히는데 도움을 준다는 교직자스님들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것.

반면 한글화 주장은 강원 교과과정이 조선시대 확립된 교과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글세대에게 한문교재로 학습하는 것은 시간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강원의 한문경전교육은 뜻풀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4년간 편성돼 있는 교과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현대적인 교과를 교육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올해안에 강원교과 통일과 교과목 개선을 매듭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 8월 전국 강원 교직자스님과 학인들을 대상으로 교재의 한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재의 한글화에 대한 의견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한문사용 주장이 강한 강원 교직자스님 30명의 경우 한문교재를 고수하자는 스님이 15명인 반면 완전 한글화 3명, 국한문 혼용사용 10명, 무응답 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문사용을 주장하는 교직자 스님이 15명으로 반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다른 의견도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원 교직자출신 스님 12명중 2명의 스님만이 한문전용을 고수했으며, 한문과 한글을 절충하자는 의견이 10명이나 됐다.

학인들의 경우도 강원교재의 한글화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394명, 공감하지 않는다는 스님이 279명으로 한글화에 공감하는 스님의 비중이 높았다. 한글화에 공감하는 학인스님들은 또 한글과 한문을 50:50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114명이, 70:30으로 사용 107명, 80:20이 97명, 30:70이 74명으로 응답해 국한문을 절충하더라도 한글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원우 기자

암 이길 수 있다!

전국 암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주 〈민속한의원〉의 암 치료법!

민속한방의학으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

실제로 암환자들에게 처방하는 16가지 종합요법!

유황약오리를 이용한 약물요법 · 항암약차 요법 · 쑥뜸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난반요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쑥탕목욕 요법 · 호도유 요법 · 수맥과 건강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기공 · 단전호흡



박천수(민속한의원장·한의사) · 김인택(민속한의원 한약사) 지음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328p | 값9,000원

민속한방의학으로 관절염을 이겨내는 방법

관절염 · 신경통 · 산후통 · 견비통
허리디스크 · 통풍 · 루푸스치료법

한방약물요법 · 쑥탕목욕 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약차요법 · 쑥뜸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적절한 운동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단전호흡



박천수(민속한의원장·한의사) · 김인택(민속한의원 한약사) 지음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232p | 값8,000원



전주 민속한의원은 산야에서 채취한 약초와 유황 악오리를 이용한 한방처방, 항암약차, 환자에 알맞는 쑥뜸, 체질에 적절한 식이요법, 난반요법, 기공요법 등을 활용하여 오랫동안 각종 암과 난치병으로 고생해온 환자들을 선인들의 지혜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치료하여 상당한 치유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한의원입니다. 넓은 대지에 본관을 비롯, 생약 연구실, 탕제실, 약재 창고 등 건물 4개동과, 유황오리 사육장, 약초 재배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장관 중은 위치에 황토찜을 이용하여 입원,요양 시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전화 063-222-0133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컬러만화로 보는
허준의 처방동의보감

건강진단에서 한방 처방전까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 원전에 충실한 해설, 한 눈에 쏘옥 들어오는 컬러그림!
·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활용하는 생활속의 한방의학 만화백과입니다.



1권: 정력과 활기 편 | 2권: 장부의 원기 편
글 · 그림 이정민 | 감수 허태현(한의학 박사)
각권 8,500원 | 전2권

사·부·대·중

우담바라 파문



주경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근래 교계신문에 우담바라꽃이 나타났다는 기사가 등장하더니 우담바라가 출현했다는 사찰들에서는 칼라사진으로 우담바라가 피어난 모양을 담은 커다란 광고를 내어 친견하러 오라고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불상에 피어난 작고 하얀 콩나물 같이 생긴 우담바라꽃은 교계의 관심을 넘치게 받다 못해 TV방송에 보도될 지경에 이르렀다.

TV카메라는 불상에 피어난 우담바라와 거의 같은 모양의 꽃(?)을 자동차의 백미러와 찻집의 전등갓에서도 찾아내었는데, 분석결과 그것은 풀잠자리의 알이란다. 취재기자는 풀잠자리의 알과 불상에 피어난 우담바라와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종교적 영역의 신성함을 훼손하지도 않는 신중함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근래 우리 불교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는 우담바라가 풀잠자리의 알임을 주장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그것이 우담바라꽃이라고 동감하고 싶지도 않다. 〈법화경〉등의 경전과 불교사전을 근거로 삼는다면, 우담바라가 아무리 상상속의 꽃이라 하여도 돋보기를 들여다 봐야 하는 작은 콩나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세기말의 종말론이 부른 심한 종교적 질병을 겪었다. 휴거(주가 와서 그 신자를 데려 가는 것)라는 열병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와 삶을 파괴하여 광신케 했고, 아직도 그 휴거의 역병은 뿌리깊이 잠재하여 다시 창궐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생각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잘못된 폐해가 얼마나 크게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하였다.

이번 우리 교계의 우담바라 사건은 타종교의 휴거사태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부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군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님도 믿는다.

다만 분명한 근거와 확신도 없이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자칫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한다면, 정견(正見, 바른 견해)의 가르침을 팔정도의 처음에 두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허물을 만들까 두려울 뿐이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는 부처님의 뜻과 같은 법답고 원만한 우담바라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원한다.

목탁소리

홍보도 좋지만…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동국대가 종립대학의 위상을 흔드는 〈월간 조선〉(11월호)의 기사를 큰 자랑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월간 조선〉은 연재코너 '성공집단 연구'에서 동국대는 추켜세우고 불교는 벗어야 할 구태쯤으로 여기는 글을 실었고, 동국대는 이를 교계 언론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인사들에게 알렸다.

'동국대학교의 급부상'이라는 제목만 보면, 동국대는 종립대학으로서의 제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교계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조계종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과거의 동국대는 "승복 입은 대학이란 인상이 너무 강해 대학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정도였다", "전근대적이고 고루한 승복의 이미지를 상당부분 털어 냈지만 …", "승복과 목탁, 사찰, 참배 등 종교적 색채와 근대적인 요소를 불식(不息)시키고…"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사 초고의 일부분을 동국대에서 검토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동국대는 〈월간 조선〉과 접촉하며 동국대를 다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왔을 뿐 아니라, 11월호 발간과 동시에 2천여 부를 구매, 3일 동안 각계에 발송했다.

이처럼 동국대가 깊게 관여한 기사에서 어떻게 불교를 비하하는 내용이 게재될 수 있을까? 이것은 신입생 입학 평균 점수나 우수 대학 순위 등과 같은 계량적인 판단에만 매달리는 유치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보니 첨단 과학과 의학부문의 성과를 강조해야 했고, 당연히 불교와 같은 인문학은 철저히 무시해야만 했을 것이다. 즉, '발전하고 있다'는 현상에만 도취해, 종립대학이라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린 것이다.

요즘 대학 안팎에서 동국대의 정체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끊이질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동국대가 정보통신 분야나 일산의 '수도권 불교종합병원'을 세우면서 의학분야의 차세대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국대는 조계종립 대학으로서 불교를 중심으로한 인문학의 산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간화선인가…문제는 없는가

조계사서 '看話禪 토론회'…수행풍토 찬반논쟁

'오늘의 불교수행은 어떠해야 하며, 그 중심에 있는 간화선은 과연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핵심적 수행법인가?'

불교신문사가 창간 40주년을 맞아 조계사와 공동으로 10월 24일 개최한 학술세미나 '간화선 대 토론회', 1천여년간 불교 최상의 수행법으로 자리 지켜온 간화선이 오늘날도 그러한지, 2000년을 들어 새롭게 주목받는 불교의 선사상이 과연 21세기의 대안인지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400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최근 잇달았던 간화선 논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스님보다는 불자가, 비구스님보다는 비구니스님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점도 특기할만 했다. 또 간화선 수행의 주체자인 납자들의 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저마다의 주장만을 내세우다 오히려 불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1주제 '왜 간화선인가-수행과 실천구조'의 발표자로 나선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은 "간화선의 유일한 화두(공안)는 조주의 무자(無字)화두 뿐"이며 "무자를 참구하는 것은 근본적 본래심(本來心)으로 되돌아가는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스님은 "요즘 한국불교에서 참구하는 '이뭣고' 화두는 올바른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화두라 할수 없으며, '이뭣고'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화두라고 한다면 이것은 간화선의 올바른 수행구조와 정신을 잘 모르는 말"이라고 말했다.

간화선은 화두를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각자의 깨달음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하는 것인데, 이뭣고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참구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본래심의 참구가 될 수 없고, 본래심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자화두를 통해서도 완벽한 깨달음의 실천적 삶을 살 수 없으며, 대소승 경전이나 어록, 공안집의 수학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오늘의 선풍토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단순하게 간화선 수행만을 논하고 있어, 왜 간화선인지, 무엇때문에 선이 21세기의 대안인지 등에 대한 선명한 가닥을 잡을 수 없다"면서 "간화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발제자의 관점과 태도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며 교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호스님(동국대 교수)도 "무자화두만이 아닌 다른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대혜 이외 선사들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고 성본스님의 주장을 반박했다. 스님은 또 "현대에 맞는 생명력 있는 화두가 수행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며, 현실적 측면에서는 우리 삶의 답답한 길을 풀어나가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화두가 더 효용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덕진씨(고려대 강사) 역시 성본스님의 조주의 무자화두에 대한 이해 부분에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과연 무자화두만이 간화선 수행의 핵심인가'라는 쪽으로 토론회의 무게중심이 기울었다. 그러나 성본스님은 이같은 반론을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반복해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2주제 '간화선, 문제는 없는가'를 발표한 한형조 교수 또한 "돈오(頓悟)는 없으며, 오직 점수(漸修) 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점오(漸悟)만이 있다. 그리고 그 점오에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만 자신의 작은 깨달음이나마 전할 수 있고, 그런 공감대 위에서 불교가 이웃을 향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발언할 수 있다"고 주장해 토론장 분위기를 가열시켰다.

"화두만 집착 불교의 본질 흐린다"
"현대 맞는 생명력있는 화두필요"
"어록-공안집 공부 등한시 말라"


◇성본 스님


◇한형조 교수

한교수는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은 최상승의 근기에 맡겨야 할 예외적인 수련법으로, 지금의 불교현실에서는 험난한 암벽타기 식의 간화선 수행이 아닌, 잘 닦여진 등산로 같은 대중적 방식의 수행법이 축적되고, 제시돼야 한다"면서 "화두와 돈오에 의해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불교의 풍부한 전통들을 불러내어 선의 전통과 결합시키는 일부터 범불교적으로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돈오적 사고를 전제로 간화선이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작용시성(作用是性)의 본성론적 입장을 간화선의 전제로 삼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간화선이 최상이다 아니다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 전에 여러 수행방법을 비교 평가하는 기준과 차이점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명진스님(종회부의장)은 "간화선 수행을 최상승의 근기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인간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모든 의문들이 화두가 되는 것이며, 이를 책과 논쟁으로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완씨(부산대 강사)는 "돈오선을 폐지하고, 점수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교수의 주장은 돈오선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짓고, "오늘날 한국불교 제반문제의 원인이 돈오선 혹은 간화선에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평했다.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는 자유토론 시간에는 운월스님(동국대 강사), 한주영씨(불자), 윤철환씨(무불선원 선학대학원생) 등이 질문을 통해 두 발제자의 주장과 수행의 의문점들을 나누었다.

납자들 의견 못들어
각자 주장 펴는 자리

결론없는 토론회
"한국불교는 진행중"

특히 이날 토론 막바지에 방청석의 성안스님(용주사)은 "왜 '이뭣고' 화두를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다 충분한 설명을 요청했다.

조계종 기초선원장 영진스님은 "진정 간화선에 대해 토론하려면 수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유도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지, 왜 애매한 논리로 선방 수행자들을 매도하고, 혼란 시키느냐?"며 주최측에 불만을 토로해 한때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이같은 토론자들의 신랄한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화선 대 토론회'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통한 활발한 논의로 전개되기보다는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식의 토론장이 되어 버려 아쉬움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간화선 수행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오늘 한국불교의 화두로 남아, 거듭되는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돼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결과 아닌 결과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10월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대 토론회'는 간화선 논쟁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주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천 태 불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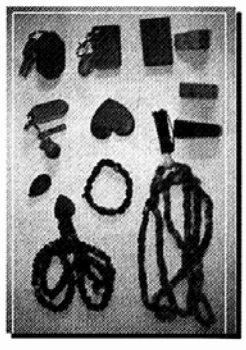
본 사 02)737-8881
강릉지사 033)643-5599
고성지국 055)672-0078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983-9222
목포지국 061)279-3788
밀양지국 055)353-1196
부산지사 051)463-5331
안산지국 031)494-8859
영주지국 054)674-1199
울산지사 052)257-7737
진주지사 016)585-2120
제주지사 016)695-6885
충청지사 042)527-0559
일본지사 031)713-5111

행운의 벽조목 안내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가장 신비한 나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의 보물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이 벽조목은 수白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베어서 평생동안 가지는 목걸이, 도장, 낙관, 염주, 단주 등을 제작하여 공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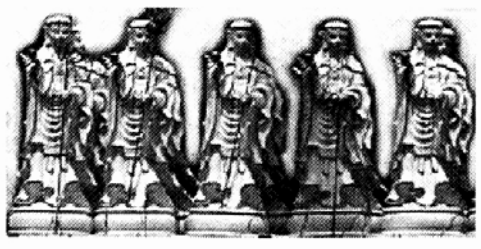
한편, 「벽조목」은 각종 질병, 사업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신 분, 입시·승진 시험과 성佛을 원하시는 분에게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운의 벽조목은 항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인연되는 분에 한해서 공급합니다.

홍련암 02)909-1360 011-9778-2803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0년 11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00년 11월 27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육조단경 ①

인간이 비록 문화를 창조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하지만 예고 없는 불행에는 속수무책이며, 다만 운명을 저주할 뿐이다.

불교는 생·노·병·사(生老病死)와 우·비·고·뇌(憂悲苦惱)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바로 생사문제의 해결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늘진 곳과 어두운 구석을 의식적으르 외면하고 밝은 곳과 양지만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찌하랴! 방안에서 행복이 미소를 지을 때, 불행은 곧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소극적이고 무력한 인생관을 말하는 종교는 아니다.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고 도전하며 대결하는 것이다.

오늘은 6조 혜능(六祖慧能) 스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육조단경(六祖壇經)〉을 소개하려 한다. 〈육조단경〉의 요체는 '무상계(無常戒)'와 '마하반야바라밀법(摩訶般若波羅密法)'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무상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육신은 참된 나(眞我)가 아니며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마음의 본 바탕이 그대로 부처라는 뜻이다. 자성(自性)이 본래 청정한 것이 법신불(法身佛)이고, 그 청정한 본 마음을 슬기로운 광명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곧 보신불(報身佛:수행한 공덕으로 받는 부처의 몸)이며, 우리의 자성은 일체의 번민과 현상계를 초월한 것이므로 본래 공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공적한 가운데서 무궁무진한 변화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천백억화신불(千百億化身佛)이라 하였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개의 구성요소가 모여 이루어졌기에 물질적인 것에 불과한 육신이 나의 온생명일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참나'도 아니며, 참나는 현상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상계를 초월한 것으로서 살아있는 마음이며, 곧 자성이다. 현상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자유자재한 부처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육조단경〉에서 혜능스님은 "정과 혜는 하나(定慧一體)"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 말씀이 곧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입문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수행자가 명심해야 할 3학(三學), 즉 계·정·혜(戒定慧)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릇된 것을 막고 악한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계(戒)이고, 6근(六根:눈·귀·코·혀·몸·생각)의 5관으로 객관적인 경계를 교섭하여 그 연(緣)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정(定)이며,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여 밝게 비추는 것을 혜(慧)라고 한다. 본문에서는 정과 혜가 둘이 아니요 체(體)와 용(用)이 둘이 아닌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육신 아닌 자성이 참나

선정과 지혜는 둘 아닌 하나

"선지식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혜로써 근본을 삼으니 대중은 어리석게 정과 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정과 혜는 일체요 둘이 아니니, 정은 혜의 체요 혜는 정의 작용이니라."(善知識아 我此法門은 以 定慧로 爲本이니 大衆은 勿迷하야 言定慧別이어다. 定慧는 一體요 不是二니 定是慧體요 慧是 定用이라.)

우리들이 말하는 지혜는 나다, 남이다 하는 주객이 떨어진 정(定)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지혜가 바로 생활규범이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戒)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정과 혜는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

혜능스님은 우리들에게 〈육조단경〉을 통해서 정과 혜를 닦아 반야지혜(般若智慧)를 성취하기를 권하며, 올바른 부처노릇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대지에 뿌리박은 거목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쓰러질 줄 모르는 것처럼 수행의 토대 위에 쌓아 올린 반야성(般若城)은 우리들에게 불행과 고통이 닥쳐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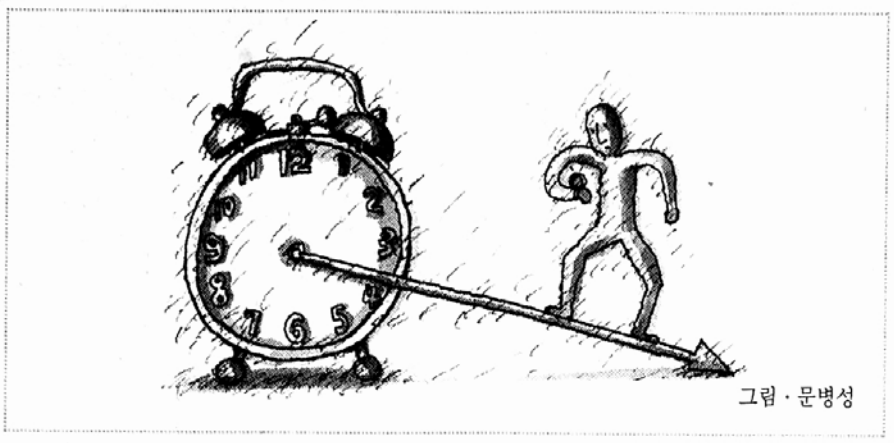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삼세가 내마음 안에 있다

불교와 과학 〈4〉

미 래

미래는 무엇인가? 기다리기만 하면 오는 것인가. 미래는 항상 좋기만 한 것인가. 그래서 미래는 유토피아인가? 이런 질문에 부딪칠 때 우리는 난감하기만 하다.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어떤 이는 그 불안감 때문에 미래를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과거에 집착하여 반복된 삶의 현재를 살거나, 어떤 이는 철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실험실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점치는 집을 찾아 막연한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희망의 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과학자가 보는 미래는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고 또한 중력이 지배하는 일상 세계에서 익숙한 물리공간에 대한 뉴턴역학의 해석이다. 뉴턴 역학이 말하는 시간의 뜻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운동 방정식의 초기조건만 알면 미래사태의 모든 양상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관찰대상과 관찰자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는 과학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셋째 과학의 관찰대상은 수학적 양으로 환원시켜 표현되어야 한다. 결국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의미는 과거를 알 수 있듯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며,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등질적임을 말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과학적 의미의 시간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한 시간 개념이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말하는 시간이란 시간이 앞으로만 간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란 모든 자연물이 미래 시간에 가서는 결국 최고의 무질서도를 갖는 쓰레기로 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무질서도의 증가와 시간의 흐름은 같은 방향이어서 앞으로 계속 앞으로만 가며 절대로 뒤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서구 과학이 바라보는 시간의 의미는 시간의 등질성과 앞으로만 가는 화살의 시간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서구 과학의 시간 개념은 단순히 과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전반에 걸친 생활사뿐만이 아니라 과학이 지배하는 현 시대, 나아가 전지구적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시간이 되어 버렸다. 그 전형적인 사상사적 범례가 바로 서구 유토피아의 시간관이다. 유토피아는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의 시간관이다. 그 장밋빛 미래의 시간이 현실적으로 올지 안 올지는 관계없다. 유토피아의 뜻 자체로는 현실적 도래가 불가능하지만 그런 좋은 미래가 온다고 가정함으로써, 현재의 불완전한 삶을 완전한 삶으로 이끌고 가려는 희망의 추동력으로서의 시간관이다.

이처럼 과학과 물질의 시간은 앞으로만 가며, 좋은 것은 반드시 미래의 물리적 시간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시간은 사회적 약속을 위해서 필요하고 과학적 측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현장과 깨달음의 미래를 담아 낼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 시간과 깨달음의 체험적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해를 끄집어내야 한다.

미륵 사상에서도 시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륵불은 서구의 미래적 유토피아 사상과 비슷한 외형적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륵세계의 시간이 과학의 물리적 시간과 다름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 아직 오지않은 시간

불교 체험하는 순간 도달

이선재라는 한 제자가 스승에게 언제 미륵이 이 세상에 도래할지를 물었다. 그 스승은 2만 5728년 후에 올 것이라고 답해 주었다. 그래서 이선재는 그 미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수양의 길을 밟고 있었다. 어느덧 2만 5728년이 지났지만 미륵은 오지 않았다. 분개한 이선재는 스승을 찾아가 따졌다. 그러나 스승은 항상 지금부터 2만 5728년 후라고 답했다. 즉 체험적 의미로서 2만 5728년을 말했는데, 이선재는 어리석게도 물리적 의미의 미래를 기다린 것이다. 당시에 이선재는 자신의 마음 속에 미륵이 함께했는지도 모르고, 과거에 이미 와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시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선재와 더불어 우리들 많은 이들이 미래 희망의 시간을 서구 유토피아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에 걸어 놓고 있다. 그러니 점치는 집에서 교회에서, 절에서까지 나의 물질적 욕심만 채우려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나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희망의 시간들, 하찮게 보이는 낙엽 한 잎에 이미 존재하는 깨달음의 시간들은 밖의 일이 아니다. 이제 이선재는 기다림과 삶의 섭동을 느끼면서, 내일의 미래가 아닌 오늘의 미래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일자리·돈 주며 개신교 개종 유혹

지구촌 불교 / 불교국가의 선교사

지난 9월 24일 네팔 룸비니에서 두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졌다. 불교와 힌두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종교 지도자들은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기독교의 선교 활동에 공동 대응하자는 데 동의했다. 더욱이 두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정신적 범죄' '기성 종교를 향한 성전' 등의 말로 선교 활동을 비판했다는 게 AP 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대체 불교와 힌두교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가며 '공동 대응'을 결의한 속내는 무엇일까? 그것은 힌두교세계위원회(The World Hindu Council)의 통계에서 엿볼 수 있다. 위원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인 인도에만 기독교 선교사가 약 2십여 만 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이 수는 파키스탄의 군인 수보다 더 많다.

사실 아시아 기성종교 지도자들의 위기감은 인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캄보디아나 몽골 등과 같이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10년 전 이 곳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수는 고작 2백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캄보디아에는 6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캄보디아 청·장년들의 정신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캄보디아인 선교사 크리스토퍼 라펠(Christopher La Pel)씨는 "우리는 말 그대로 구원자(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 부처님은 좋은 선생님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하루에만도 90여 명

인도 선교사 20만명 활동

'캄'·몽골도 기독신자 늘어



◇캄보디아 바탐벵 시의 선교 현장.

의 불자들이 세례 의식을 치르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불교를 버리고 개종을 선택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은 불교보다는 기독교에서 전쟁으로 잃어버린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쟁 난민촌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인 소에음(Yin Soeum · 29)은 "우리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선교사들이 일자리와 돈을 주기 때문이다"며 "캄보디아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지 않고, 설사 그렇게 됐더라도 불교가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을 제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몽골의 전통 종교인 불교 역시 사회주의 탄압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트리사이클〉지는 "몽골에서 선교사들이 현지 불자들의 개종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할 만큼, 선교사의 호전적인 선교 활동으로 존립 기반조차 붕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룸비니에서 열린 불교·힌두교 종교 지도자 모임은, 아시아의 전통 종교 문화가 기독교에 의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극성스럽게 파고드는 선교 활동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룸비니 모임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보도한 AP 통신의 크리스 폰테인(Chris Fontaine) 기자는 위기감이나 적대감만을 느끼고 대하는 것으로 선교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해, 불교나 힌두교 종교지도자들에게 적잖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는 아시아인들 스스로 자신의 종교와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직면한 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天蓮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6-4422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 특별할인 세일!
〃석씨향방에서는 동안거 입제일 전까지 특별할인세일 (20%)을 합니다. 동안거 선방에서 정진하실 스님께 최고의 향을 공양하십시오.
기간 : 10.23 ~ 11.8까지 〃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항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 석씨향방

"삶=공부=일상"…자기안에 보물있다

산문밖의 禪 30년 수행 달공거사 조홍식翁

30년 넘게 수행을 해오면서 '달공(達空)거사'로 더 잘 알려진 조홍식(80)거사.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자 불문학(佛文學)계에서 존경받는 원로학자인 조 거사는 서울 법련사 불일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신심이 높은 불자중의 불자다.

조 거사를 만난 것은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24일 오전 하남시 춘궁동 그의 전원주택에서다. 80의 나이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건강한 모습이 오히려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자꾸 수행, 수행하는데 수행은 무슨…, 그냥 공부하는 거지." 조 거사는 수행이라는 말 대신 '공부'라는 표현을 썼다. 30년이란 세월도 입에 담지 말라고 했다. 왜 그랬는지 의문은 나중에서야 풀렸다.

조 거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8살 때 몸이 아파 묘향산 보현사의 조그만 암자인 '법왕대'에 요양차 가 있으면서부터다. 이곳에서 조 거사는 밥 짓고 설거지하며 행자생활로 세 철을 났다. 관음기도를 하고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며 불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묘향산에 들기 전과 후가 하늘과 땅처럼 판이했지. 백천만 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 행운이었어. 묘향산에서 얻은 그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울 즐이야…."

57년 성균관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조 거사는 생활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묘향산에서의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틈틈이 참선을 하면서 구도의 열정을 달랬다. 그러다가 마침내 50대 초반 구산스님, 송담스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수행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5시부터 1시간 동안 요가를 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이뭣꼬'라는 화두를 들고 좌선에 빠져들었다. 86년 대학을 정년퇴임하고 나서는 더욱더 수행에 매진했다. 법련사에서 철야정진을 한 것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다. 공주 갑사 무문관 등 전국의 이름난 수행처를 찾아 다녔다. 무엇을 얻고 싶어서였을까.

새벽4시 예불 올리고
한시간씩 요가정진
틈틈이 '이뭣꼬' 좌선
30여년 한결같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조 거사가 뜻밖의 말을 던졌다. "다 자기 기만이야. 세월이 사람을 속이고, 마음이 자기를 속이는 거지. 사람들은 몸이 구속당하면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몸은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겠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자유. 조 거사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고, 모두가 자기 기만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긴가.

조 거사는 달마스님의 말씀이라며 '외식제연(外息諸緣) 내심무천(內心無喘)'이라는 글을 써 보였다. '밖으로는 경계(인연)를 쉬고 안으로는 헐떡거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30년 수행했다는 말 자체도 경계요 헐떡거림이지. 그러니 수행이라는 말을 내뱉는 것이, 수행한답시고 행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

말은 계속 이어졌다. "'심여장벽(心如墻壁)'해야만 '가이입도(可以入道)'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허튼 소리가 아니지." '마음이 굳은 장벽과 같아야만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거사는 얼마 전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토굴 짓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집 앞마당에 흰한 정자를 지어놓았다. 집 뒤편의 아담한 산, 앞뜰의 붉은 단풍과 저 혼자 유유자적하고 있는 벤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자에 올라앉아 있자니 무릉도원이 예임을 느낄 만도 하다.

그랬다. 조 거사에게는 토굴도 경계(집착)였다. 여기저기 써주던 글도 끊었다. 애지중지하던 사슴 키우는 일도 그만두었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곧 '쉼'이 아니던가.

땅은 정직하다고 했다. 그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일까, 조 거사는 채소, 콩,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을 가꾸면서도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있었다. 땅에 대한 계(戒)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계는 자신을 지키는 첫번째 조건이지. 그리고 계를 지키면서 정(定)에 들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울지 않으니 저절로 혜(慧)가 생기지. 그런데 오늘날의 문명은 이것을 방해하기만 해. 현대문명을 모두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에 끌려 다녀서는 안돼. 자기 안에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어디서 그것을 찾겠나."

조 거사의 자유는 그의 마음에 있었다. 그는 불교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있다고 했다. '얻고 있다'는 진행형의 말투. 그것은 아직도 '공부' 중이고, 또한 멈춰서도 안되고, 살아 있는 한 끝이 없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조 거사에게 '공부'는 일상이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하는 것은 이미 '공부'가 아니라고 했다.

5평 남짓한 조 거사의 서재에는 불교책 외에 다른 전공서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서재 한 가운데 놓인 큼직한 방석 하나에서 조 거사의 삶이 어렴풋이 읽혔다. 망상을 없애면 절로 흥이 난다고 했던가. 수행을 굳이 '공부'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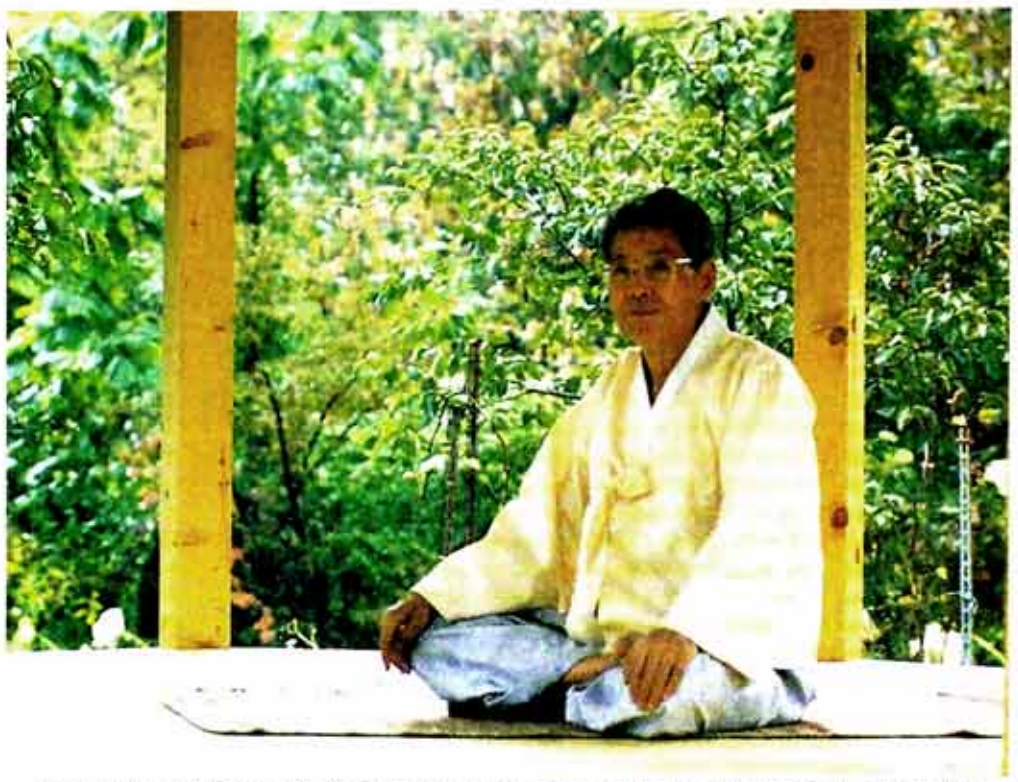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공부'하는데 제일 필요해. 나머지는 모두 자기 마음에 달렸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을 따진다는 것은 이미 '공부'하길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부처를 찾는 것보다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 중요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담바라가 피면 뭐하나. 자기 마음에 우담바라를 피워야지…."

조 거사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외형에 집착하는 세태를 경계했다. 불교는 '참조'가 아닌 '발견'의 진리임을 잘 알기에.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에 '공부'만큼 지혜를 주는 것은 없다고 믿기에 더더욱 안타깝다.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푸근한 표정. 기자를 마중나올 때 우산 두 개를 손에 들고 나왔던 자상함. 땅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검게 그을린 큼지막한 손. 이렇게 자연스레 우러나는 조 거사의 인간미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학자로서의 면모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었다. 이미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라는 느낌. 그리고 30년 넘은 세월을 일심으로 정진하며 수행해 온 조 거사의 삶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다.

글=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조홍식 거사는 '의내명주(衣內明珠)'를 강조했다. 자기 안에 감춰진 불성을 찾는 것이 참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최근에는 영어와 불어로 번역된 경전에 빠져있다

조홍식 거사는?

조 거사는 1921년 현재 기거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 춘궁동(당시는 경기도 광주군)에서 태어났다. 1947년 국립서울사범학교와 1951년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조 거사는 5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74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57년부터 성균관대 조교수로 강단에 첫발을 디뎠으며, 61년 한국 불어불문학회 이사, 72년 한국 불어불문학회장, 74년 성균관대 문과대학장 등을 역임하고 1986년 정년퇴임해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다.

86년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한불사전〉(공저)과 자신의 불교적 철학을 담은 에세이집 〈달처럼 매화처럼〉, 번역서 〈루소의 참회록〉〈보봐르의 제2의 성〉〈말로의 인간조건〉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위기의식과 지성인의 행동' '현대문학과 불안' 등 다수.

현재 서울 법련사 불일회 회장과 보조사상연구원 이사, 교수불자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슬하에 인제대 교수인 장남과 중·고교에서 각각 교편을 잡고 있는 두 딸이 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석창포차

집중력-기억력 향상 '수험생 간식'

선식(禪食)은 지친 수험생들에게 활력을 주고 정신을 맑게 하여 학습효과를 높여준다. 더욱이 수험생 최고의 적(敵)인 잠을 물리칠 수 있다. 수험생이 현재의 식사량을 습기롭게 줄일 수만 있다면 학습성적은 식사량에 반비례할 것이다. 즉 많이 먹으면 성적이 내려가고 적게 먹으면 성적이 향상된다. 또한 많이 먹으면 잠이 많아지고, 적게 먹으면 잠도 줄어든다. 이는 마치 선승들이 죽 한 그릇을 먹고도 하루에 1~2시간씩 잠을 자고 기도할 수 있었을 정도로 기와 힘이 넘치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이 학습능력을 돕는 것이라 생각해 많이 먹게 한다. 결국 낮에는 학교에서 졸고, 귀가해서는 책상 위에서 꾸벅꾸벅 졸게 하는 꼴이다. 여기에 아버지들은 한 수 더 보탠다. 아침을 안 먹고 서둘러 나가는 아이를 보고, 몹시 힘든 모양이라며 보약을 지어다 준다. 이렇게 과식과 졸음으로 반복되는 나날은 결국 자녀로 하여금 입시를 망치게 하는 꼴이다.

백양사를 중창한 만암 선사는 동진 출가하여 남들이 손쉽게 때는 〈초발심자경문〉을 외우지 못해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뒤지게 되었다. 고민하는 만암 스님을 보고 노스님이 뒷산에 가서 석창포를 채취해 끓여 먹어 보라고 하여 석창포를 먹고 나서부터는 〈관음경〉을 통하고 어떤 경전이건 모두 통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로 만암 스님은 하루의 반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루종일 참선한 선사들보다 더 높은 경지를 이루셨다고 한다.

식사량을 줄이고, 이에 곁들여서 만암스님께서 애용한 석창포차를 수험생이 마신다면, 수험일이 다가와도 결코 불안할 일이 아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석창포10g, 물 3컵, 감초 5g, 대추 5개

요리법 1. 석창포, 감초, 대추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다.
2. 대추는 씨를 발라 놓는다.
3. 석창포와 물의 비율을 1대 20으로 하여 감초와 대추살을 넣고 80도 물에서 30분 동안 은근히 달인다.
4. 준비된 차에 기호에 따라 벌꿀을 넣으면 된다.

효능 〈신농본초경〉에는 석창포를 오래 먹으면 귀와 눈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고와지며 몸이 따뜻해져 오래 살게 된다고 했다. 또 뇌신경의 피로를 씻어 주어 건망증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여 집중력과 기억 능력을 향상시킨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돌침대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콩콩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좋은 장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팬드기, 면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메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리빙스톤 (옥스톤)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초정파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 아침건강 - 베게가 좌우합니다! 머리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숫베게



▶ 자고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뻐근 합니까? 베게를 바꾸십시요.
▶ 통풍이 잘되고 세탁도 간편한 옥숫 베게

35,000→12,000원 (택배비는 별도)

※단체 주문 환영※ 단체구입은 직접 상담받습니다. ☎ 02)424-9427/2203-7821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⑤

念昔同遊 賢愚雜遝 今朝屈指 염석등류 현우잡환 금조굴지 九死一生 生者如彼 次第衰殘 구사일생 생자여피 차제쇠잔 前去幾何 尙復恣意 貪瞋嫉妬 전거기하 상부자의 탐진질투 我慢放逸 求名求利 虛喪天日 아만방일 구명구리 허상천일 無趣談話 論說天下 或無戒德 무취담화 논설천하 혹무계덕 空納信施 受人供養 無慙無愧 공납신시 수인공양 무참무괴 如是等僭 無量無邊 其可覆藏 여시등참 무량무변 기가복장 不爲哀痛乎 불위애통호

옛 동지를 생각해보면 현명한 이, 어리석은 이도 있었고, 지금도 손가락을 꼽아보니 아홉은 죽고 한 사람만 남았으나 산 사람도 이처럼 쇠약해졌는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길래 방자한 생각을 내어 탐욕부리고, 화내고, 질투하고, 아만심과 방일로 명리를 구해 헛된 세월 보내고, 쓸데없는 말로 천하를 논하며, 계덕(戒德)도 없이 공연히 보시만 받으며, 남의 공양을 받되 아무 부끄러움도 없구나. 이런 온갖 허물이 한없고 끝없는데도 덮어버리고 애통히 여기지 말란 말이냐.

如或世間事務 種種牽纏 或病苦所惱 여혹세간사무 종종견전 혹병고소뇌 或邪魔惡鬼 所能恐怖 有如是等身心 혹사마악귀 소능공포 유여시등신심 不安則於十方佛前 至心洗懺 불안즉어시방불전 지심세참

밤낮으로 수행 괴로움 벗어나고 자기 허물 알아 뉘우치고 고쳐라

如有智者 當須競愼 策發身心 여유지자 당수긍신 책발신심 自知已過 改悔調柔 晝夜勤修 자지이과 개회조유 주야근수 速離衆苦 但依佛祖誠實之言 속리중고 단의불조성실지언 爲明鏡 照見自心 從本而來 위명경 조견자심 종본이래 靈明淸淨 煩惱性空 영명청정 번뇌성공 而復勤加決擇邪正 不執己見 이부근가결택사정 부집기견 心無亂想 不有昏滯 不生斷見 심무난상 불유혼체 불생단견 不着空有 覺慧常明 精修梵行 불착공유 각혜상명 정수범행 發弘誓願 廣度群品 不爲一身 발홍서원 광도군품 불위일신 獨求解脫 독구해탈

만일 지혜 있는 자라면 응당 조심하고 삼가서 몸과 마음을 채찍질하고, 자기 허물을 알아 뉘우치고 고쳐서 조화로운 마음으로 밤낮 부지런히 수행해서 빨리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조(佛祖)의 성실한 말에 귀의하여 거울로 삼아서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신령하고 밝고 청정하여 번뇌의 성품이 공(空)함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 다시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가려서 선택하되 자기 견해를 고집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에 어지러운 생각이 없되 흐리멍텅해서는 안되며, 단견(斷見)을 내어서도 안되며, 공(空)과 유(有)에 집착해서도 안되며, 깨달음의 지혜가 항상 밝아서 정밀하게 청정한 행을 닦으며 큰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이는 홀로 해탈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以除重障 禮念等行 消息知時 이제중장 예념등행 소식지시 動靜施爲 或語或默 一切時中 동정시위 혹어혹묵 일체시중 無不了知自他身心 從緣幻起 무불료지자타신심 종연환기 空無體性 猶如浮泡 亦如雲影 공무체성 유여부포 역여운영 一切毁譽是非音聲 喉中妄出 일체훼예시비음성 후중망출 如空谷響 亦如風聲 여공곡향 역여풍성

만일 세간의 갖가지 일에 얽매이거나 혹 병고의 괴로움을 받거나 또는 사마악귀(邪魔惡鬼)의 공포를 받아 몸과 마음이 불안하거든 즉시 시방 부처님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무거운 업장을 덜어야 한다. 이때, 예불과 염불을 평등하게 행해야 하며, 업장소멸과 잡념 쉬는 것을 때를 맞추어 하라.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말하거나 침묵할 때나 언제든지 나와 남의 몸과 마음은 다 인연 따라 생긴 허망한 것이어서 비어서 주체성이 없음이 마치 물거품 같고, 구름의 그림자 같으니, 칭찬하거나 헐뜯거나 시비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고 또한 바람소리와 같은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혜산스님

내소사 회주

'스승'의 부재. 개인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사표(師表)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저렇게만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스승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그것도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한 하늘 아래서 함께 호흡하며, 그 모습대로 닮아가고픈 스승이 있다는 건 참으로 기쁜 일이다.

불가에서는 그런 스승을 일러 '선지식'이라고 한다. 지혜와 학덕이 높고, 정법으로써 후학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스승이 바로 선지식인 것이다.

그런데, 불가에서마저도 선지식이 드물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 이미 물질이 신의 자리까지 차지한 세속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세속의 스승이어야 할 불가에서 그런 자탄이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다.

그렇다면, 오늘의 불교계 아니 오늘의 한국 사회에는 정녕 스승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숨어서 나오지 않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스승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앞에 두고, 단풍 곱게 물든 변산의 내소사에서 혜산 스님을 뵈었다.

"신뢰 어디서 오느냐? 도덕성"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참된 스승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극에 달한 이 시대의 정신적 빈곤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간 출세간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여쭙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할까 합니다.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오만가지 재주를 부린다 해도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가야 애정도 나오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뢰는 어디서 오느냐.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지도자가 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뛰어나야겠지요. 학자라면 연구 업적이나 능력이 탁월해야 하듯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도덕성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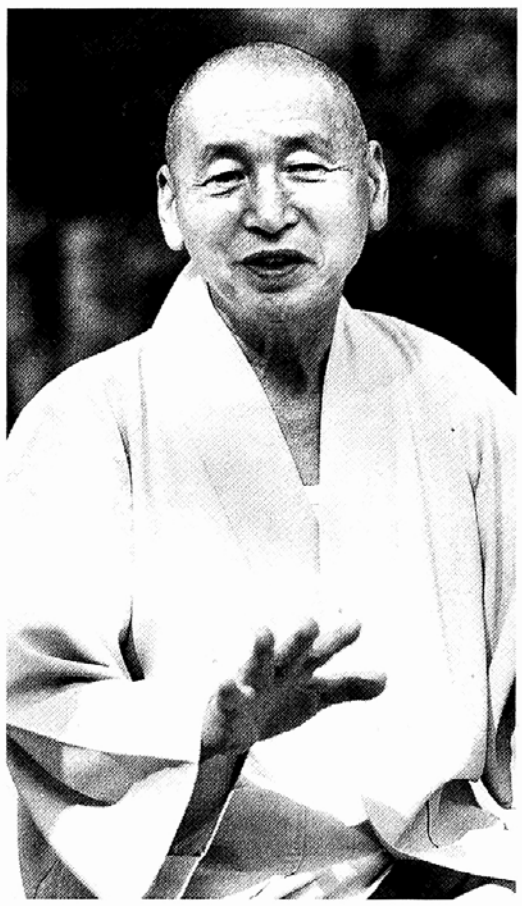
—지도자와 스승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스승상까지 갖추었다면 더 바람직한 일이겠지만요. 그리고 세간의 스승과 출세간의 선지식도 다소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후학을 바른길로 이끌어 주는 모범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불가에서 선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선지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지식인지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눈먼 이가 대중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대중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이가 선지식인 것이지요.

그럼 누구를 일러 선지식이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다를 것입니다. 선지식이라 하면, 의심이 다 가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확철대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을 이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이만큼 얘기를 듣고 보면 또 의문이 따를 것입니다. '어떤 경지가 의심이 다 가신 경지인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 추호도 머뭇거림이 없는 경지가 바로 의심이 가신 경집니다. 절집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똑같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 1933년 전북 정주 生
- 1958년 서울대 농대 졸
- 1963년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73년 범어사에서 구족계 수계
- 1974년 해인총림 선원장
- 1975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종정 수석 사서
- 1976년 조계사 주지
- 1983~93년 내소사 주지
- 현재 내소사에 주석

—그런데 미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선지식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추천을 받는 것이지요. 일단, 세상에서 말하기를 누가 선지식이라더라 하는 공인된 선지식을 찾아 부딪쳐 보라는 얘깁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 판단은 더욱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서 공부를 하는 분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 아니겠어요.

—출 · 재가를 막론하고, 선지식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학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의지할 데가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물론 모든 수행자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책으로 공부하는 불교는 학문입니다. 학문으로 다가간 경지도 경지는 경지입니다. 그것만으로의 세계가 있기는 하지요. 불교를 단순히 교조와 교리만으로 충분한 종교로 본다면요. 그렇게만 본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불교의 궁극은 깨달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리 체계나 믿음의 방식 차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깨달음'의 문제는 도그마와는 별개예요. '불교'라고 하면 종교의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하지만, 부처님의 종지를 따라서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 형태로서의 종교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 또한 아직은 공부를 하는 단계여서….

—그렇다고 평생 스승에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혼자서 공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계가 있지요.

흔히 '초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단계는 아직 확철대오의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겨우 맛을 본 것이지요. 그래도 그 의미는 대단합니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니까요. 마구니가 와서 꼬셔대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하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갖춘 것이니까요. 그런 단계에서는 혼자 공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굴 공부라는 것도 그런 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보면 너도나도 토굴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토굴 공부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보지요. '왜 토굴 공부를 하십니까?' 하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대중처소에서는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요. 참으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어요. 바탕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굴 공부는, 잠 맘대로 자고 망상 키우는 지름길이예요.

익기 전까지는 반드시 선지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중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주지스님』 그 차이는…

만물이 쉬어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절입니다.
나무하고 밭갈며 20여년 동안 포교활동을 해온 정호스님이 만난 세상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 보십시오.

나무하고 밭갈며 20여년 포교활동을 해온 한 스님이 담아낸 아름다운 이야기



도서출판 土房
전화 722-4588 / FAX 722-4589

안면있는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 몸을 담그러 가지만 운이 없는 날은 영락없이 그곳에서 포교원 신도를 만나게 된다. 명색이 머리깎은 출가승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신도들과 눈인사에 합장 반배 심지어 미끄러운 타일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삼배를 하는 신도를 대하는 일은 식은 땀 흐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제발 아는척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최뿌연 수증기속을 헤치고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확인하고는 큰소리로 "주지스님" 하고 부르며 반가워 한다. 목욕탕안에서 벌거벗은 주지와 신도가 서로 합장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목욕탕 안에 있던 많은 눈들이 일제히 한곳으로 집중되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웃음이 절로 나온다. 드디어 어느날 그 상황보다 더 화끈거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 벌거벗은 주지스님 — 中에서

수행자의 근본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용인 대각사에서 정진중인 정호스님은 세속의 많은 인연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아픔도 즐거움도 받아들여온 큰 강물 같은 포교활동을 해온 수행자입니다., 그런 스님이 살아가며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번에 책으로 묶어 내놓았다니 무척이나 기쁜 일입니다. 가만히 책장을 한장 한장 넘겨보니 사랑방 호롱불아래 간직해 놓았던 소중한 인연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주지스님'은 하나둘 나누며 키워온 한 수행자와 재가신도들의 참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책과 인연공덕을 짓는 것도 마음의 큰 복전을 짓는 것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주요내용

1. 깨우침
   밤 마실과 오뎅국 / 훌륭한 보시/ 대나무 그림자 뜰을 쓸고 있네 / 탁발 / 벌거벗은 주지스님 선방에서 군불 때는 소임 / 방편(方便)과 진리
2. 삶
   채운사의 물소리 / 마음먹음과 형성함 / 얼씨구나! 절씨구나! / 낮도깨비 / 물고기와 바다 울해의 고추농사 / 마음을 비웠다는 거짓말 / 지옥에서 만난 사람 / 증교의 존재 이유는 희망이다
3. 죽음
   죽은 자가 남기고 간 것 / 죽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애착 / 우리의 장례문화 / 유서 무상의 극치, 화장(火葬) / 보이지 않는 세계
4. 수행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 욕망의 다이어트 / 절을 통한 건강법 휴가에 관한 몇가지 생각 / 아줌마와 보살 / 강을 건너야 할 아이들
5. 선지식
   어느 부인의 편지 / 연꽃처럼 청정한 사람 / 혜련 스님 / 큰 교훈을 얻은 남자의 이야기 가난해지는 사람들 / 아름다운 인연 / 엘렌의 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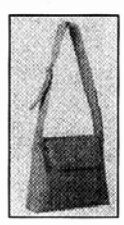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바랑"을 메세요

■특허청 : 상표등록증 등록제 0472513호


▲B-1001 ₩40.000


▲B-1002 ₩35.000


◀B-1003(大) ₩35.000


◀B-1004(大) ₩33.000

■벙거지



▲B-1005 ₩20.000



▲B-1006 ₩20.000



▲B-1007 ₩20.000

※본 바랑 및 벙거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사 ☎(054)636-6546 / Fax:632-6545

입금계좌
외환은행 : 223-22-03071-5
농 협 : 061-17-001230
우 체 국 : 013805-01-001737
국 민 : 831-25-0022-019
예금주 : 주)천화 무역

제조 · 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중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서울	이화불교사	02)720-1700	성보사	02)735-3543	제일불교사	02)735-0918	도선사예점	02)906-2279	구룡사	02)575-7766
	대복전	02)737-0969	건지불교사	02)739-3032						
부산	부다가야	051)865-4383	고려불교예술원	051)807-6842	한세울승복사	051)642-6020				
	산사회통(법어사)	051)508-6300	불원불교예술원	051)525-7450	관음불교사	051)807-6265	혜동불교사	051)337-6386	사하불교연합회	051)205-4535
대구	삼영불교진시관	053)253-1923	동화불교사	053)255-0784	불은당복사	053)424-5462	연화불교서점	053)425-4097	해인불교서점	053)425-0108
광주	백중불교백화점	062)224-6696	김천루기	062)363-5219	금성상회	062)369-1937				
대전	보문불교서점	042)287-0161	용해불교미술원	042)274-3727	대구승복사	042)254-8772				
	풍역불교사	042)221-0889	백제불교사	042)253-9907	한아불교사	042)822-2358	고려불교사	042)822-1083		
경기	삼원불교사	031)771-4747	수원조교점	031)253-1055	구리원불	031)563-7564				
	한양밀성불교사	031)633-6023	의정부불교반물	031)842-8671	수원봉녕사	031)256-4127	이천고려반물	031)447-5685	용인성원불교반물	031)336-0337
경북	안동보리수불교사	054)854-2114	경주불교사점	054)749-1580	구미불교사	054)453-3077				
	상주불교상회	054)535-2474	포항한덕불교진시관	054)241-2402	영주불교상회	054)632-2248				
	김천은혜시불교용품	054)433-4179	구구종합불교사	054)682-2869						
경남	김해일광불교사	055)325-0780	창원경남불교진시관	055)295-8911	하동철보정사	055)883-7771				
	진주진응불교사	055)743-4655	진주제일불교사	055)742-8174	연경당(태인사)	055)832-7473	춘천동해불교사	033)743-7442		
강원	원주금강불교사	033)266-9841	홍천아하불교사	033)434-8446	강릉관음불교사	033)642-8880				
충북	청주불교반물사	043)258-4725	제천불교사	043)645-7517	충주구원불교사	043)848-8411				
충남	공주백제불교사	041)855-5621	조치원동양불교사	041)865-4544	천안불교백화점	041)551-4765				
전북	전주상문각	063)274-5639	이리유기	063)855-3883	남원불교사	063)625-0234				
전남	목포포해원불교용품	061)243-2453	여수이화불교백화점	061)643-7533						
인천	강화불교사	032)933-0647	제일불교진시관	032)505-3861						
울산	대한불교진시관	052)260-8617								

공부 익기 전까지 선지식 절대 필요

내소사에 선방공사 내년 여름부터 결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즘 학인들은 선지식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사무치게 공부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오히려 문제는 그런 사무침을 수행으로 이끌어 주는 선지식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지식이 귀하다'는 말에 대해서 듣기 좋은 말로 그래요. '아니야, 아직도 산중에 숨어 계시는 분이 많아' 하고 말이지요. 솔직히 말 좀 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산이 다 뒤집어져서 흰한데, 어디 숨어있을 데가 있습니까. 차라리 골방에 숨어있다 하면 말이 돼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 책임 같은 것은 아니겠고…. 소위 그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법시대에는 모양만 남아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렵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왔어요.

지금 전국의 사찰을 보세요. 불과 20~30년 사이에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를 들어 조계종 소속 사찰이 천개 가까이 되고 승려가 만명 쯤 된다고 하는데, 한 절에 10명에 불과해요. 거기다가 해인사 같이 큰 절은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아니라 해도 통도사, 불국사, 범어사 같은 절을 고려하면 참으로 내실은 허약한 상태입니다.

결제철마다 방부에 이름을 올리는 수좌들은 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천 명 남짓이예요. 그 중에서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공부하는 수좌는 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중 상당수는 해제 때 여비 넉넉히 받아서 편안히 지내는 식이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선방 문고리 잡은 경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데요. 달마 이후 육조 혜능으로 이어지는 선불교의 전통을 보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라는 것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연꽃을 들어 보였는데, 가섭만이 빙그레 웃었죠. 순간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결코 말로 할 수도, 말로 일러 줄 수 없는 경지가 둘 사이에 열린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계합입니다. 상응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깨달은 경지를 일러 달라고 할 때, 스승의 반응입니다. 참으로 엉뚱하지요. 예를 들어, 경봉 스님께서 잘 그러셨는데, 누군가 깨달음의 경지를 물으면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내 말하면 니 아나. 텍도 없다.'

선지식의 어법은 이런 겁니다.

화두를 예로 들어 볼까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합니다.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

참으로 엉뚱한 대답이예요. 그러나 그분은 절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바로 일러주었단 말이지요. 그걸 물은 학인이 그걸 알았다면 '예!'. 할 뿐이예요. 만약 모른다면 그때부터 의심덩어리 하나 마주하는 것이지요. 어째서 '뜰 앞의 잣나무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화둡니다.

—아주 멋들어진 선가(禪家) 고유의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신비적이고 알듯말듯한 세계인데 '인가(印可)'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는 것이지요. 시험이라니까 조금 우습지만 시험을 봅니다. '한 마디 일러 봐라' 했을 때,



대중 바른길 이끌어야 선지식

'이 길 간다' 확고한 신념이 중요

어쩌다가 엇비슷하게 맞추는 수도 있고, 실제로는 당체를 알지 못하면서 한번 해 본 말이 그럴 듯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하, 이놈 제대로 알았구나 하면 그게 인가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 또한 선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지식 혹은 큰스님이라는 말이 너무 절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 한번 만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나마 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같은 세상일수록 큰스님을 더 자주 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만약 인의 장막 때문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문제 같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힘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수시로 넓은 데 모여라 하고서는 법문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지식이 귀한 것도 큰 문젭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중 처소에서 공부할 땐데, 하루는 조실 스님을 뵙고 아침마다 문안을 올리면서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하고 여쭈었지요. 그러자 그 스님께서는 대뜸 귀찮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참으로 아쉬워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지요. 은사이신 해안 스님께서는 참으로 자상하게 그리고 사무치도록 간절히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선지도 밝으셨고 학덕도 도도하셨죠. 그뿐이 아니라 언설과 인품, 용심에 있어서도 그만한 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내소사 한켠에서는 선방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결제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꾸려 나갈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내년 여름 결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선원 이름은 '봉래(蓬萊)선원'이고요, 내소사를 감싸안은 산을 능가산 또는 변산이라고들 부르는데, 그중 봉래산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이지요.

결제 대중의 규모에 대해서는 잘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다만 원칙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사중 형편을 따를 것이고요. 해제 때 여비 듬뿍 주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진실로 간절히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인 그런 선원을 만들어 갈 겁니다.

—선방이 열린 이후 스님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여쭙는 것으로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더러 신문 같은 데서 저를 일러 조실이라고 한 걸 봤는데, 그건 맞아죽을 소리고…. 그저 대중과 함께 생활하며 선방에서 한 생 마감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 줄까가 걱정이네요. 내년이 돼야 일흔인데 주위에서는 벌써 노장 취급하려 들고….

대담=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관후스님

장주소임 맡은지 20여년

자나깨나 대장경지킴이

짙게 어둠이 깔린 해인사의 아침이 아직 여명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슴프레한 새벽안개가 장경각을 휘감고 돌아 궁현당 지붕위로 소리 없이 흐르던 날 새벽예불을 마친 학인 스님들의 간경소리 청아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좌우로 흔들어 소리내어 보는 야경종소리는 적막한 산사의 마지막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바로 그날 무사히 야경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없이 버릇처럼 궁현당 계단을 막 딛고 올라서는 찰나 "야 이놈아, 니는 몸뚱이가 성하고 두눈이 말짱하니 나까지 그런 줄 알았더냐?" 벽력같은 고함소리에 하마터면 들고 있던 야경종을 떨어뜨릴뻔 했다. 그날 아침 나는 장주스님에게 심한 경책을 받아야만 했었다.

해인사 장경각의 장주 관후스님. 스님은 키가 몹시 작았다. 젊은 시절 참선을 잘못해서인지 무릎조차 편치 않아 다리까지 불편하시다. 그러면서도 성격이 몹시 꼬장꼬장하셔서 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스님이 아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죽 쉬고 싶다는 요령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야경을 돌면서 아직도 컴컴한 도량 속에서 일찍 외등을 꺼버렸었다. 외등은 마지막 야경을 돌때 어둠의 상태를 확인하여 꺼야 한다는 수칙을 무시했던 것이다. 해인사의 계단은 가파르다. 건강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 곳인데 그 가파른 계단을 달도 없는 컴컴한 어둠속에서 편치 않은 다리로 내려 오실려니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잎사귀 푸르던 시절 학인때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죄송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해인사에는 고려와 조선조시대의 비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다. 민족의 수난 때마다 달리 의지할 데 없던 약소민족의 국운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극복하여 보고자 일자 삼배의 정성으로 경판 글씨 하나 하나에 민족의 아픔과 염원이 판각되어져 있는 대장경이다. 이 경판을 모셔두는 곳이 장경각인데 이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관후스님은 이곳 장경각의 장주 소임자다. 대장경과 장경각을 지키고 보호하여 잘 보존되게끔 하는 일이 장주 소임중 하나다. 이른 아침, 채 여명이 걷히기도 전에 장주스님은 장경각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루일을 시작하신다. 간밤에 어떤 불상사는 없었는지, 누전 등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 보는 일이다.

해인사에는 관광객의 출입이 꽤 잦다. 스님은 관광객의 장경각 출입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가끔씩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장경각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은 하루종일 노심초사해 하신다. 실제 장경각 으슥한 모퉁이에서는 원활한 통풍을 위한 창문틀 사이로 손목을 비집어 넣어 경판을 만진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런곳은 닳고 닳아서 윤기마저 흐르고 있다. 그것을 스님은 당신의 잘못으로 여기시고 몹시 죄스러워 하셨다.

칠팔년전의 일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휴거소동이 일어났다. 해인사의 도량 곳곳에서도 말세론자들의 유인물과 테이프 등이 다량 발견되었었다. 사중 스님들도 행여 불상사가 일까 싶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곤 했었는데 대장경의 위신력인지 스님의 공덕 때문인지 다행히 장경각은 별일 없이 그 흔한 유인물 한장 발견되지 않은 채 휴거소동은 끝났었다. 그 당시 스님은 잠도 못 자고 장경각을 지켰다고 했다. 스님의 장경각과 대장경에 대한 애착은 어쩌면 무서운 집념과도 같아 보인다. 장주소임을 맡은 지 이십여년이 되어 가지만 그 많은 세월동안 거의 외출을 모르고



살아 오셨다. 내가 잠시 보존부 일을 맡아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절대 장경각 열쇠 등을 맡긴 적이 없었다. 아무리 피곤하고 설사 병중이시더라도 손수 문을 열고 잠그신다. 어쩌다 잠시 자리를 뜰 때에도 두 번 세 번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그러한 스님의 모습에서 나는 칠백오십여년전 고려대장경 조성을 진두 지휘하셨을 수기스님을 연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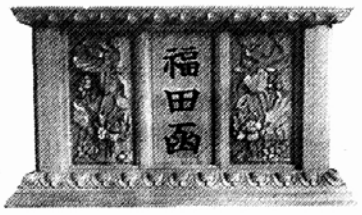
신명을 바쳐 민족의 애환과 염원을 대장경에 새겨 조성하셨던 수기 스님과 자신의 삶을 오롯이 대장경과 장경각의 지킴이로 살아가는 관후스님은 대장경이란 틀 속에 자신의 일생을 던졌다는 의미에서 닮았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맡은바 소임은 다르지만, 그 정신은 하나가 아니었을까? 일찍이 추사 김정희는 대장경 글씨 한자한자의 아름다움이 이세상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다 하며 극찬한바 있었다. 수기스님의 조성정신이나 관후스님의 지킴이 정신 또한 글씨 한 자 한 자의 아름다움만큼이나 닮아 있지나 않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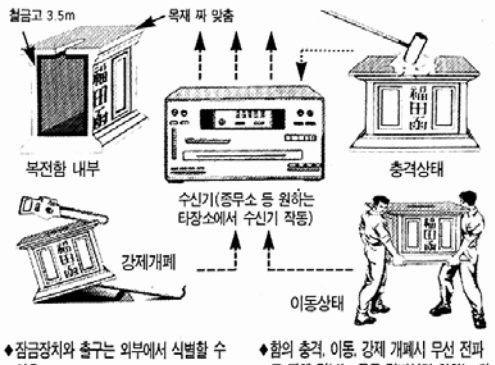
오늘 세속의 숲 속에서 사바세계에 은은히 퍼지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향기를 맡으며 관후스님의 무병장수를 기도해 본다.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불 전 함

도난방지 장 치 ◆특허 2000-0011559◆





◆잠금장치와 출구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음.
◆특수 전자시스템이 금고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원격작동 S/W전파와 개폐가 절대 불가함.
◆옥외용과 현지 사정에 따라 모델, 크기, 소재, 색상 등 주문생산이 가능함.
◆함의 충격, 이동, 강제 개폐시 무선 전파로 자체 경보는 물론 경비실및 원하는 타 장소에 침입사실을 알려 줌.
◆본 함의 전원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경보는 계속되고 개폐기능은 마비됨.

본 System에 대형 사이렌을 연결 중요시 설물에 방범용으로도 가능함.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043-647-2378, 011-467-1472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물방울의 바다향함 만큼 필연인-

천상천하유아독존

(부부 속 전재, 구합 속 충부)
(나-그것 → 너-너 → 나-나)

머리 가슴 지나 배 속에 담아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진정한 成人(앎)

참나 꽃 피우는 방편 꽃
우담바라
(하나한)

안은 엷어지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걸려들지 않으나 함께 못 하는 바라봄 넘고
틀새 하늘 뿐 구름 못 여는 이뭐꼬 넘고
얼굴 모두 아닌 숨굴 국한하는 호흡 넘고
핵심인 의식보다 동작 중시하는 기공 넘고
얼의 밥 아닌 마음 약 자처하는 명상 넘고
근원합일 제외 인과처방 자족하는 심리치료 넘고
모든 인간 여의주 보유 간파하는 의식개발 넘고
결국 자신과의 대화일 수 밖에 없는 채널링 넘어
똥오줌보다 문제인 마음얼의식 혼동하는 일체유심조 관통

【과 정】
• 목헜면 여의주 꺼내 손칠
• 생각고치 안밖 자유 왕래
• 지푸라기 속 무한생 확보
• 모두가 나인 세계에 진입
• 항상 가득 마음 마음대로

【특 징】
• 애고 비움 죽임 아닌 확장
• 기존 핵심 중에 자원 혁신
• 숨굴 포함 얼굴 모두 발굴
• 심각 아닌 진진 놀이 진행
•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체험 소감】
"석기의 無와 예수의 有 종합 과연 새천년 비전" - 박성인(공무원)
"食→眞和, 호흡→숨, 툿→觀 싫을 道로 노지 소원 성취" 김영철(교수)
"아픔은 곧 我慕, 참나로의 근원적 예방 치유 길" - 이정숙(의사)
"원함 아닌 비림직함 짓고 지움 미술 아닌 미술" - 김인식(회사원)
"죽어있는 것 흐르게 살아있는 것 펄떡이게 언어도 단" - 백인지(주부)
"이로서 최대 거짓 - 나는 당신을 사랑 - 이 참말 되었네" - 김대성(학생)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월 셋째 월15:00~토 15:00(참가비:55만원) 농협 111-12-336000 윤식태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튜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70만원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福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30,000
누비 (上,下)	남여	180,000
방한복 (上)	남여	130,000
바랑	大	30,000
	中	25,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불교 동요악보집 '연꽃들의 노래'

유익상씨 88곡 수록


◇유익상씨

불교동요 반주와 합창곡을 담은 악보집 〈연꽃들의 합창〉이 발간됐다.

수원포교당 가릉빈가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유익상씨가 최근 펴낸 이 합창곡집에는, 유씨가 2년여 동안 작업한 88곡의 어린이 불교 동요가 들어있다. 피아노 반주곡 49곡과 합창곡 39곡이 수록돼 있으며, 분량도 웬만한 단행본에 해당하는 300여쪽에 달한다. 그동안 어린이 동요곡집이 나온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피아노 반주 악보까지 결들인 악보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여년 간 어린이 합창을 지도하고 불교 동요를 작곡해 온 유 씨는 "전국에 12개 정도의 불교 어린이 합창단이 있지만 막상 연습할만한 교재가 마땅치 않다"며 "합창단 연습이나 법회에서의 찬불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 불자들에게 좋은 음악교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02)725-7527 권형진 기자

성보박물관 개관 14곳 공사진행 14곳

불교문화 포교공간으로

직지사 고승진영전
하루 3백명씩 관람
통도사 사리장엄구전
전시기간 연장 '성황'

학예연구실 설치 등
인력·재정 지원 숙제

사찰 성보박물관이 특색있는 기획전을 통해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산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300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 경북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의 고승진영전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여름 경남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렸던 사리장엄구 특별전도 당초 8월말로 계획했던 전시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규모나 내용면에서 국내 최대임을 자랑하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불화 전문 박물관으로 이름이 높다. 해마다 두 번씩 개최하는 괘불 특별전은 경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괘불을 통해 불교회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성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월정사, 수덕사, 대흥사, 동화사, 통도사, 직지사 등 전국적으로 14곳에 이른다. 25개 본사급 사찰 가운데는 8곳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용주사 마곡사 해인사 등 10여 군데가 개관 준비중이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말사급 사찰 중에도 표충사, 부석사, 옥천사, 기림사 등 6개 사찰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오어사, 수타사, 대원사, 도갑사 등에서도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성보박물관은 해당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서부터 인근 사암에서 수집·정리한 유물을 한데 모은 곳 등 그 규모와 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보존문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중요 성보문화재도 다수 전시되고 있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지역 불교문화 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공적인 운영이 아직은 몇몇 박물관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성보박물관이 기획 전시는커녕 상설 전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빈번한 도난사건과 유물 훼손에 따른 관리 보존을 위해 본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박물관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이후 운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재정과 전문인력 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개 성보박물관 가운데 학예연구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통도사, 직지사, 월정사, 송광사, 수덕사, 대흥사, 동화사 등 7곳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은 직지사가 개최하고 있는 고승진영 특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96년 개관한 직지사 성보박물관이 4년만에 처음으로 기획전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99년 학예연구사 2명을 채용한 데 힘입은바 크다.

재정면에서도 박물관 건립 이후 지속적인 유물의 보존과 연구, 보안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돼 있는 사찰 성보박물관의 특성상 정부의 예산 지원을 따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박물관 소재구 학예연구사는 "성보박물관 건립과 운영의 주체인 사찰이 박물관 건립에 앞서 인적·재정적 자원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맞게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같은 토대 위에 저마다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기획과 전시로 지역민과 불자들에게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지난 2년간 놀랄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룬 성보박물관은 불교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사진은 직지사 성보박물관 고승진영 특별전.

"禪의 세계, 그림으로 초대합니다"

선화전문 '담원갤러리' 여는 김창배씨



'전통의 거리' 인사동에 선화(禪畵)만을 다루는 상설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간혹 선화를 주제로 한 개인전이나 특별전이 열리기도 하지만 일년 내내 선화를 전시하는 공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동 네거리에 자리잡은 선화 전문 갤러리인 '담원 갤러리'(관장 김창배)가 지난 10월 28일 개관식을 갖고 첫 번째 기획전에 들어갔다.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선화를 보면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한국의 달마〉 저자이자 선화만 그려온 선화가이기도 한 김창배(45) 관장의 최근작 33점을 선보이고 있다.

김 관장은 "역사탐방로 조성 등으로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며 "선화의 세계를 널리 알리고 보시와 포교차원에서 상설 전시관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1차 기획전이 끝나면 곧이어 '선승 기획 초대전'이 열린다. 현재 우리 화단이나 스님 가운데 역량과 작품성을 겸비한 작가 10여 명을 초대해 선화, 묵공예, 판화 등을 전시한다. 선화로 유명한 수안스님, 동승의 원성스님, 목공예가 박찬수, 판화가 이철수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보시와 포교 차원에서 문을 연 만큼 선화를 하는 다른 작가들을 위해서도 전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다 선화의 매력에 빠져 15년간 선화를 그려왔다는 김 관장은 "그림을 통해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선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또 내년 경 선화를 주제로 한 그림, 조각, 도자기 등을 모아 경기도 화성 근처에 선화 전문 미술관 및 선화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02)736-7445 권형진 기자

방송 볼거리 EBS '최완수의 우리미술 바로보기'

불상·불탑 왜 어떻게 만들었나?

내년 3월까지 수요일마다


◇최완수실장이 EBS-TV '최완수의…'에서 인도의 불상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불상과 불탑을 알면 불교문화가 보인다.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불상과 불탑이다. 그러면 불상과 불탑은 언제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이 그 역사를 소개한다. 한국 근대 미술사와 불교 미술을 전공한 그는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3월 초까지 EBS '최완수의 우리미술 바로보기'(수요일 밤 9시20분)에서 30여년간 치열한 연구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체득한 우리 미술의 역사와 진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첫 강의에서 "불상이 우리 미술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불교미술의 꽃이었던 불상에서부터 출발해 회화, 건축, 서화 등 우리 미술문화의 전반에 걸친 장르를 집중 조명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출연 동기를 밝혔다.

한 점의 미술품에서도 시대 전체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는 25일 방송된 '부처없는 불교미술의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초기 불상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도의 불교 미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에서 불상이 처음 출현한 시기를 AD 1세기로 볼 때 그 이전부터 6백년 동안에는 동물상과 부처의 일대기를 그린 상징물로 대치되어 불상이 없는 시기가 계속 됐다며, 불상의 부재는 당시가 아소카 왕조의 절대 왕권시대 였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덧붙였다.

방형찬PD는 "박물관 전시장 속의 박제된 표본이 되어버린 우리 미술품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싶었다"며 "국내 미술사 분야의 권위자인 최완수 선생의 해박한 설명은 우리 미술의 진가와 우수성을 안방에서 편안히 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최실장의 강의는 '인도의 불상' '중국미술' '우리나라의 불상' '고구려의 고분벽화' '조선시대의 회화' '조선시대 풍속화' '조선시대의 서화 및 문인화' 등 20회에 걸쳐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사이버 문화 붓다포토

불교, 사진예술로 승화

사찰 대웅전 처마 밑에 내려앉은 가을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만끽해 보자. 불교사진작가 김태환씨의 홈페이지 '붓다포토'(www.buddhaphoto.co.kr)를 방문하면 예술로 승화된 불교를 만날 수 있다.

사각의 사진 속에서 피어나는 불교의 표정은 어떤 것일까. 김태환씨가 선보이는 불교사진의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재)뿐만 아니라 포탈라궁 등 외국 사찰의 웅장한 모습도 접할 수 있다.

흥이 있다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 그 외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붓다포토에서 제공하는 사진은 불교건축 외에도 다양하다. 대웅전 문살에 피어난 꽃잎 하나 하나가 생생하게 사진 속에서 살아움직인다. 석탑 및 부도의 단아함, 영산재·다비식 등 불교의식, 불교조각, 회화, 불자 생활상, 사찰풍경 등 다채롭기 그지없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붓다포토에서 사진을 함부로 다운받으면 큰일난다. 불법(不法)이기 때문. 돈을 주고 사도록 쇼핑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이다.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문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독특한 테마사진 갤러리로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101 - 교리·입문편	102 - 교리·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학편	501 - 문화·학술편	502 - 문화·학술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참선요지 (參禪要旨)	방편개시 (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딸꾹질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루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0쪽 / 값 5000원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초월 스님 편역 B6 변형 176쪽 값 4000원	혜능 스님 역술 B6 변형 330쪽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6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6쪽 / 값 5500원	권형조 지음 B6 변형 336쪽 값 6000원	이중진 지음 B6 변형 282쪽 값 5000원	전지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해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중국의 역사·문화 속내 읽기

중국문화답사기 위츄위 지음



굳이 중국불교를 알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독서를 즐기는 불자들의 서가에는 중국문화를 소개한 책이 한 두 권쯤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인의 시각으로 쓰여진 책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장구하고도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말로 출간된 〈중국문화답사기 상·하〉(한정현·김명학 옮김, 명지사)는 중국 역사와 문화의 속내까지 알게 하는 책이다.

글쓴이는 위츄위(전 상하이 희극대학 총장) 씨. 그의 작품 특색은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감각이 글 속에 녹아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 책도 그런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돈황의 머꼬우굴을 비롯 41편으로 구성된 이 책의 첫 편 '도사탑'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불교문물이 외국의 탐험가, 상인들에 의해 팔려나간 가슴 아픈 역사와 무지몽매한 중국 민족성에 대해 서슬퍼런 질책이다. 그렇다고 이책이 중국인들의 그릇된 문화관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지는 않는다. 찬사도 아끼지 않으면서 중국 문화의 전반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값 각권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40선승이 주는 깨달음 향기

禪門에 뜨는 달은… 정휴스님 지음



선승들의 수행담을 풀어놓은 책 〈선문에 뜨는 달은 말을 하더라〉(우리·전2권)가 출간됐다.

글쓴이는 현재 전집시리즈(총 10권)를 집필하고 있는 정휴 스님. 그는 달마 선사부터 현존하는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까지 중국과 우리 나라 선승들의 수행 현장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단순히 선승들의 일대기나 대화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속에서 40여 선승들이 깨침을 얻었거나, 깨침을 준 선문답을 현대인들을 위해 깨달음의 향기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값 각권 1만원. 김중근 기자

하늘과 별과 깨침 담은 선시집

똥막대기 이시우 지음



이 시 우 전 서울대(천문학과) 교수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데 평생을 바쳐 온 사람이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전공서적을 놓지 않았다. 그런 그가 98년 정년을 5년여 남겨놓고 스스로 대학 강단을 물러서면서부터 외도(?)를 시작했다. 작년에 〈별과 인간의 일생〉(신구문화사)이란 수필집을 내더니 올해엔 덜컥 시집을 출간했다.

〈똥막대기〉(신구문화사)는 이 교수가 불법에 빠져들면서 느꼈던 것들을 쏟아낸 일종의 선(禪) 시집이다. 〈금강경〉 등 경전과 관련서적을 읽으면서 느낀 단상들, 명예퇴직 후 절에 들어가 참선 수행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원고지에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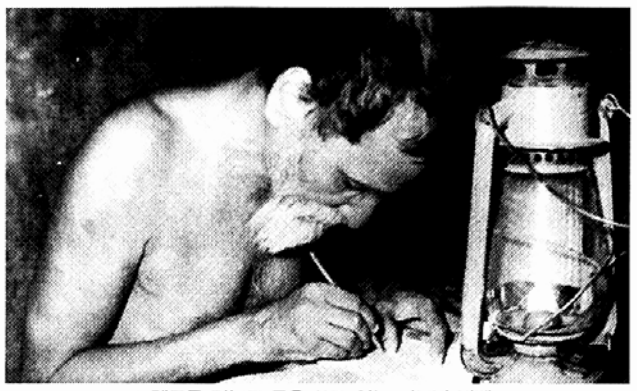
우주의 질서를 파헤치던 이 교수는 그것이 결코 불법과 다르지 않음을 노래한다. 별들이 서로 끌고 당기는 힘이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때 우주는 질서를 유지한다. 별들은 우주를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를 우주에 맞춤으로써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을 우주 속에 어떻게 관련짓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주의 일원임을 깨달을 때 우주만물의 생명력과 조화로움은 곧 부처님 가르침이 된다. 천문학과 시. 쉽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도 '불법'이란 틀 안에서는 하나가 됐다. 값 5천원. 권형진 기자

"자비 사상만이 진정한 힘"

'비노바 바베' 칼린디 지음



세상 통해 진리 깨달아
무소유·비폭력 실천한
위대한 영혼의 일대기



◇램프를 켜놓고 글을 쓰고 있는 비노바 바베.

비노바 바베(1895~1982). 카스트 제도가 엄격했던 시절, 인도 최고의 계급인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브라만을 상징하는 시카(긴 머리 타래)를 자르고 노동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시작된 '비폭력저항운동'(사티야그라하)과 '토지헌납운동'(부단). 20여 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며 지주들을 설득, 스코틀랜드만한 땅을 헌납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기적적인 성취에 도취되지도 안주하지도 않았다. 천민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를 지도자로 떠받들자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내면 수행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실천문학사가 '역사속인물찾기' 시리즈의 열두 번째로 펴낸 〈비노바 바베〉(칼린디 지음, 김문호 옮김)의 주인공 비노바 바베는 우리에겐 다소 낯설지만 간디와 함께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다.

바베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념으로 간디의 사상을 평생 몸으로 실천했다. 책은 바베가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이상을 현실에서 몸소 구현하려 했던 실천 의지의 소유자임을 강조한다.

바베는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안락이 보장된 그 길을 벗어 던졌다. 10살 때부터 붓다를 존경해온 그는 21살 때 대학을 중퇴하고 진리를 찾아 집을 떠났다. 고행자, 성자들과 토론하며 진리는 세상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구도의 길에서 간디를 만나게 된다.

그는 간디의 아쉬람(공동체 마을)에서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인 발전을 동일시하고 동시적인 목표로 삼는 일'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바베는 '신을 찾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 특히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하고 무소유의 삶을 살 것을 서약했다. 그리고 육체 노동을 통해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겼다. 그에게 몰레질은 바로 '진리'를 섬기는 일이었다.

바베는 사회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떠맡았다. 내면적 성찰 역시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그 뿌리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1951년부터 시작된 토지헌납운동으로 구체화된다.

토지헌납운동은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무소유 사상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베가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비의 이념이다. "조직도 정부도 경전도 무기도 자비의 사상을 당할 수는 없다."

간디와 만나 사회개혁에 뛰어든 지 50년 만인 1966년 바베는 외적인 활동을 줄이고 내면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87살에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자 일체의 음식을 거부하고 단식 80일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이끄는 화자는 '나'이다. 하지만 자서전은 아니다. 생전에 그와 절친했던 칼린디가 그의 회상을 정리한 책이다. 때문에 독자는 '조각그림 맞추기' 놀이를 할 때처럼 단편적인 일화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조각그림을 온전히 맞추었을 때는 '마하트마'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영혼'을 만나게 된다. 값 1만2천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한글세대 위한 불교 입문서

치문경훈 현진스님 옮김

불문에 들어간 초심자가 처음 펼쳐 놓고 배우는 교과서 치문경훈(緇門警訓). 이 책이 한글세대에 맞게 우리말로 옮겨져 나왔다. 치문경훈은 불법을 배우려는 초심자의 마음가짐, 생활 태도 등을 담고 있는 책으로 승가대학(강원) 사미과의 기본교재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의미에 비해 널리 읽혀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가 '한문' 때문이다. 그 동안 출간된 역서들이 대부분 직역 수준이어서 대중성이 없었던 것이다.

현진 스님이 내놓은 〈치문경훈〉(시공사)의 가장 큰 장점은 원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리면서 한글세대를 위해 쉽게 풀어썼다는 점이다.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쉽도록 제목까지 풀어썼을 뿐만 아니라 불교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찾아보기를 따로 붙였다. 특히 게송과 운율을 맞춘 전통적인 한글 시가의 형식을 빌려 의역해 놓아 염송하기 좋다는 점도 이 책의 매력이다. 또 인물, 시대, 경전, 불교용어 등에 대해 조목조목 정리한 사기도 수록했다. 본문을 보다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사전을 뒤적일 필요 없이 사기를 참조하면 된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산사 100배 즐기기(중앙M&B)= 명산의 명찰을 소재로 한 레저북. 천년고찰과 암자 58곳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사찰과 스님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각과 불상, 그리고 탑 등 대표적인 문화재를 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찰이 자리잡고 있는 명산과 가 볼만한 곳, 맛집과 숙박지 등 풍부한 여행정보가 실측 지도와 함께 실려 있어 여행의 동반자로 삼을 만하다. 값 8천원.



▲한국불교인물사상사(중앙승가대학교 신문사 펴냄)= 중앙승가대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펴낸 책. 지난 96년 3월부터 6월까지 4년여 동안 승가대신문 학술 면에 연재됐던 '한국불교인물사상사'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도선·의상·태고·균여대사 등 한국불교 고승 42명의 사상과 일화가 담겨 있다.



▲신라인과의 대화(히라노 교코 글·그림, 사람in)= 일본의 여류화가 히라노 교코 씨의 경주 남산 마애불에 대한 20여 년간의 열정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는 남산의 대표적인 유적인 칠불암, 신선암의 마애불, 상선암의 마애석가여래좌상, 탑골의 대불암을 비롯 세계적 문화유산에 대한 상세한 감상과 사진, 그리고 글쓴이의 그림이 담겨져 있다. 값 7천5백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음식(정대성 지음, 김문길 옮김, 솔)= 음식 문화를 통해 바라본 일본. 일본 문화 곳곳에 배어 있는 우리 옛 문화, 그 중에서 음식 문화가 일본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변했는지를 살핀다. 주방도구에서부터 술, 두부, 스시 그리고 음식을 담은 그릇 등 10개의 소재를 택해 그 양상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글쓴이는 불고기나 김치 등을 당연히 자신들의 음식으로 알고 있는 일본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까지 한다. 값 8천원.



▲삼국지 인간경영(주선 편역, 중명)=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등용과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했던 조조, 넓은 포용력으로 뛰어난 인재를 두었던 유비, 참을성 있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손권…. 이 책은 수백 년을 이어온 베스트셀러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의 전략과 경영철학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인간경영, 즉 리더십, 통솔력, 업무추진 요령, 조직활성화 방안, 사업 전략 등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값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채	모 색
3	천수경 천수신앙	혜 국	효 림
4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김 한 규	도피안사
5	일반송 수행일기	강 옥 구	등쪽나라
6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7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된…	다카하시	해 누 리
8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9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10	화두 놓고 염불하세	인 광	불 광

도서 안내:(02)737-0695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불교만화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계승시킨 편양 언기스님의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강백으로서, 선승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스님이 언기스님의 법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이뭣고' 화두를 들고 살았기에 '이뭣고' 스님으로 불리워졌으며, 양을 치면서 수행한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일 등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했던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수일 글 · 그림/신국판/245쪽/값 6,000원

성철 큰스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정진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잠자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던 성철 큰스님.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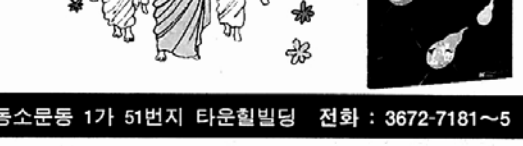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6,000원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空)' 사상이다. 그런 만큼 '공'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공' 사상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화엄경 (전10권)

부처님 설법의 정수로 꼽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그 분량의 방대함과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만화는 어린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며 53명의 덕 높은 스승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 이야기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쉽고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전 10권/값 각권 5,000원



불타석가모니 (전3권)

제1권 출가, 제2권 성도, 제3권 전법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나 위없는 큰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그 깨달음을 펴신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점들을 모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각권 6,000원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모은 경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성보 해마다 30점이상 도난



◇올 9월 김해 해운사에서 도난당한 '가락국 수로왕영정'

94%가 비지정문화재
최근 한달새 6점 없어져

국회사무처 국감자료

"해마다 30점 이상의 불교문화재가 도난당하고 있으며, 이중 94%는 비지정 불교문화재다."

국회사무처가 배포한 〈2000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비지정 불교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10월 27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충분한 예산이 없어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에 대처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자체적인 대응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급 문화재 1천 587점을 비롯해 시·도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국정감사자료집〉에 따르면, 각 사찰에서 불교문화재를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어 이를 관리·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지않고 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정 불교문화재와는 달리 비지정 불교문화재는 거의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비지정 문화재 절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문화재보호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그 틈을 노려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급증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한달 동안 도난 당한 비지정 불교문화재는 유가사 산내 암자 도성암 후불탱화와 복장유물, 해은사 가락국 수로왕과 왕후 영정, 대전사 후불탱화 등 불화 6점에 수량을 알 수 없는 복장유물 등이다. 이는 올 3월에 1건, 5월에 2건, 6월에 1건 등 7개월 동안 4건에 불과하던 도난사건이 최근 한달 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 스스로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실측도·건물측량·탁본·사진·연대 등을 기록하고, 그 가치 여부에 따라 국가 및 시·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최선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더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불교계의 문화재 보호책은 정부 당국의 행정적 지원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행정 당국은 불교문화재 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해외유출문화재
7만4548점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7만4548점에 달하는 반면 환수된 문화재는 443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해외유출 문화재는 일본·미국 등 20개국에 7만4548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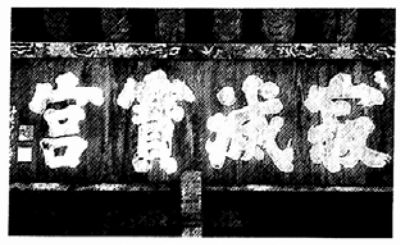
이 가운데 일본이 3만4157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만5414점 △영국 6610점 △독일 5289점 △러시아 3554점 등이 뒤를 이었으며 프랑스·중국·덴마크·캐나다 등에도 1000점 이상씩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그동안 국내로 환수된 문화재는 △일본 3519점 △미국 725점 △뉴질랜드 193점 △프랑스 1점 등 4개국에서 모두 4438점에 불과했으며 이중 2779점은 구입·기증 형태로 환수됐고 정부간 협상에 의한 것은 1659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불법유출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협상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장국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 환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㉕구하의 통도사·운문사 편액



◇양산 통도사(적멸보궁).



◇청도 운문사(오백전).

구하 천보(九河天輔·1872~1965)는 경상북도 울주 출생으로 13세가 되던 1884년 양산 내원사 주관(主管)에게 출가하고, 경월(慶月)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예천 용문사를 비롯한 여러 절을 돌며 교와 선을 참구하였고, 다시 통도사로 돌아가 명진학교를 설립, 교장을 지냈으며, 통도사 주지, 중앙학림 교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하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도제양성에 힘썼으며, 또한 수차에 걸쳐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하고, 대한승려연합회 대표자 12인 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에도 참여하였던 근대의 고승이었다.

자재(自在)한 운필(運筆)을 특징으로 하는 구하의 글씨는 세수 94세, 법랍 81세로 입멸에 들기까지 오랜 기간을 주석하며 수행에 전념했던 통도사 〈적멸보궁〉, 〈명부전〉, 〈개산조당〉, 〈삼성각〉, 〈전향실〉 편액을 비롯하여, 하동 쌍계사 〈화엄전〉, 〈삼성각〉, 〈영모각〉, 양산 내원사 〈선해일륜〉, 〈심우당〉, 남해 용문사 〈대웅전〉, 〈명부전〉, 〈적묵당〉, 〈용화전〉, 의성 고운사 〈삼성각〉, 경주 불국사 〈극락전〉, 청도 운문사 〈오백전〉, 〈전향각〉, 장성 백양사 〈칠성전〉 편액 등 주로 경상도 지역에 많이 남아있다.

양산 통도사 대웅전 우측에 걸린 〈적멸보궁〉 편액에는 '해동사문 천보서(海東沙門 天輔書)'라는 관지와 두인 그리고 '취산(鷲山)', '김구하인(金九河印)'이라는 도서 2과가 찍혀 있다. 절의 본전인 이 전각에는 앞쪽에는 〈대웅전〉, 왼쪽에는 〈금강계단〉이라는 편액이 함께 걸려있는데 이 편액은 사내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까닭에 붙여진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구하가 노경(老境)에 이르러 쓴 것으로 후경(厚勁)한 서미(書味)를 지닌 선필(禪筆)이다.

청도 운문사 〈오백전〉 편액에는 '해동사문 천보 당년팔육세시서(海東沙門 天輔 當年八六歲時書)'라는 관지와, '김구하인, 취산(金九河印, 鷲山)'이라는 도서 2과가 찍혀 있다. 이 〈오백전〉 편액은 오백나한전을 즐여 쓴 것으로, 구하가 86세 되던 1957년에 쓴 것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적멸보궁
굵은 서체의 조화 '안정'

오 백 전
86세 쓴 거침없는 선필

"게놈시대 종교존속"

박이문 교수, '게놈과…' 세미나서 주장



"종교인은 게놈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종교가 어떻게 적응하고 올바른 규범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박이문(미국 시몬스대) 명예교수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21세기 게놈시대와 종교문화'란 논문을 통해, 종교인은 게놈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비롭기만 한 인간의 인체조차 완전한 물질적 조작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게놈 프로젝트는 '과학적 기적'으로 종교인에게 전통적인 믿음과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인은 자신의 가치와 행위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 교수는 '게놈시대에도 종교는 존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유전자 공학을 비롯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의식하는 인간으로서 종교적 감정과 행위는 사라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게놈은 인간의 어떤 측면의 서술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 그 자체를 완전히 서술해주는 것이 아니다"며 "종교는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우주의 형이상학적 존재를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즉, 게놈 프로젝트를 유물론적 세계관의 입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물질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는 '게놈과 인간복제의 문제'에서 "종교인이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게놈 프로젝트와 관도라의 상자'에서 "종교·심리·사회학자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백련불교아카데미

성철선사상연구원은 11월 4일 오후 2시 제17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문화비평가 이도흠(한양대 강사) 박사는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송진현(서울교육대 강사) 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02)744-1541

한국불교학 26호 발간

한국불교학회는 춘계학술발표논문을 모은 〈한국불교학〉 제26호를 발간했다. '불교교학' '선학'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등 3장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지에는 '니시타니 케이지의 불교적 허무주의'(이찬수), '〈화엄경소〉와 주역의 감응(感應) 사상 비교'(차차석) 등 총 2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02)2260-3121

이기영 박사 추모법회

한국불교연구원은 5일 오전 11시 연구원 법당에서 불연 이기영 박사 4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와 불연전집 출판기념회를 가진다. 이번 4주기에는 불연전집 제25권인 〈유마경 강의〉를 봉정한다. (02)3411-6167~8



◇능가사 대웅전 공포의 부재.

고흥 능가사 대웅전 보물지정

전남 고흥 능가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된다. 능가사 대웅전은 능가사사적비(楞伽寺事蹟碑)와 건물에 사용된 기와 명문 등으로 볼 때 18세기 중엽에 중건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57평 규모다. 또한 "대웅전 처마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는 공포의 부재(안초공·按草工)에 연꽃봉오리 등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전남 남해안 지역 사찰건축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로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학술적 가치가 높다.

"북한 개성박물관 근처에 불상 묻혀있다"

진홍섭 당시 박물관장 증언

50년간 땅속에 묻혀있는 불상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한국전쟁 때 민천사(敏天寺·고려) 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 10여 점을 개성박물관 근처에 묻어놓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권(민주당) 의원은 "당시 개성박물관장을 지낸 원로 미술학자 진홍섭(82·전 문화재위원장) 박사가 중공군 참전으로 급하게 피난하게 되자 박물관 근처 마을 주민 2명, 수위 1명과 함께 문화재들을 묻고 훗날을 기약했다"고 밝혔다.

민천사는 개성시내에 있던 고려 왕실의 원찰이다. 고려 충렬왕 3년에 수녕궁을 절로 바꿀 것을 명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되지 않았고 32년 뒤인 1309년 충선왕 1년에 민천사로 바뀌었다. 민천사는 승려와 속인 300여명을 모아 금자대장경을 두 차례나 사경(寫經)하고, 5백여 명의 장정을 뽑아 불상을 주조해 봉안할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다. 해방 당시에 이미 민가가 들어찬 주택지였고 용머리돌과 불상이 출토됐을 뿐 복원은 불가능했다.

진 박사는 "최근에 남북 관계가 바뀌었으니 내가 그곳에 다시 가서 옛 기억을 더듬어 이 문화재를 파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화재를 묻었던 4명중 진 박사만이 유일한 생존자이다.

1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결혼식 주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 설산 스님의 인간적인 따스함



설산스님 에세이

알몸

떳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 스님의 구도 에세이

· 영혼결혼식, 그 질긴 인연의 끈
· 여배우의 젖가슴에 써 내려간 반야심경
· 스님의 약혼식
· 한 영혼과 대면하다
·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 내가 체험한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
· 영혼은 반드시 있다
· 나의 죄는 내가 전생에서 빌어 온 것이다

★ KBS 아침마당 목요초대석 출연

오늘밤 나는 알몸이 되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의 시린 가슴을 받아주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등불이 되고 싶다

*Home Page address:http://www.seolsan.com / *저자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Tel:303-0024) ♠무료 영혼결혼식에 관련된 문의를 받습니다.

대표전화 586-0477
팩시밀리 586-0478
도서출판 정어리 삐삐

"28대 佛祖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⑤

(4)왕궁으로 돌아오다

보리다라는 막의의 전송을 받으며 산문(山門)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주변의 풍광(風光)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한껏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것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흐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드디어 산문 앞에 이르렀다. 보리다라는 걸음을 멈추고 막의 쪽으로 몸을 돌렸다.

"사매, 이쯤에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막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리다라의 마음 속 호수에도 소용돌이가 일었다. 그러나 그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웃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러나 막의의 눈가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보리다라는 배낭에서 한 조각 비단 천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귀중한 물건을 다루듯 두손으로 살며시 접었다. 그녀의 물기 어린 눈이 어느덧 미소로 반짝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조금만 더 바래다 드릴게요. 조금만 더…."

그러나 보리다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형!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함께 공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리다라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사매, 인생에서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은 커다란 고통이지…. 하지만 이것은 느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 그리고 속세란 그렇게 미련을 둘만한 곳이 못돼…. 만일 내가 언젠가 출가하여 중이 된다면…."

막의는 성급하게 말을 막았다.

"사형!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엇이 아쉬워 늘 출가하여 스님이 될 생각을 하는지…."

보리다라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사매, 그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이야. 불조 석가모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이미 27대나 내려왔어…. 부처께서 전하신 경(經)율(律)논(論)의 삼장(三藏)은 일찍부터 존숭되어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천축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 한데 내가 생각하기론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을 모르고는 불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지. 내가 공(空)해지면 일체의 번뇌가 공해지고 법(法)이 공해지면 일체의 장애가 모두 없어지는 법이지."

"그러면 사형께서는…."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유아(有我)로부터 무아(無我)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그는 권력을 다투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패하고 음탕한 삶을 영위하지도 않게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의 길이라고 믿어."

"사형, 그럼 출가 결심은…?"

"그래!"

보리다라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나의 정신과 육체로 체찰(體察)하고 닦으려고 결심했어. 천축의 제27대에 이은 제28대 불조(佛祖)!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

"예엣?"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有我로부터 無我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막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의 마음엔 가벼운 진동이 왔다. 그녀는 그의 마음과 성격을 알만치 안다고 자부한 터였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굳혔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셈이다. 그녀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갑자기 절벽 앞에 서 있는 듯 느껴졌다. 그래도 침묵을 깬 것은 막의였다.

"사형!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보리다라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막의를 그윽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곤 가볍게 미소지었다. 그는 다시 만날 수 있다거나, 만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직 미지수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막의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마음의 고통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재회(再會)의 불음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이 담담하게 미소짓는 그의 태도에 그녀는 새삼 놀라움을 느꼈다. 놀라움은 순간적으로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보리다라의 손을 꼬옥 잡았다. 수정같은 눈물이 소리없이 보리다라의 손등 위에 떨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떼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보리다라가 막의의 손을 떼면서 말했다.

"사매도 불문에 귀의(歸依)하는 것이 좋겠어."

오랜만에 돌아온 왕궁

막의는 그 말에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소리이고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결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사매! 나를 이해해 주리라고 믿소…. 그럼, 이만!"

보리다라는 말을 마치자 산문 밖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막의는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합장했다. 마음 속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한편 또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그녀는 보리다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보리다라는 실로 오랜만에 왕궁으로 돌아왔다. 향지국 왕과 왕비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우선 보리다라를 환영하기 위한 연회를 베풀게 했다. 왕궁 안의 대소신료들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 모처럼 왕궁 안은 화기로 가득 찼다. 만나는 사람마다 눈가의 주름살을 활짝 펴고 셋째 왕자의 덕을 기리느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보리다라는 특히 아버님의 마음쓰심을 알 수 있었다. 소리 없이 왕궁을 떠났던 자기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놓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보리다라는 그런 호사스런 분위기를 가장 싫어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모든 것을 꾹 참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잠시 후 부왕과 모후 그리고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를 뒤따라 여러 관료가 계속해서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연회의 자리에선 의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돌아온 셋째 왕자를 칭송하는 시와 글들이 낭독되었다. 국왕은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흡족해 했다. 그러나 보리다라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무표정했다.

왕후가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

"네가 밖에 나가 경전을 공부하고 무술을 익히고 온 것을 나도 대견하게 생각한다…. 이미 경륜도 쌓은 터에 혼신의 노력으로 수련까지 하였으니 이젠 부왕을 도와야 할 게 아니냐…. 백성을 제도하고 나라를 편안케 하는 일처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느냐?"

왕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나는 앞으로 정사(政事)를 너희 형제들에게 분담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야, 주저할 것 없이 짐과 모후 그리고 두 형들 앞에서 솔직하게 너의 생각을 말해 보거라."

단향목 침대엔 비단 이불이

부왕의 말을 받아 첫째 왕자 월정다라(月淨多羅)와 둘째 왕자 공덕다라(功德多羅)가 이구동성으로 보리다라를 재촉했다.

"아우야, 우리도 네가 학문이 깊고 무술의 경지도 높다는 것을 잘 안다. 치국안민(治國安民)의 도(道)에 대해서도 너는 분명 많은 방책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어서 아버님께 말씀드려라."

보리다라는 자세를 바로하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들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도를 어찌 제가 감히 못 들은 척 하겠습니까? 제가 침묵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젠데?"

국왕과 왕후가 동시에 물었다.

"저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게 고작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모퉁이의 행복일 뿐입니다. 나라란 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 밖에도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천축 이외의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국왕은 보리다라의 대답에 다소 엉뚱함을 느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네가 사회의 부패상과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비분과 불만을 갖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냐. 현실을 마주쳐 보면 알 것이다."

"아버님!"

보리다라는 부왕에게 그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님을 말하려고 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널리 중생을 구하고 만백성을 제도하려는 결심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왕은 마치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알고 있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래, 그래.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린 후에는 당연히 다른 나라까지 세를 넓혀 그쪽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고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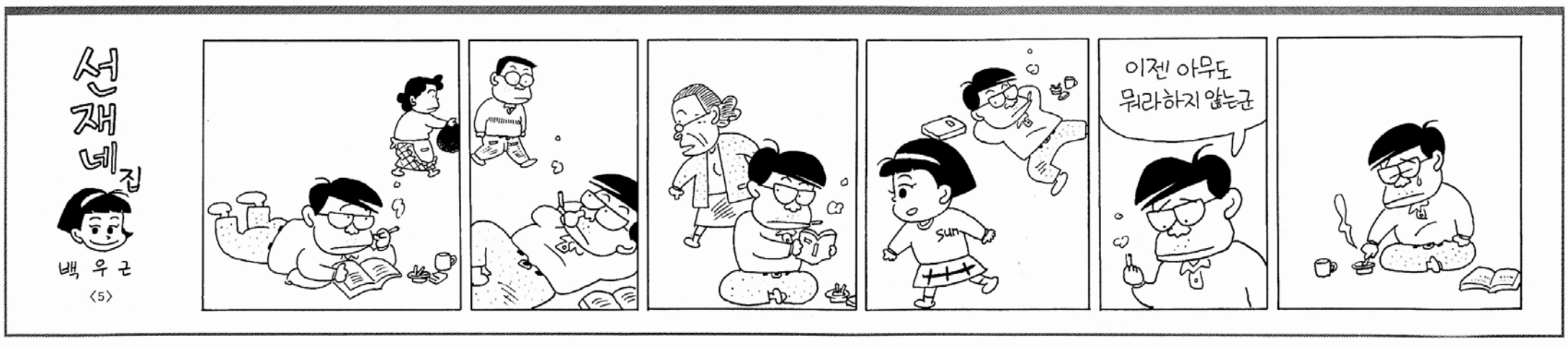
국왕의 이 멎 마디는 보리다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부왕이 자기의 말을 그토록 잘못 이해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도를 벗어나 남의 나라로 십만 팔천 리를 넓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고작 죄를 짓는 일에 불과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부왕의 말을 되받아 확실하게 진정한 도와 법의 길을 천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지금의 상황에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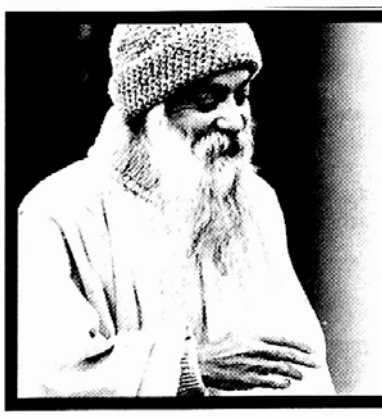
"됐어, 됐어!"

국왕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오늘은 셋째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모임이니 더 이상 국사와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연회를 시작하라!"

연회가 전행되는 동안 보리다라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부왕과 모후 그리고 두 형들이 연회장을 떠난 다음 그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동(侍童)들에 둘러싸여 거실로 돌아왔다. 실내의 은촛대엔 이미 환하게 불이 밝혀 있었다. 한쪽 구석의 책상엔 예전에 놓아 둔 대로 경서가 겹겹이 쌓여 있고 문방사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 꽃으로 수놓은 단향목 침대에선 비단이불이 담박한 향기를 풍겼다.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때 우주가 열린다.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그 변화만이 영원하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참선하면 마음 차분해져요"

사찰·단체 '고3 수능법회' 잇달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두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5일이면 고3 수험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시험대에 서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모와 수험생 모두가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기 마련인 요즘, 이들을 위한 기원 법회와 프로그램이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열리고 있어 긴장된 마음을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이 10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학부모를 위한 수능 특강'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화곡고 이석록 교사는 "시험이 끝나면 당일 실력 발휘가 안돼 평소 실력보다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심리적인 불안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제 컨디션을 유지하며 집중력을 극대화 하면 알 듯 모를 듯한 문제까지 맞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시험전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이 교사는 또 "수험생들에게 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좋다"며 "수험생이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일 경우 108배와 참선 등으로 정신 집중 훈련을 함께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사 학부모 특강 열어
우리는선우 합격기도회

우리는선우도 15일까지 선우법당에서 대학생 회원들과 고3 수험생들이 함께 하는 '수능 합격 기원 기도법회'를 열고있다. 이번 법회에서는 선배 대학생 회원들이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수능 시험전 경험담을 들려 주며 시험전까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02)2278-8672

디지털 청소년열린상담실에서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과 진로문제에 대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http//help1318.gazio.com) 이외에도 종립학교인 광동여고는 13일 오전 11시 교내 법당에서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수험생들에게 엿과 떡을 나눠주며 격려해 주는 '수능 합격기원 법회'를 개최한다.(031)873-3972

한편 수능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수험생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찰음식연구가 김연식씨는 "아침 식사를 거르면 오전시간대에 집중력과 학습효과가 떨어지므로 위에 부담이 안가는 야채죽이나 잣죽, 호박죽 등을 먹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전뇌 학습 연구소 김용진 박사는 "스트레스를 이기는데는 복식호흡이 효과적"이라며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두 무릎을 세워 한 손을 배꼽 위에 얹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입술을 조금 벌려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라고 권한다. 또 마인드 플라자 최창호 박사는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자야 학습능력이나 수업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충분한 수면을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10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학부모를 위한 수능 특강'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이석록 교사의 수험정보 강의에 열중하고 있다.

주부 신행담

마음닦기 ①

나는 '금강경독송회'를 통해 마음닦는 공부를 시작한 지 8개월째 되는 두 아이를 둔 엄마다. 힘든 고비가 있을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했던 독경이 이제는 하루 일과가 됐다. 지금은 독경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올 정도다. 매일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항상 부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불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내 인생에도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또 절망적인 삶속에서 방황할 때 독경을 통해 생겨나는 힘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됐다.

이렇게 마음 닦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어깨에 무거운 쇳덩이를 올려 놓고 다니는 것처럼 삶의 무게가 무거웠다. 왜냐하면 현재 큰아이가 11살이고 작은 아이가 9살인데, 남편은 아빠를 알아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시어른들을 설득했다.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 아이와 주위 분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걸까. 앞으로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등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져 왔다.

1개월도 채 안된 아이를 들쳐 업고 부산과 서울로 번갈아 가며 미친듯이 뛰어 다녔다. 병원에 가서도 수유를 할 때에는 주사기를 사용해야만 했다. 또 부산에 가면 특수 제작된 젖병을 판다는 소리를 듣고 수소문 해 찾아가는 등 아이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픈 아이에게만 신경쓰다 보니까 좋았던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 지기 시작했다.



그림 · 이준석

"장애아 낳은게 나만의 잘못인가"

큰 아이는 시부모님과 주위 어른들의 축복속에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둘째아이는 낳을 때부터 선천성 구개파열이었기 때문에 우유병이나 젖을 빨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12시간 동안 굶긴 후에 아이가 배고파 울면 다시 한번 우윳병을 빨게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 말을 듣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내 아이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다니…". 남편과 시부모님도 꿈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우유를 주지 못하니 당연히 아이는 배가 고파서 계속 울기만 했다. 또 병원측에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자는 말만 되풀이 해 중간에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의사 선생님은 만일의 경우 아이의 입에 튜브를 끼워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안 시부모님께서는 심지어 아이를 포기하라고 까지 할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싸움이 잦아지면서 서로 욕을 하고 화가나면 집기를 집어 던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때부터 남편은 안피우던 담배까지 피는 등 점점 가정은 나락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 하루는 수유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불렀지만, 아이에게 정신을 다 쏟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에게 귀가 먹었냐며 아이도 똑바로 못 낳는 주제에 왜 사람말하는데 대꾸조차 없느냐고 버럭 화를 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나의 가슴에 꽂혀 큰 상처로 남았다.

"장애 아이를 낳은게 나 혼자만의 잘못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도 같이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며 화를 내자 남편이 내쪽으로 분유통을 집어 던졌다. 피할 겨를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금새 아이의 얼굴과 내 머리는 온통 분유 가루로 뒤범벅이 됐다. 〈계속〉

이경순(포항시 남구 지곡동)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③



■ 손과 두뇌

점자책을 읽을 때의 손은 '눈'이다. 수화 즉 손으로 대화를 나눌 때의 손은 '입'이다. 이처럼 손은 전방위적 감각 기관이다.

보통의 경우에도 느낌은 촉감 즉 손에 의해 완성된다. 흔히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팻말 '손 대지 마시오'는 보고 듣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그대로 드러낸다.



손이 없다면 인간의 두뇌활동 또한 무의미하다. 손이 없다면, 두뇌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릿속 생각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그래서 손은 '외부의 두뇌'라는 말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은 단순히 두뇌의 명령 수행 기관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 반대로 손의 활동이 뇌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는 것이다.

흔히 IQ라고 말하는 지능지수는 왼쪽 뇌와, EQ 즉 감성지수는 오른쪽 뇌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가, 왼손잡이는 오른쪽 뇌가 우세하다고 한다. 이를 극히 단순화시켜 오른손잡이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왼손잡이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 양쪽 뇌의 발달 정도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오른손잡이 논리적 사고
EQ발달 왼손잡이 많아

오른손잡이에 비해 왼손잡이의 좌·우뇌의 능력 편차가 더 작다고 한다. 한 예로, 오른손잡이의 언어능력은 왼쪽 뇌에 편중되어 있지만 왼손잡이는 양쪽 뇌에 모두 있다고 한다. 오른손잡이의 왼손 사용 빈도나 능력보다는 왼손잡이의 오른손 사용 빈도나 능력이 더 잦고 크기 때문일 것이다.

양손잡이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

새싹불자 법회 지도자 키운다

조계사 '어린이교사 대학' 개교

어린이 법회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교육 기관인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은 10월 24일부터 매주 화·금요일마다 조계사 제2 문화교육관에서 강의를 연다.

기본 강의와 특강 및 실습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 기초 교리, 아동 교육과 심리, 어린이법회 지도의 실제, 어린이 성교육 등 5개 과목을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교육한다. 특히 이론 중심의 칠판식 강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성훈(선재이벤트 실장), 이종만(좋은벗 풍경소리), 황학현(불교교육연구원 원장)씨 등 어린이 포교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비롯해 3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주제로 한 엄태호 교사(광신고)의 강의와 동대사대부중 우인보 교법사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 실습' 특강 등이 열렸다.



◇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 입제식' 장면.

대거 초빙해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은 기본 강의와 교육 수련회, 출석관리 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학칙을 만들어 엄격한 학사관리로 양질의 어린이 지도자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총 교육기간은 6개월이며 4일까지는 접수 가능하다. (02)720-7060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서불청 대부도 자원봉사

서울불교청년회는 12일 대부도 자현사에 있는 '둥지 청소년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이번 봉사에서는 청년회 회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펼친다. (02)730-9108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 발대

과라미타 청소년협회는 10월 21일 동국대 K관 세미나실에서 '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회장 지홍 스님을

청교련 양로원 봉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5일 시흥 혜명양로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의미와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양로원 실내 청소 및 세탁, 레크리에이션, 사물놀이, 노래 자랑 등이 열린다. (02)735-8165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大·小)


산사의 향기(大·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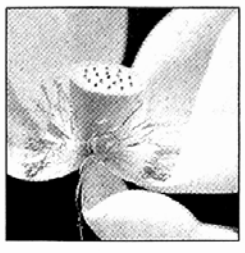

연화의 세계(大·小)


탑이 있는 풍경(大·小)


산사의 꽃향기(大)


신비의 달마도(小)


석 굴 암(小)


백 련(小)


북한의 사찰(小)


선의 세계(小)


금강산의 사계(小)



■ 사진 : 안 장 헌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접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 대(30×31cm) 국6절, 가격 : 1,600원
소(26×26.5cm) 사륙12절, 가격 : 1,400원
■ 매 수 :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 100부 이상
■ 미니 차걸이 달력은 200부 이상

8절 대지 마닐라(14매)



◈ 종 류 ◈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홍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묘향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산사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미니 차걸이 달력 ➡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자기 근본 자꾸 두드려야 '참나' 찾아



그림 · 최주현

내가 모든걸 다한다는 생각않고
근본의 심부름꾼인 것을 알아
그 역할 충실히 해야 참 수행자

재물 · 사랑 · 명예도 같은 이치죠

참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문 일전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쭈었던 사람인데, 요즘은 예전보다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간절합니다. '나'가 없다면 이렇게 딱 벌어진 일체경계가 무의미하다는 스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렇게 딱 벌어진 모든 상황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슬그머니 한번 빼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가던 세상이 금방이라도 멎고 '있는 그대로'가 되어버립니다. 일견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태 내가 지녀오던 습, 업들이 모두 녹아 내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생활의 변화를 느낍니다. 계속해서 정진하고 싶습니다.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청합니다.

답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부해나가는 과정에 계단 없는 계단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색이라고 했으니, 나와 더불어 모든 게, 일체 처(處)가 다 공했습니다. 삼세심이 다 공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 저것 바깥에서 구함이 없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을 내 안의 근본에 맡겨놓고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觀)해야 됩니다. 편안해졌을 때,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증명해." "당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해서 편안해졌다고 한다면, 편안한 것이 공부라면 영 발전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서 편안하다고 그것에 그냥 머물러서 "아, 이만하면 족한 것을…." 한다면 그걸로만 그냥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내 안의 내 대답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때는 앞서의 그 습을 다 놨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계는 '무조건 다 놔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본을 바깥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 안으로 자꾸 밀치고 들어가야 알려고 하는 동안에 자기가 오히려 밝아지게끔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고자 자꾸 문을 두드리다 보면, 문은 두드려야 열리지 두드리지 않는 문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가만 놔두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주야장천 일하면서도 그냥 그 마음을 한 번 꽝 치고선 또 일하고, 잊고서 가다가 생각나면 또 한 번 꽝 치고 일을 하고, 이래야 그 문이 나중엔 부서지든지 그냥 열어지든지 어떻게 되지, 가만히 둔다면 영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이 공부를 지극하게 해서 이 생에 벗어나십시오. 세세생생을 전전긍긍하며 이리 저리 끄달리며 살게 된다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한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문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살아왔던 나날을 되돌아 볼 때, 저의 젊음과 노고를 다 바쳐서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식들에게 귀찮은 대상이 되고 보니 이날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보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평생 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항상 들어왔었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상 자식들을 의지하고 원망하게 되는 제 모습에 저 자신도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스님, 어떻게 자식들을 바라봐야 할지요? 크나큰 가르침 바랍니다.

답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고 가는 가를 살펴보면, 어려서 공부할 때는 부모의 말을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 것도 보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인간답게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공부하는 데만 쭉 몰입을 하다가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공부를 다 터득했다 하더라도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인가 하는 것을 사회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공부합니다. 자기가 전자에 공부했던 것을 바탕 삼아서, 그것을 잘 하려니까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허둥지둥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이 생겼고, 자식이 생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자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지간도 서로 믿고 살다 보니 늙어서 오십이 넘다 보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아하, 나를 받쳤던 서까래가 하나 둘 빠져 달아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 둘 다 빠져서 나중에는 우두커니 그냥 자기 기둥만 서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홀연히 생각을 하니까, '아하, 내가 빈손 들고 나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이 마당에 이 기둥 하나 서있는 거마저도 쇠퇴해 가는구나' 하고 이제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게 준비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도리를 모르니까,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를 내가 어떻게 낳아서 기르고,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너희들은 너희 살 궁리만 하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말거나 하는구나" 하고선 아주 노여워하고 노발대발하고 자식이지만 그냥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세상살이가 다 그러한 거지, 본래 그러한 거 아닌가? 저 자식들이 나이기 때문에,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섭섭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구나' 이러고서 그냥 홀연히 그런 생각을 다 내려 놓으면서 정말 여여하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게 우리가 마음 한번 먹기에 달린 건데, 나 괴롭고 자식들 괴롭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식들은 바로 내 씨가 내 나무를 만든 것이고, 내 나무에서 또 씨를 만들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인 것입니다. 부모도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아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홀연히 가벼운 것입니다.

'야! 그래, 네가 속 안 썩이고 잘 살고, 네가 잘 하고 사는 것이 바로 나한테 갚는 것이구나. 나한테 갚을 것도 없다. 네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잘하고 살아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싸우고 적이 되고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다보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복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남한테 의존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지만 의존하는 마음이 더욱 더 없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의존하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게 비틀어지고, 모든 게 속상하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고, 나를 박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비참하게 힘이 더 줄어들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현명하게 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대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자식도 모두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마시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몰록 던져 모두 건지고 싶어요

문 제 삶을 제가 스스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공부를 하면서 무엇인지 모를 답답함이 자주 느껴집니다. 관하면서 저는 완전히 빠져야 합니까? 주인공과 나가 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빠져야 하는지요? 주인공에 모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아직 충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몰록 던져서 다 건지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우리가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몰록 맡겨 놓아야지, 맡겼다고 하면서 도로 쥐고 나오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자리에 맡겼다가 다시 그걸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건 맡겼던 서류를 도로 들고 나오는 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일이 처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시 들고 나와요. 그리고는 안되느니 되느니 하고 야단이죠. 왜 맡겼는데도 안되느냐고 하면서요. 잘 맡겼으면 그럴리가 있겠어요? 못 맡겼으니깐 그렇죠. 못 믿으니까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또 "뭘 어떻게 다 놓으래? 사랑도 돈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살라고?"하는데 그렇게 미거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사랑도 돈도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누가 사랑을 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래나요? 하되,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라 자기 거다 이겁니다. 이 말뜻을 알아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주인의 시봉자로서 올바르게 함으로써 시봉자는 주인에게 "차가 고장났으면 올바로 고쳐서 끌고 다녀라!" 하고 그렇게 관하라이 소립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수가 없어도 아니 되고, 차가 없어도 안되죠. 기름이 없어도 안되죠? 어느 거 하나 없어서는 안 되니까 생명이 없어도 안되고, 분별이 없어도 안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되지만 육신이 없어도 안됩니다. 그러니 세 개중에 어떤 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높은 게 하나도 없어요. 통틀어서 그냥 일심입니다. 일심이 들고 나는데 삼세심이 그냥 들고 납니다. 삼세심이 일심이요, 일심이 삼세심이라. 과거심도 미래심도 현재심도 그냥 일심입니다, 통 틀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버려라, 놓아라 하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시주를 하거나 이웃에 몽땅 다 나누어 주라는 뜻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마거사도 대부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부처님과 다름없는 대스승이었고, 부자이면서도 대선지식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재산을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치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으로 비유를 하지만, 돈이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쑥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 흐름을 관찰하고 관리하기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관리자일 뿐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줄 곳에 주고 받을 곳에서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근본의 심부름꾼이고 시봉자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소유하려고 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사랑과 명예와, 세상 모든 것이 그 이치는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내가 한다, 내 것이다, 내 식구다, 내 자식이다, 하고 그렇게 집착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공의 식구다, 주인공의 자식이다, 주인공의 심부름을 할 뿐이다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이 더욱 넉넉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빚은 죽은 뒤도 갚아야 합니까

문 스님, 저는 경찰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IMF이후 부도를 당해 자살을 했던 사람에 관련된 수사를 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부도가 나서 돈을 갚지 못해 악독한 사채업자에게 쫓겨다니다가 끝내 자살을 하신 분이었는데, 만약에 전생에 금전적인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 빚이 탕감이 되지를 않았다면, 다음 생에라도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듯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다가오고 흘러가는 것이라면 저와 인연된 모든 이들 중 어떤 분은 선의 인연으로도 왔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악의 인연으로도 왔을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을 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악의 인연과 선의 인연 양편을 다 놓고 맡기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리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런 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빚을 진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이 응쫄하고 큰 것만 생각하지 조그만 건 생각도 안하고, 밥이나마 제대로 먹으려고 애쓰지 않고 장사를 한다고 돈을 뭉텅 얻어서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보니깐 빚쟁이는 빚쟁이대로 빚을 갚으라고 어떻게나 졸라대든지 도대체 살수가 없더랍니다. 오막살이 집 한 채마저 문서를 내놓으라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식들을 거리로 나앉게 할 수가 없어서, 잘못은 자기에게 있지마는 자기도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물에 빠져 죽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빚을 준 사람한테는 자식이 없었더랍니다. 그 반면에 부인은 너무나 착하고 아름답고 마음씨가 좋았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너무나 빡빡하고 돈만 알고, 빚을 받으러 다니면서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얼마나 다그쳤든지 그만 빠져죽은 거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모을 때는 그렇게 구석에 몰린 마음으로 아주 피 한방울 안 나오고 물 한 방울 안 나오게끔 해야 돈을 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 모으는 것도 순리적으로 버는 거하고, 말하자면 한 되를 꾸어줬으면 두 되를 받으려 하고 세 되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이자 받은 데서 또 이자가 붙어 돌아가서 나중에는 큰 돈이 돼가지고 그걸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자 받고 그러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런 옴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 부인이 꿈을 꾸니까, 물에 빠져죽은 빚진 사람이 턱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빚을 갚지 못하고 죽어서 이걸로 라도 갚노라' 고 하면서 큰 잉어 한마리를 잡아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잉어를 받았는데 그 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어린애를 낳았습니다. 그 집에 자식이 없다가 아이가 태어났으니 뭐 그냥 야단법석이 난 거죠. 그런데 바로 빚을 지고 죽은 분이 인연에 따라서 그 집 자식이 된 겁니다. 아들로 태어나 자라는데 늘 아버지하고는 앙숙이라, 뭐가 앙숙이냐 하면 만날 돈을 달라고 해서는 나가서 다 쓰고 가방은 내던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니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그냥 뭐 달라는 대로 주고 키웠는데 자라면서 점점 더 극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훔쳐다가 쓰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고 나니까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망나니로 굴던 아들이 어머니한테는 효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더랍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기서 살다가 조기다 옮겨놔도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우리 집으로 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는 잘하는가? 그 어머니는 고약한 분이 아니라 참 마음씨가 아름답고 정직해서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애석해 생각하고, 그 집이 빚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소릴 듣고 항상 마음에 걸려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네 이웃이든 좀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은, 남편이 죽고 나서는 자기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저절로 착해지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순리적으로 돈도 잘 벌고, 내다 없애지도 않고 하니까 동네에서 "야,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모질게 하더니 그 사람 죽고 나서 저 아들 멈춘 것 좀 봐, 그 아버지가 벌을 받아서 그래" 하고 말을 하면서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오지도 않더래요. 얼마나 모질게 했던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모두 보고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에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식은 어디서 저런 원수덩어리가 태어나가지고…"이러거든요. 자기가 원수덩어리를 만들어 놨기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둘로 보지 말고 주인공에 놓고 살라

☞ 19면에서 계속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망나니짓을 하더니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는 어머니 속을 안 썩이고 잘하겠습니까? 늘 어머니 팔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제가 속 많이 썩혀 드렸죠?"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연이라.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이걸 거짓으로 알지 마십시오. 생활 속에서 지금 허다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마음을 인의롭게 쓰고 착하게 쓰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항상 인내하고 자비가 있고 지혜롭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런 악한 인연도 짓지 않고 선한 인연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맡겨놓고서 살아나가는 반면에 스스로 언제나 질서와 계율을 지키면서 스스로 지혜를 넓혀가면서 악의 인연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의 인연으로서, 주고받는 불빛처럼 항상 밝아서 살게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밝은 마음으로 언제나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불빛에 의해서 밝게 살 수 있는 인연을 끼리끼리 만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둘로 보지 말고 또 아무리 악한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속으로 탄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것도 내 인연에 따라서 왔으니 내 탓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다' 고 생각하시면서 한생각 돌려서 거기에 맡겨놓도록 하십시오. 그 모두가 인연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해놓고 지속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종문서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살던 습의 종문서를, 모든 걸 태워버리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 하나하나 녹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외모가 변하면 마음이 바뀔까요

문 성형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눈 위에는 지방질이 많아서 그것이 꼭 제 아집덩어리인양 불만입니다. 수술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망설여지는 이유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고 용기가 나질 않아요.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기는 합니다만 지방질을 제거하고 나면 인상이 부드러워질 것 같고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스님, 마음이 변하면 외모가 바뀔까요. 외모가 변하면 마음이 바뀔까요. 사십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도 아직 외모에 끄달리고 있는 중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마음이 진화되니까 몸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인간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물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한마음 주인공에 놓고 사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나"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몸이고, 둘째는 마음, 셋째는 마음 내기 이전의 무엇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무엇이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동차에 비교해 보면 차체와 같습니다.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가 버리면 몸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몸은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몸이 차체라면 마음은 그 차체를 움직이는 주인 즉 운전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몸은 목석입니다. 그렇다면 몸 없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네. 시자(侍者)네 하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선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합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해매기도 합니다. 마음은 참으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의 마음은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는 다른 면에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그 이전을 말하게 됩니다. 생명력 자체라고나 할까요. 근본이 있습니다. 차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 차와 운전사를 모두 있게 한 근원적인 그 어떤 원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있습니다. 주인공이란 말하자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셋을 모두 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셋이 각각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각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주인공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곽차서 돌아가기 때문에 공(空)이라고 말합니다. 공이란 텅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곽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습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있게 한 참 마음을 믿고 관해야 합니다. 물론 수술을 한다면 당장 보이는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 인연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니 그것이 단순히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의 그림도 각자 자기가 다 그려서 나왔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도습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빠져서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일부러 아주 험악하게 모습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으로 겸손하고 인자하게 할 수 있는 재료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생활해 간다면 그 마음의 향기는 온 누리에 가득 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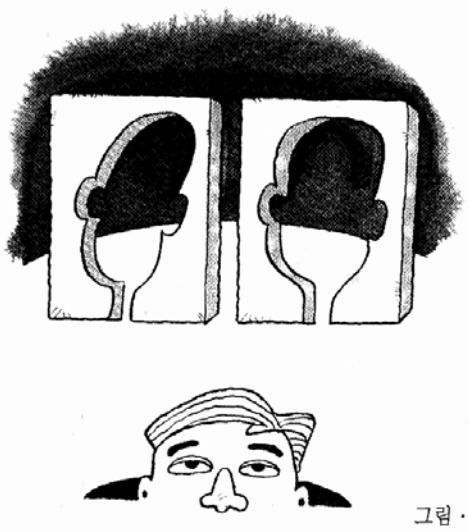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을 항상 인의롭고 착하게 쓰고 상대 입장 생각해 보는 여유 갖도록

일요일마다 선원가야 하나요

문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같이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하라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제발 이 아들을 믿고 한번 맡겨놔 줬으면 좋겠어요. 스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요즘 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너무 불만이 많이 생겨서 어머니와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 선원에는 일요일마다 꼭 가야만 하나요? 그것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너도 법회에 오니까 관할 줄 알지? 중학생이라니까 내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관하라고 하냐면, 네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네가 태어났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네가 잉태됐지만,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올 때는 네가 너의 생명력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란다. 네가 원소를 가지고 들어가야 태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지금 모습은 현재니고 또 모습 없는 정신계는 과거 너라고 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현재 너는 과거 너를 믿고 안되는 게 있으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관하고, 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너 뿐이야' 하고 그렇게 관해.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너만이 공부를 제대로 잘 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관해.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지 않게,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너뿐이라고 그렇고 하고 말이야. 과거 친구와 현재 너가 아주 단짝이 돼야 돼, 알았지?

그래야 네가 한평생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도 걸림이 없고 남한테 속임이 없이 살 수가 있어. 너도 생각하겠지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들쑥날쑥하니. 그러니까 조심해서 항상 관하고 살아야 해. 네 친구가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너한테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게 자불이야, 자불. 네 주장자이기도 하고, 얼른 쉽게 말해서 에너지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이다.

그래서 네 엄마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왜 주인공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믿고 맡기기 때문에 주인공이에요. 엄마들이 보기에는 자기 자식들이 다 건성으로 노는 것 같지만 다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 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요. 하지 않아도 어깨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좀 쉬기라도 하라고 해주고, 또 그렇게 먹어라 쉬어라 하는 것도 자꾸 그러면 귀찮은 겁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소리지만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지나치면 그게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니 다 각자 주처는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 주처에, 주인공에 믿고 맡기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일요일날 부득이해서 선원에 못 올 때는 꼭 안 나와도 돼, 그건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걸 해야지, 그러나 못 나올 때는 관해. '주인공' 이렇게 부르는 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과거 원소 자기를 부르는 소리야. 그래서 주인공, 절에 못 나가도 여기서 잘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그러나 올 수 있는데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왜냐하면 네가 꼭 이 마음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진전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원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법당에 부처님이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그냥 계시는 게 아니란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게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관하면 보이지 않게 자꾸 작용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엄마 말씀도 고분고분 듣는 학생이 되도록 해. 그렇지 않은 생각이 버릇이 되면은 늘 마음도 몸도 왁닥왁닥하니까. 정 일이 있어서 선원에 못오겠거던 '어머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선원에 못 가게 됐어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하고, 또 공부도 네가 알아서 하면 아마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야.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고 해서 화가 나도 '주인공, 엄마가 저렇게 집착을 안 하시고 화나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이렇게 관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 안하고 또 나도 화 안나게끔 되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다고 주인공에 자꾸 관해.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 뭐든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있는 건 없어.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고 현재가 따로 없다는 얘기야. 이 공부하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일이 많단다. 항상 그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되기 바래.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만나자.

딸이 가출했습니다

문 25살 먹은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불이 같이 들어오게끔, 있는 곳이나 알고 싶은데 소식이나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스님 좀 가르쳐 주세요.

답 내가 항상 그럽니다. 공부를 안하고, 온통 나쁜 짓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나가서 잠을 자고 안 들어오고, 가출하고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배우는 시기에 배워야 할텐데 그렇게 어긋나지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거를 나무라지 말고 주인공에다 맡겨라 이겁니다. 그런 것은 부모가 말로 하고 때리고 가둬둔다고 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벗어날수록 입으로는 부드럽게 해주고 나가서 소식이 없다가 들어오더래도 "얘! 너 어디로 그렇게 다녔니? 배고프지 않았니? 잠은 어떻게 춥게나 자지 않았니?"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해주고, "배고픈데 어서 먹어라!" 하고서 "내가 차려주마" 하고 이렇게 좋은 부드러운 말을 따뜻하게 해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안된 거 잘못된 거 는 여기다 다 맡겨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음이 틀어지지 않지 "너 잘못하고 이런 거 알아. 몰라?" 그러면은요, 반발심이 생겨서 더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잘 안 고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이끌어 가지고 가는 데는 자비성이 거기에 깃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는데 무슨 자비야?" 이러겠죠. 그러나 거기다 다 맡기시고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고쳐지는 방법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항상 가르치면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잘못된 게 있으면 인의롭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다 맡겨 놓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뿌리를 길러주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말하고 야단치고 온통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가출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몸뚱인 안 나가도 마음이 벌써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고 이러면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고 지극하게 관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더 잘 해주세요. 마음은 따뜻한 곳으로 모이지 그렇지 않고 몸뚱이만 잡아놓으려고 하면 더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나의 근본에서만이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말고 생활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자정보

.....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구인 · 구직
(50대 조계종 비구스님)
조용한 암자 관리하여 드립니다.
(신중한 전화 부탁 함)
011)9328-666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
● 건물 : 3층, 30평
● 특징 : 부처님, 불기조성, 후불탱화
● 가액 : 천만원
031)721-1203

사찰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 대지 : 60평
● 인법당 : 20평
전 세
02)816-7104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용담댐 유원지 內
● 특징 : 자연 석굴법당 전북 제일 기도 도량
● 대지 : 종교용지 500평, 전 60평
● 건물 : 목조기와 25평 50여대 주차 가능
● 가액 : 2억
011)9646-5808

좋은 위치의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 : 부산 광역시 만덕 3동
● 면적 : 3층 40평(옥상 사용 가)
● 시설 : 법당, 주방, 대방, 중방, 화장실
051)333-0172

20년동안 명리학을 연구한 비구승입니다.
인연있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1)879-321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4거리(한빛은행맞은편)
● 평수 :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천만원
● 특징 : 시설 A급 위치 최고(법당 시설 일체, 방 3개) 후불탱화 53부처님, 관세음 보살, 칠성 탱화, 문수보살, 지장전
053)565-0430 / 016-875-0934

토굴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동면 조일리 보삼마을
● 평수 : 145평, 옛집 2채
● 가액 : 절충 가능
051)508-6779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법당 12평, 요사, 방 2개, 주방, 마당 50평
● 특징 : 40년된 절
● 가액 : 4.0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02)853-8612/856-3405

사리함(石)
● 크기 : 38×22Cm
● 연대 : 신라시대
● 사리 : 38과
토굴 불사에 조금 도와 주시면 진귀한 보물을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사진 우송해드립니다.
(053) 985-4675 017-511-4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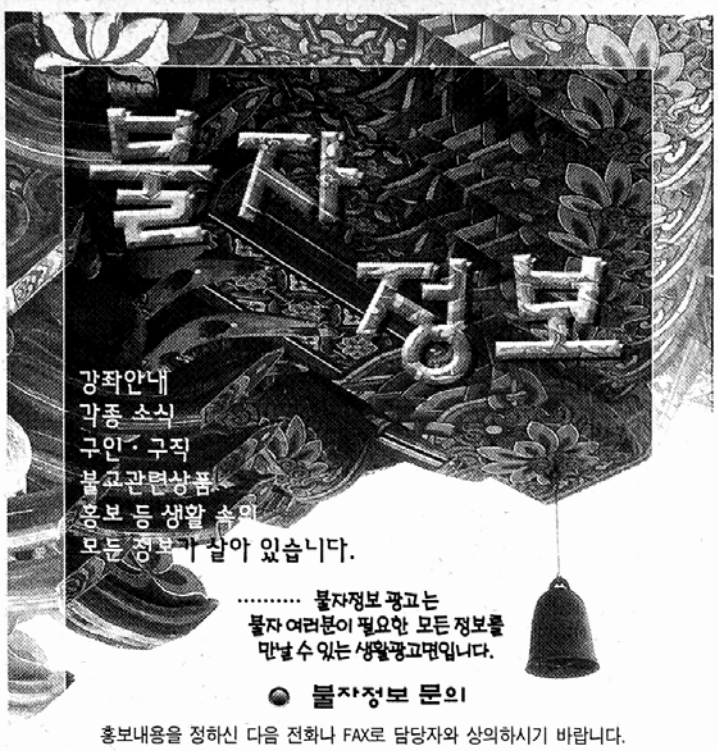
부전 스님 구합니다.
◆ 50세 이하 ◆
051)508-6779
051)508-5165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중고 태호동 오일시장 대로변 동강병원 2분거리
● 구조 : 2층 건물 2층 30평(법당, 방 2개) 비구니, 무속인, 절확하시는 스님 적합
● 시설 : 아미타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절충
011)874-4567

포교원 안내
● 위 치 : 2호선 서울대 지하철 부근
● 평 수 : 23평
● 구 조 : 4층 건물에 4층
● 특 징 : 석가 3존불 봉안 집기 일체
● 보증금 : 700만원 월 58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352-0269
02)877-435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최 요지
● 坪 : 250평 이상 建 : 120평 이상
● 법당 : 50평 포교당 최 적지
● 가액 : 답사후 결정 부산시내 사찰허가 있음
● 坪 : 1,300 평당 50만원
051)208-1122
011)874-8122

사찰 안내
● 위치 : 삼척시 노홍면
● 부교지, 건물 : 법당 13평 1개, 큰방 3개, 작은방 2개, 부엌 2개
● 특징 : 산세좋고 계곡이 좋고 경치 좋음. 마을과 200m떨어진 곳
● 가액 : 500만원 (하실분만 연락바람)
033)574-1358



●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전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보이산차
벅돌전차, 육보차
칠자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도매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월~금 주5일)
• 강사 : 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 창 본
011) 545-7252 처 사

수맥(水脈)강의 안내
•과정:기초부터 강의 •강사:유준혁(수맥전문가)
•과목:수맥 양택 음택(수강료:6개월 5만원)
•시간: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
•본회연혁:1993년 국내 최초로 설립
2000년 9월 현재 3,500여명 수강
•위치:지하철7호선 상도역 1번 출구-30m
직전 기아 자동차 옆 순천향회 세종수맥학회
수맥, 온천탐사, 양택,음택 길흉 감정
문의:02)817-9996

명예인 성공인 승진인 시험관인 영웅인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버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사업성공, 건강 ▶부부화합, 승진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결혼성공, 득남득녀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목벌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 주문시 팩스로 성함과 원하시는 서체를 적어보내 주시면 7일이내 우송해드립니다
FAX:983-9223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30명에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주부사원 모십니다.

모집부문	인 원	자 격
영업팀장	0명	불심있는
영 업 직	00명	보살님 환영

02)737-6334
성창 보석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불상(佛像) 시주할
인연 구합니다
▶ 사정상 못 모시는 불상 탱화
▶ 인연공덕을 지으실 분 연락 주십시오
053)985-4675
018)512-5544

함께 생활할
불자님 모십니다.
비구니 사찰입니다.
016)249-697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2)888-3393

기합격원 秘法 (우주영감을 현결)
※ 99년도 수능시험 100% 시험성적 향상!!
수능시험 7일전 특수 비방으로 처방하여 시험 성적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해드림
◎ 처방기도비 : 108,000원
성명, 생년월일, 전화 접수 후 우선 비방을 보내드림
卍지장 禪院 053)982-6778 011)812-3679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61)362-7178
061)362-8088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불교대학 설립에 뜻
있는 불보살님 구함
▷ 수암정사 ◁
스님 직통
011)9579-3330

조용한 사찰에서
같이 기도하실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11)562-5556
052)254-2427

공양주 보실님
구합니다.
▷ 소재지 : 울산 ◁
052)211-1009

도심 포교할 스님
3만여 세대가 넘는 신시가지에 위치한 시설 최상급 포교원입니다. 현재 5백여 세대가 등록되어 있고 법회가 진행중입니다. 유학관계로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보증금:삼천만원(45평)
위 치:광주 광역시
011)320-8541

탈종공고
● 사찰명 : 천일사 ● 주 지 : 최 판순
천일사 주지는 노후로 사찰운영을 할 수없어 폐사처리 됐으므로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신도 일동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10.30일

공양주
구합니다.
▷ 비암사 ◁
041)
863-0230

사찰안내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대지 : 50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동
● 가액 : 1억 3천만원
016)501-3671

사찰 부지
▷가평군 북면 백득리 산 27번지 외 두필재
임야 : 17,500평 (준농 약 12,000평)
가액 : 8억 5천만원
▷홍천군 서면 모곡 인접 임야 ; 20,800평 (준농)
가액 : 9억
▷양평 서정 명달 토임 : 도필지 630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11)380-9168/011)229-113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 본동 고강시장 입구
● 법당 : 32평3층, 삼존불, 신중, 칠성, 후불, 산신
● 즉시 법회가능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35만원
금강 선원
032)678-7464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용자 포함 매 5억 2천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2)386-6467

포교당 운영하실 분
● 가액 : 삼천만원(시설비와 세포함)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3층
● 평수 : 60평 대형 (주지실, 증무소, 후원)
● 시설 : 부처님 및 관음, 지장보살님, 나한님 세분 후불탱화 신중, 지장탱화와 바닥 3첸치스존지와 실크연등 300등 설치
● 특징 : 불교대학 1기생 수료
053)743-8835
011)540-721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읍
● 법당 요사채 2동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정각 황토방
● 전세 가능
계곡과 산세가 수려함
017)708-063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임법당 32평
● 가액 : 1억 9천
-강릉 고찰터 천평 3천만원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절충
02)481-4483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지장,관음(동불조성),후불,신중, 칠성탱화,대북,범종,(불단조각,단집)경탁,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소재
● 대 지 : 200평
● 법 당 : 25평 (목조)
● 요 사 : 35평
· 산세좋은 기도정진 도량임
· 치량진입 함
● 양도가 : 2억 8천만원
● 위 치 : 경기도 장호원 소재
● 부 지 : 1,800평
● 법 당 : 50평
● 명부전 : 50평
● 요 사 : 150평
· 넓은 주차장 있음
● 양도가 : 9억 (분할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 법당 : 28평
● 요사 : 70평
● 부지 : 8,300평
● 가액 : 6억 5천
● 위치 : 부산
● 법당 : 35평
● 요사 : 45평
● 부지 : 60평
● 가액 : 2억
● 위치 : 부산
● 법당 : 11평
● 요사 : 25평
● 부지 : 425평(국)
● 가액 : 2억8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지리산 시조암 선원
신 축 안 내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 방향 →가채마을 위
● 대지 : 422평황토방 한옥건물 2채 탑 돌레 18m 석축 기초완공 밭 348평 임야 2583평 총3,353평
● 특징 : 경관수려,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약 600고지,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8천, 전세 1억
011)9542-9060/055)963-4965

사찰 안내
● 위치 : 삼천포 와룡산 (진주 30분) 산세수려한 임야 4500평중 조경양호한 건물 2동 80평 인법당1 방8 거실 1 욕실 3 연못 2 수질최상 마당까지 4m도로 포장 주차장 100평 밭 1500평 단감 1000평 평당 27000원 절충 가능
055)746-2478
011)830-28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방동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 5번 출구)옆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욕실 및 다용도실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월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 공원 입구
● 구조 : 52평 한옥건물 2채
● 특징 : 불교용품점 운영 가능
●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42)253-5037/016)327-5037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3천만원 (가격 절충)
019)545-2962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에서 약25분거리) 임야 2만평
차량 진입 (포장도로)
풍수 최적 명당 사찰터
● 가액 : 7천만원 (가격절충)
전북 무주군 무풍면
(무구 구천동에서 5분거리)
임야 1천평 (5천만원)
017)542-7010

토굴 안내
● 위치 : 강릉시 강동면 낙하사 뒷산
● 대지 : 132평, 건평 35평
● 특징 : 2천평, 정원 사용 가능
● 가액 : 8천만원
019)380-6677
033)644-6412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서울 중랑구 신내동
● 평수:40평, 4층건물 4층 방2 주방1 (주차장)
● 가액:보증금 1,5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3,000만원(법당시설 완벽함)
● 특징:주변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지역 도심포교에 적합함
02)436-3647

토담집 개조 암자로 토굴 · 기도터 최적지
○ 군위 우보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1년 사시면 반드시 發福터 - 마당 넓고 뒷山 명당지
※ 전세, 5년 분납도 가능
※ 처음 사찰 운영하실 분도 가능

○ 군위 고로 인각사 부근
○ 대지 151평 밭 724평은 집앞 100M 떨어져 있음
○ 암반, 계곡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
○ 황토집 2채 -불때면 3일간 따뜻
○ 양도가 3,900만원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인양
● 대지 : 70평 건물 약 60평, 법당 20평 공양실 16평
● 특징 : 사찰내 모든 집기류 무상 제공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3개, 욕실 2개
● 가액 : 8천만원 (전세가능)
052)254-1929
011)9315-1200

사찰 안내
● 위 치 : 파주시 문산 자유로 앞
● 대 지 : 193평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특 징 : 방 6개, 욕실 2개, 주방 3개, 거실 2개, 주차장 완비, 미륵불 모심, 경치 좋고, 물 좋은 기도 도량
● 가 액 : 3억, 답사 후 결정
011)9036-7905

전원주택 양도
● 위치 : 경남 의령군 봉수면 천계리
● 평수 : 140평 (대지)
● 건물 : 가옥 2채(정남형, 가옥간격 2m) 각각 행랑1, 방2, 주방(입식주방), 수세식화장실 (욕조있음)
● 특징 : 산밑에 위치(산세수려), 포장도로, 텃밭있음
● 가액 : 8천만원 (절충가능)가옥2채
055)573-9883

대사찰지 사찰양도(전세)
법당 五존 불상 석굴암 7척석불 굴안 50m 50평五층탑 간음보살 아미타불 山神각 요사채 34평 사찰부지 1,200평 양도가 2억 5천 미륵불지 조성완료 도로포함 500평 법당 요사채 조성 가능지 5百평 포함 1억 별도임 직접 스님 보살 30%감 전세분은 2~3년 후 사찰 매입가능한 분 영입 창건주 노령으로 직접 대사찰 조성할 분 영입. 사찰 밭(전지) 2,500평 임야부지 만평
충주 043)848-1766 / 019)848-1766

사찰 안내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치악산)
● 부 지 : 대지 204평 田 110평
● 건 물 : 방 4개 25평 법당 10평 산신각 3평 창고 有
● 특 징 : 계곡 있고 산세 수려 함 교통 편리
● 가 액 : 1억 2천
031)575-5831
017)378-8380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대지 : 720평
● 법당 : 5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종각, 미륵, 요사채, 고시 공부방 (각각있음)
● 가액 : 3억 5천
011)675-9828
063)453-297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입니다.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800평 현재 천탑 천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액 : 2억 5천
018)533-7780/033)378-3845

영규대사·800의승 '재조명'

갑사 408년만에 추모재·학술회…영규관 추진도

조헌과 700 의사만 있고 영규(靈圭)대사와 800 의승(義僧)은 어디로 갔는가.

임진왜란 때 금산전투에서 승병 800명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친 승장 영규대사가 열반 408년만에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됐다.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가 5일 기허당 영규대사(?~1592) 열반 이후 처음으로 대제(大祭)를 지내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는등 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재조명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

영규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8월초 갑사에서 스님들을 규합해 왜군의 손아귀에서 청주성을 탈환했으며, 8월18일 금산전투에서 의병장 조헌과 함께 전사했다.

그러나 스님을 천대했던 조선왕조의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인해 대사와 800명의 의승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스님들의 공적은 거의 묻혀져 왔다. 금산의 7백의총에서도 조헌과 700 의사만 있고 영규대사와 800 의승의 흔적은 찾아볼 길이 없다.

갑사는 이같은 역사적 무관심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영규대사와 의승들의 공적을 알리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갑사의 영규대사 재조명 작업은 크게 영규대제와 학술회의, 영규관 건립 등 3가지.

5일 갑사 대웅전에서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김말환) 주관으로 봉행되는 영규대제는 대사 열반 후 처음 갖는 대대적인 추모행사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갑사는 이번 행사를 국방부장관의 승인 아래 개최하는등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 30여명 등 정·군·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임란시 호국불교 구국승장과 영규대사'를 주제로 학술회의도 열린다. 충남대 최금묵교수가 '임란시 호서의병과 영규대사'를, 김덕수 법사(생활불교)가 '임란시 호국승병과 영규대사', 동국대 김승호박사가 '임란시 승장전설과 영규대사', 존주대 유병환교수가 '임진록에 나타난 승장의 신통 권능'을 각각 발표한다.

갑사는 또 대사의 '유물과 관련 자료들을 모은 영규관을 건립, 일반 시민들을 위한 호국불교의 산교육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사의 유적으로는 대전 계룡면 유평리에 지방문화재인 묘가 있으며, 갑사 경내에 표충원이 건립돼 있다. 표충원 앞뜰의 영규대사 사적비는 정인보선생이 집필한 대사의 행장문으로 세워져 있다.





◇영규대사와 사명, 서산대사의 진영이 봉안된 갑사 표충원 전경과 갑사 보장각내에 모셔진 영규대사 영정(아래).

갑사 주지 장곡스님은 "영규대사와 800 의승의 업적과 정신이 4백여년 넘게 묻혀 있었다는게 가슴아팠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의승들에 대한 학술조사를 강화하고, 영규대제도 700의사 추모제처럼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41)857-898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무등산 온천개발 반대

광주 종교인모임 성명

광주지역 종교인들이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새천년 민주당 지구당 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증심사 주지 영조, 문빈정사 주지 석장, 광륵사 주지 능인법사 등 광주지역 불교, 개신교, 천주교 대표자로 구성된 '광주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은 10월19일 민주당 광주 동구지구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등산 온천 개발에 관한 광주지역 종교인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 "무등산 개발을 억제해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화엄종 소의경전 '화엄종성전' 봉정



화엄종(종정대행 정회수)은 10월 21일 인천 약사사에서 화엄종의 소의경전인 〈회엄경〉 등 각 경전의 풀이와 종조 원효성사, 중흥조 의상조사, 창종주 능해대종사 등의 행장을 엮은 〈화엄종 성전(聖典)〉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화엄종 성전〉은 33년전인 지난 67년 화엄종 초대종정 능해대종사가 저술하여 출판한 것으로 한글경전이 거의 없던 당시 한글화경전으로 주목을 받았던 책이다.

이날 봉정식에서 정회수 종정대행은 법어를 통해 "오랜 세월 복간이 되지 못하여 희귀본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종단의 성전을 재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이를 계기로 창종주 능해대종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엄종의 발전을 위해 전 종도가 매진하자"고 말했다〈사진〉.

이경숙 기자

낙산사 문화포교도량으로

의상기념관·다래헌 12월 준공

해수관음성지인 양양 낙산사(주지 지홍)가 오는 12월 의상기념관 및 다래헌 준공으로 문화포교도량으로 거듭난다.

낙산사는 676년 신라문무왕때 의상대사의 사찰 창건을 기념, 지난 99년 14억8,000만원을 들여 총120평 규모의 전통목조건물 2동으로 착공한 의상기념관및 다래헌을 12월말까지 완공해 다래헌은 예술문화 포교공간으로, 기념관은 국민정신교육 도량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산사는 의상대사의 영정및 유물등을 소장한 일본 고산사에서 자료 촬영을 마친데 이어 전시관을 꾸밀 자료수집 작업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다래헌은 전통다원및 중광 지혜스님 등의 선화작품및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낙산사 주지 지홍스님은 "관음성지인 낙산사가 의상기념관 및 다래헌의 건립으로 불교신도와 관광객의 수련공간및 예술문화 산실로 거듭나게 됐다"며 "12월 준공때까지 다채로운 포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해 보리암과 함께 전국 제일의 해수관음 기도도량으로 꼽히는 낙산사는 이번 불사로 더욱 많은 신도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마창불교련 제1회 자비탁발

500여명 참여…모금액 불우이웃 돕기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지태·정법사주지)는 10월28일 소외계층과의 나눔을 위한 '제1회 자비의 탁발' 행사를 가졌다.

지역 원로스님인 지원·철화스님과 원정 이사장스님, 김인규 마산시장, 김형성 시의장을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입재식에 이어 정법사-창동 거리-어시장-부림시장으로 이어진 거리 탁발, 회향식 순으로 진행됐다.

지태스님은 "불가의 청정·무소유정신을 일깨우고 시민들에게 소외계층과 더불어 공존하는 자비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며, "모금액 전액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관음사 불교중흥 10년기도 3년차 정진결사 입제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주지 우학)는 10월27일 불교 중흥, 나라 발전, 자아성찰 발원 10년기도(1998년~2008년) 정진결사 3년차 입제식을 가졌다.

신도들은 매일 108배 및 금강경 독송, 2시간 관음정진과 1년에 한번이상 3천배 기도를 발원하고 1년에 3명이상 포교 및 3명이상 원불권선, 항상 자비와 친절베풀기 등 포교도 발원하며 용맹정진을 계속한다.

김재경 기자

청소년 백일장·사생대회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는 10월22일 '청소년 전통문화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양은지(교대부속초등 3)·임은지(고산중 2) 학생이 백일장 부문, 임지석(인화초등 4)·이슬기(사대부중 2)·차혜란(남녕고 2) 학생이 사생대회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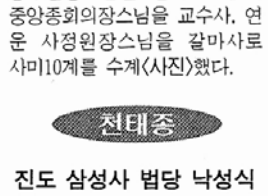
관통사 천왕문 낙성

제주 관통사(주지 혜연스님)는 10월22일 향운 천용사주지, 송권익 명예신도회장, 박창진 신도회장, 김승권 표선면장등 관내 기관단체장과 신도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왕문 낙성 및 사천왕 점안식을 봉행했다. 천왕문은 재일교포 강충남씨가 1억2천만원을 보시했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1507주 개산대재



제 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성덕 스님)는 10월20일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민주당 김중권·한화갑 최고위원,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507주년 기념 개산대재를 가졌다. 이날 개산대재는 동화사를 창건한 극달화상의 영정 이운식〈사진〉에 이어 법요식, 보살계 수계식 등이 이어졌으며, 이날 오후 7시부터는 통일기원 탑돌이 행사가 열렸다.

태고종

사미등 115명 수계식



제24기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 131명중 최종 합격자 115명(남행자 95명 여행자 20명)은 10월 25일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인곡 총무원장스님을 전계사, 남파 중앙종회의장스님을 교수사, 연운 사정원장스님을 갈마사로 사미10계를 수계〈사진〉했다.

천태종

진도 삼성사 법당 낙성식

진도 삼성사(주지 증궁)는 11일 오전 10시 법당 낙성식을 갖는다. 이날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061)544-2495

관음종

대천스님 2주기 추모재

종정을 역임한 대천스님의 열반 2주기 추모다례법회가 11일 오전 11시 논산 관음사에서 봉행된다.

총지종

내년도 예산 47억원

10월25일 종의회를 열고 내년도 통리원 예산 47억원과 사회복지재단 4억7백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통리원의 내년도 예산은 전당건설비 27억, 행정업무비 9억, 교화비 6억, 복지재단 보조 2억9천, 기도원 운영비 2억1천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11대 총지화 통리원장의 임기가 10월13일로 끝남에 따라 이날 12대 통리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선출되지 못해 지성 총무부장이 권한대행을 맡기로 했다.

법륜종

제1회 사미(니)계 수계법회

총무원(원장 덕산)은 5~6일 목포 보현정사 금강계단에서 종정 정각스님을 계사로 제1회 사미(니)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733-4445

선각종

중앙총무원 포교원 개원



25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5층빌딩 2층을 임대, 중앙총무원 포교원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종정 정업스님〈사진〉, 총무원장 정암스님, 원로원장 법진스님, 포교원장 벽해스님, 사무총장 진천스님, 사회복지원장 지훈스님, 비구니선원장 명지스님과 조희일 가야불교대학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기(氣)란 : 현실이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 주지스님을 친견후에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 철학관 선생님과 면담 후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사용처◆ 사찰, 암자, 가정집,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생명나눔 실천회-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자매결연'

장기기증·심장병 수술 "서로 돕자"

교계의 장기기증 운동 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와 심장병 어린이 후원 시민단체로 유명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자매결연을 맺고 아름다운 삶과 생명을 가꾸기 위한 공동활동을 펼친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대장 손삼호·이하 사랑대)는 10월27일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생명나눔 관계자 및 수덕사 신도들과 사랑대의 전국 40개 지대 지대장 및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갖고 상호협력과 사회봉사의 역할을 다하자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환했다.

사랑대는 전국 40개 지대(지부)에 등록된 회원 수만도 1만2천여명에 이르는 택시운전사들의 봉사단체로 86년 설립돼 지금까지 모두 591명의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지원해 왔으며,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 및 효행봉사 활동을 전개해 온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이번 자매결연으로 생명나눔실천회는 전국적인 규모의 장기기증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되는 등 캠페인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사랑대는 현재보다 폭넓게 심장병 어린이 후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자매결연은 '생명사랑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들 사이에 좋은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실천회는 매년 2~3명의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후원하며, 생명나눔의 각종 홍보물에 사랑대의 활동을 소개한다. 또 자체 소식지에도 사랑대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고정 배치하고, 각종 캠페인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홍보하는 등 사랑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랑대 역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운동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회원들의 택시에 생명나눔 캠페인 스티커 부착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생명나눔실천회 사업을 지원한다. 또 봉사대 전체 또는 각 지대별 행사 때마다 생명나눔의 활동을 소개하고 장기기증 운동 캠페인을 벌인다. 이와 함께 두 단체는 각자가 주최하는 행사나 캠페인에 참여해 상호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사랑대는 특히 10여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벌여 1000여 회원들에게 이미 서약을 받았을 정도로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 사무처장은 "사랑대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역별 행사가 열리고, 행사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과 회원 가족들이 동참하는 막강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며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알리고 캠페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손삼호 대장은 "이미 받아놓은 회원들 장기기증 서약서를 곧바로 생명나눔측에 전달하고 자매결연의 뜻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명나눔실천회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10월27일 수덕사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생명사랑실천'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달라이라마 방한" 대구서도 서명운동

달라이 라마의 방한 성사를 위한 서명운동이 대구에서도 시작됐다.

조계종 대구경북포교사단,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경실련 불교시민회,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화사 청년회 등 대구지역 7개 단체는 10월20일 동화사 개산대재 행사 때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모임은 이와 함께 10월29일 열린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를 위한 전국 총궐기대회에 맞춰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를 공식 발족했다.

16일로 예정된 각계의 입국허용 선언문 발표와 함께 서울에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김재경 기자

장경사 인근 송전탑설치 '물의'

조계종-용인주민, 산업자원부 항의방문

한국전력공사가 국정원과 천주교의 반대로 두 차례나 송전노선(345만5천V 신안성-신용인간)을 변경한 후, 불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인 장경사(주지 정휴) 주변을 지나는 새 노선을 강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전 전력계통 건설처 중부건설소는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보낸 '송전선로 변경 요청에 관한 회신문'을 통해 "위치 변경은 매우 어렵다"며 "산업자원부의 노선승인이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한전측은 노선변경 사유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국정원과 천주교의) 반대에 직면해 부득이 당초 승인 받은 구간에서 일부 변경했다"면서도, "불교계가 철탑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님비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전통사찰인 장경사의 사찰수행 및 자연·문화환경 보전차원에서 제기한 불교계의 요구를 님비현상으로 폄하하고, 지역주민과 사찰측이 제시한 새로운 노선안마저 무시한 편파행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조계종은 주민공청회 등 사전협의 없이 송전선로를 무단으로 변경한 한전에 대해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10월30일 주민 300여명과 함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산업자원부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조성준의원도 10월27일 제215회 정기국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장경사 일대 송전선로 건설문제와 관련 노선변경과정에서 공청회를 가졌는지 질의했으며, 사찰과 주민들의 요구 중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사 신협 예금지급

1~11일 농협 종로지점

지난 8월 공금횡령 사건으로 일체의 업무와 예금인출을 중지했던 조계사 신협이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을 통해 조합원들의 예금을 지급한다.

이 조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조계사 신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며, 예금자들은 통장과 수령인의 도장,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다만 98년 8월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예금 중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보호받는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과 압류 및 가압류 등으로 지급이 금지된 예금, 제3자 대출을 위한 보증채무 등은 지급이 보류된다.

한명우 기자

'21세기와 대중운동' 대원회 전국순회법회

불교대원회는 8일부터 26일까지 '21세기와 대중운동'이란 주제로 전국 5개지역에서 순회법회를 갖는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봉행되는 이번 순회법회는 진주(8일), 이천(10일), 포항(14일), 원주(18일), 서울(26일)에서 최봉수, 정병조, 권기종 동국대교수와 박완일, 김범준 법사가 강의한다. 대원회는 이번 법회를 통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교현실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02)773-9171 김두식 기자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 개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외국인 노동자 상담지원센터인 '외국인 노동자 마을'을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회장 영도스님, 철원 심원사주지)로 개편, 2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개원식에서 전재성 박사(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의 불교적 이해'를, 이정호 외국인노동자협의회 회장이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

"민주당 연등회 방한운동 비협조"

준비위-재가연대 불만

새천년민주당 소속 불자모임인 연등회가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에 비협조적인 것은 물론, 심지어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0월26일 "달라이라마 방한 준비위원회가 추진하고 각계 명사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진행된 각계 33인 선언중, 정치인 33인 선언자 중에 여당 국회의원과 천주교인 국회의원은 볼 수 있었어도 연등회 소속 국회의원은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진정한 불자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 관계자도 "연등회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을 방해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우담바라' 보도후 격려-항의 엇갈려

본지에 '우담바라' 관련 기사 〈291호 23면, 10월25일자〉가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우담바라'와 같은 물체를 발견했다는 제보 전화가 이어졌다. 또 기사에 대한 항의와 함께 격려도 잇따랐다.

항의 내용은 이렇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찾아와 꽃을 보고 환희심에 젖고 있다. 불교중흥의 계기를 만났는데, 찬물을 끼얹는 이유가 무엇이냐."

격려의 메시지도 많았다. "3천년만에 한 번 핀다는 꽃이 우담바라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는가. 그런데 돋보기를 들이대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담바라'이겠느냐"라며 "현대불교에서 잘 지적해 주었다. 불자들이 바른 신행의 길을 가도록 언론에서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

곤충학자들은 이 꽃이 풀잠자리의 알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대전대 생명과학부 남상호 교수는 "종교적인 해석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근접촬영한 사진으로 봤을 때 풀잠자리의 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풀잠자리는 잠자리와 비슷하게 생긴 날벌레로 주로 숲에 서식하며 봄과 가을에 걸쳐 알을 낳는데 길쭉한 알자루를 잎에 붙이고 그 끝에 알을 얹는다. 애벌레가 알을 빠져나갈때 알껍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일수 있다는 것.

그 작은 꽃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 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이 중요하다. 정견을 가지고 정행을 해서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니르바나를 얻는 것, 이 길을 스님들과 불교의 지도자들이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성운 기자



◇물길을 따라 걷고 있는 순례단.

1300리 낙동강 도보순례 국토청정 결의 한마음 행진

10월23일 오전 서울 종묘공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곧바로 조계사에서 출발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의 '1300리 낙동강 도보순례단'이 강원도 태백시 황지연못에 도착한 것은 오후6시.

순례단장인 수경스님(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부단장 일철스님(전 조계종 기획실장), 함현(법주사)·연성(수덕사)스님 등 순례단원 20명은 수경스님이 낭독한 기원문을 태우면서 한마음으로 국토청정을 발원했다.

이어 이날 밤은 태백산 아래 민박집에서 '지역주민과의 만남'으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월24일 오전5시에 기상, 아침을 먹고 오전6시40분 일행은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낙동강의 발원지를 출발했다.

황지에서 몇백 미터밖에 흘러오지 못했지만 '황지천'임을 나타내는 푯말 밑에 선연한 '2급수'라는 글자가 무색하다.

오후4시 참가자들은 9시간 반을 꼬박 걸어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결둔리에 도착했다. 총 도보거리는 원래의 목표를 3km나 초과한 29km.

이날 저녁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소속 필리퍼 윌시와 앤드류 콕스 커플이 도착, 3일간 도보순례를 함께 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하나 둘씩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일행은 아침에 비가 오지 않는 한 예정대로 경북 봉화군 현동면 분천리까지 20km가량을 걷고 나머지 483Km를 야영하며 더 걸을 계획이다.

태백=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기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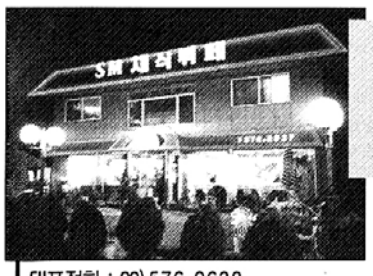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채식

SM 채식 뷔페



대표전화 : 02) 576-9638

www.godsdirectcontact.co.kr/SM food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음이 영혼에 미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몸과 마음을 구하는 100% 완전 채식 부페가 있습니다.

•No계란 •No동물성 •No오신채 •No화학 조미료

골정뷔페

결혼 · 개업 · 환갑 · 생일

40인 이상 15,000원 40인 미만 20,000원

메뉴

밀까스, 연자죽, 켄터키콩고기, 탕수육바베큐, 순수채식 김치, 육개장 등, 콩으로 만든 각종 고기맛 요리 포함

가격

점심/저녁 식사 10,000원 (도시락 동일)

출가자/10세 이하 5,000원

월요일 - 토요일 (점심 11:30-2:30, 저녁 6:00-9:00)

각종 언론 특종보도

KBS2 TV뉴스

MBC TV 생방송 6시

SBS 남희석/이휘재 멋진만남

Korea Herald

기타 다수의 방송, 신문, 잡지에서 특정으로 보도 함.



베지러브 오픈!! (채식 베이커리, 채식재료 전문점)

채식빵, 햄버거, 샌드위치, 케이크, 만두, 피자, 햄, 라면 등 채식인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전화 : 02) 577-5749)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패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패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번하게 하는 황동판 팔패만다라와 팔패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패만다라와 팔패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패만다라와 팔패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라→고려→조선 '시간여행'



◇장곡사에는 고려시대 건물인 상대웅전과 조선시대 건물인 하대웅전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사진은 하대웅전 모습.

가람의 장면들 36

장곡사 상-하 대웅전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하대웅전 다포식 조선건축

상대웅전 주심포 고려양식

바닥장식·철불상은 신라작

1980년대 한 지방 출신 가수가 전통적인 가락과 가사를 응용한 노래를 발표했다. 주병진의 "콩밭매는 아낙네야....."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아직도 노래방의 애창곡으로 남아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충남 청양에 있는 '칠갑산'이고, 장곡사는 그 칠갑산 서쪽 중턱에 자리잡았다. 칠갑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장곡사는 명산에 있는 관광사찰 정도로 여겨지기 쉽지만, 한국 건축사상 중요한 두 개의 건물을 한 장소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람이기도 하다. 이 절은 특이하게도 두개의 사찰로 이루어졌다. 경사지에 자리잡아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누각과 승방, 그리고 법당으로 이루어진 아랫 절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급한 계단을 50m 쯤 올라가면 또 하나의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상대웅전'이라 불리는 법당과 웅진전이 나란히 서있다.

아래 위 두 법당에는 각각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달려있어서, 한 절에 두 개의 대웅전이 있는 기이한 모습이다. 편의상 아래 법당을 '하대웅전', 위 법당을 '상대웅전'이라 부르기로 하자. 두 건물은 앉은 방향도, 조성된 시대도 다르다. 상대웅전(보물 162호)은 고려말어 건축된 것으로 동남향으로 앉아 있으며, 하대웅전(보물 181호)은 서남향이며 조선 중기의 건물로 추정된다. 이 절은 신라 하대인 850년 보조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당시에는 하대웅전은 '금당'이었고, 상대웅전은 '강당'이었으리라. 그러다 언제인가 사찰 내에 분규가 생겨서 두 개의 사찰로 분리되어 각각 하나씩의 금당(대웅전)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상상해본다.

내력이야 어쨌든, 상-하 두 대웅전은 건축사상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전통적인 절집, 특히 법당이나 금당은 대부분 '주심포 계통' 또는 '다포 계통'이라는 양대 구조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 왔다. '포'라는 것은 건물 기둥과 지붕틀 사이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복잡한 모양의 장식적인 부재를 말하는 것이며, '공포' 혹은 '포작'이라고도 불리운다. '주심포계'란 기둥 위에만 포를 올린 건물을 말하며, 다포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포가 올려진 건물이다. 주심포계 건물은 주로 고려시대에 유행했고, 다포계는 조선시대 들어서 성행한 구조형식이다.

장곡사 상대웅전은 주심포계이며, 하대웅전은 다포계에 속하는 건물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두 개의 구조형식이 한 사찰 내에 존재하는 귀중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건물 모두 전형적인 형식은 아니다. 상대웅전은 전체적으로 주심포계 특징이 강하지만, 기둥 사이에 간략한 포를 하나씩 더 얹어져 다포계의 모습이 가미되었다. 하대웅전은 다포계지만, 건물의 외관은 주심포계에 가깝다. 굳이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상대웅전은 '다포적 주심포계', 하대웅전은 '주심포적 다포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 주심포 형식이 조선시대 다포계 형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상에 나타난 과도기적 절충형식이다.

건물의 내부도 큰 차이가 난다. 상대웅전 내부는 어둡고 높고 넓게 느껴진다. 천장을 하지 않고 지붕의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층고가 높고, 창문이 적어서 어둡고, 내부에는 일체 벽이 없어서 넓다. 또한, 바닥은 흔한 마루가 아니라, 전돌을 깔아서 내부에도 신을 신고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고려시대 주심포 법당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이다. 특히 바닥에 깔린 전돌 가운데는 8개 꽃잎을 가진 연꽃이 조각된 것도 발견된다. 이는 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며, 이 건물의 오래된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다.

반면, 하대웅전 내부에는 통상적인 마루바닥이 깔리고, 천장에는 격자형의 우물천장을 달았다. 또한 전면 모두와 옆면에도 창호를 달아서 내부는 비교적 밝고, 화려하게 느껴진다. 또한, 불상 뒤에는 탱화를 걸어서 좁게 느껴진다. 전형적인 조선시대 법당의 실내 분위기다.

상대웅전 안에는 두 분의 쇠로 만든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한 분은 철조 약사여래좌상(국보 58호)이며, 다른 분은 철조 비로자나불(보물 174호)이다. 두 분 모두 신라 때 작품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유구이다. 또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대좌 역시 신라 때의 작품이다. 하대웅전 안에도 귀한 부처님이 계시다. 금동약사여래불(보물 337호)은 고려말에 조성된 것이 밝혀졌다. 고려 건물 안에 신라불상이, 조선 건물 안에 고려불상이 계신 것이다. 한 절에 이처럼 귀한 부처님들이 3분이나 계신 것도 희귀한 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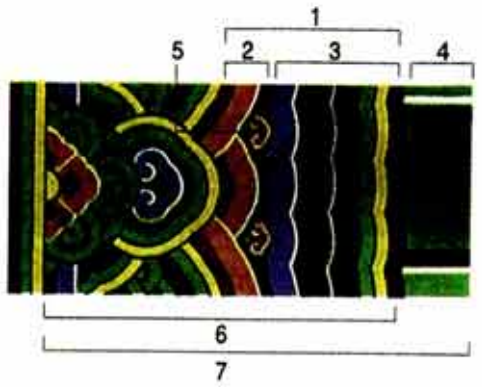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장곡사는 화엄사상에 기초한 약사여래 도량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명칭같이 상-하 '대웅전'이라는 건물 이름은 맞지 않는다. 아마도 하대웅전을 '대적광전', 상대웅전을 '약사전'이라 불렀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장곡사에 가면 상대웅전부터 참관하고 아래 절의 하대웅전으로 내려오길 권한다. 그리고 꼭히 법당 안에 들어가서 실내 분위기를 맛보고, 세 분 부처님을 차례로 배관하기 바란다. 건축적으로는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오는 역사적 기행이며, 신앙적으로는 신라 부처님을 거쳐 고려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여행이기 때문이다.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

단/청



◇1.취문양, 2.인휘, 3.늘휘, 4.굿기단청, 5.쇠코문양, 6.머리초, 7.모루단청



◇송광사 부연, 서까래의 단청

청 적 황 백 흑 오방색 사용

가람 장엄하게…화려하게…

불교건축의 천장, 처마 밑, 기둥등에 화려하게 그려진 단청은 건축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더할 뿐 아니라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고, 벙층해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청은 청 적 황 백 흑 등 다섯가지 색을 기본으로 사용해 목조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다. 좀더 넓게는 조각 형상이나 공예품 등에 채화하는 것과 서, 회, 화의 개념을 통틀어 의미하기도 한다. 불교 건축물에 표현된 단청은 불전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여 신성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단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마다 다양한 문양들이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레바퀴 모양으로 그려진 비단무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물려금문.

■머리초문양=처마아래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 있는 평방과 창방, 도리 등의 부재 양끝 모서리에 그려 넘은 가장 주가 되는 문양이다. 시대와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녹화, 연화, 주화, 장구머리, 병머리 등을 배열한 다음 몇 가지의 색깔 띠로 나누어 채색하는 휘문양을 붙이는 것이 기본형식. 문양의 생김새에 따라 앞머리초, 온머리초, 반머리초, 연화머리초, 녹화머리초 등 다양하다.

■휘문양=몇 가지 색대를 나누어 채색한 것을 말한다. 가운데 주문양이 배치되고 가운데 문양과 바탕사이를 잇는 오색의 띠가 겹겹이 둘러지는데, 그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무늬 밖으로 간지를 하여 전개되는 휘가 있어 이 또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연화머리초문양

■금문양=비단과 같은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무늬를 써서 장식한 것으로, 최대의 길상을 나타낸다. 크고 작은 원형, 삼각형, 육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곡선과 직선들을 서로 꿰고 묶어서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형식의 문양과 진귀한 물체들을 조화시켜 도안화한 능화(綾花)문양이 있다. 모양에 따라 십자금, 숫을금, 고리금, 박쥐금, 연등금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운기문양=점점으로 흩어진 구름모양을 나타낸 점운, 흘러가는 구름모양을 나타낸 유운, 솟아오르는 구름 모양을 도안화하여 나타낸 용운, 뭉게뭉게 피어나는 모습을 나타낸 풍운, 구름형상을 만자모양으로 도안화한 완자운, 구름 머리를 보상화 모양으로 도안화 한 보운 등이 있다.

단청에는 이외에도 연꽃, 모란, 국화, 보상화, 만다라화 등 꽃문양을 비롯해, 원, 직선, 타원 등을 이용한 기하학적 문양과 상상의 동물인 사신, 사령 등의 문양, 기둥 위쪽에 그리는 주의초문양, 천장의 반자에 그리는 천장초문양, 서까래, 부연, 개판 등의 마구리에 넣는 부리초문양 등이 있다.

부석사 조사당의 단청은 고려의 단청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인데, 후세에 여러번 덧칠하였다. 수덕사 대웅전에는 건립 당시에 그려졌던 벽화를 비롯, 여러 단청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채색과 선이 밝고 부드럽게 표현돼 있다. 또 봉정사 극락전의 단청은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조성 당시의 장엄함과 화려함을 전해준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마하몰 신상품 및 추천상품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MAHAMALL

108나한단주



-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 있음 (18알×6나한=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광택이 나며,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 자질 : 복숭아씨

가격 : 20,000원 (고급 케이스 포함)

설악 상황버섯



상황버섯이란?
오래된 봉나무 그루터기에서 자생하는 봉나무 버섯으로 설악 상황버섯은 기존의 여러 농가에서 톱밥으로 재배한 버섯과 달리 건강에 좋은 천이에 해양 재배하므로 버섯의 자실층과 균사체 전부를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품 효능 / 효과
1. 항암효과 - 면역항체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암에 대한 저항력을강화시켜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2. 예방작용 - 초기암의 증식방지 효과, 특히 수술후 재발방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항종양작용 - 고형암에 대한 성장억제 효과가 탁월합니다
4. 성숙작용 - 회학요법제 투여나, 방사선요법과 병행하면 이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5. 안정성 - 기존의 항암치료제와는 달리 탈모증,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전혀 없으므로 장기복용해도 절대 안정적입니다.

- 내용량 : 340g (170g × 2개입) - 원산지 : 강원도 속초
- 원료명 - 천이상황 100% (국산)
- 가 격 : 135,000원

야생참 인진쑥 액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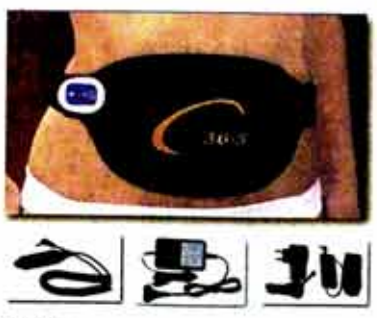
상품설명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흰 蒿고)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신맹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상품 효능 / 효과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 내용량 : 80g × 60포 - 원산지 : 강원도 고양산
- 가 격 : 175,000원 (2개월분)

玉온열 건강벨트



상품설명
玉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피로, 통증, 취침, 기능을 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정(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취침, 통증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며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하신분,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알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밧데리(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투명꽃 5인 다기세트



상품소개
우아한 빛깔과 곡선이 느껴지는 전통다기 셋트입니다
차잎을 우려내는 다관, 향수를 식히는 사발 숙우,
차를 따라 마시는 찻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 격 : 150,000원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상품소개
스탠드형 - 규격 : 43×23×2.8cm - 무게 : 1.8kg - 가 격 : 97,000원
액 자 형 - 규격 : 69×43×3cm - 무게 : 4.5kg - 가 격 : 107,000